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06. **4** Vol. 172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초대사장 김구현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흑백사진으로 담아낸 용호농장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국악단상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부산, 일본 영화와 만나다



이무지치 실내악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19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I



지휘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



메조 소프라노
추 희 명



테너
하 석 배



베이스
티그란 마르티로시안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

2006. 4. 28(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ForAD

■ 연주곡목

- 모차르트 - 교향곡 제40번 사단조 작품550
- 모차르트 - 레퀴엠 라단조 작품626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www.bsculture.busan.kr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www.busanphil.com 607-6101~4

■ 입장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모차르트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남포동/ 문우당서점 (버스정류소 앞 245-3843)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광복동/ 국도레코드 (로얄호텔 옆 247-4240~2)
서면/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유니트클럽 (까르푸 서면점 내 462-0833)
금정/ 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 (부산대 앞 518-0686) 골든 악기사 (부산예고 앞 512-4295)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해운대/ 해운대약국 (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 (선프라자 1층 743-0003) 하단/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vivaceclas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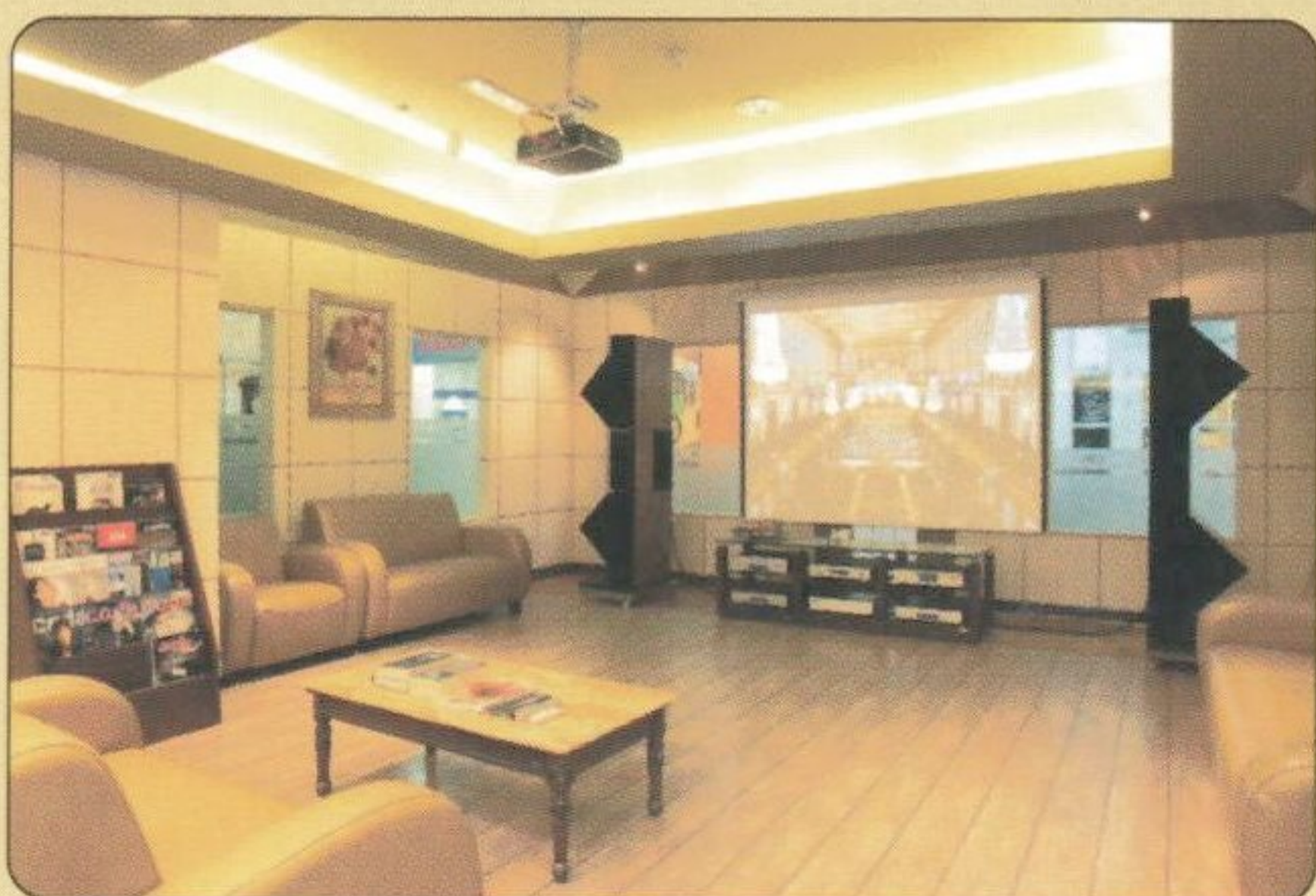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들이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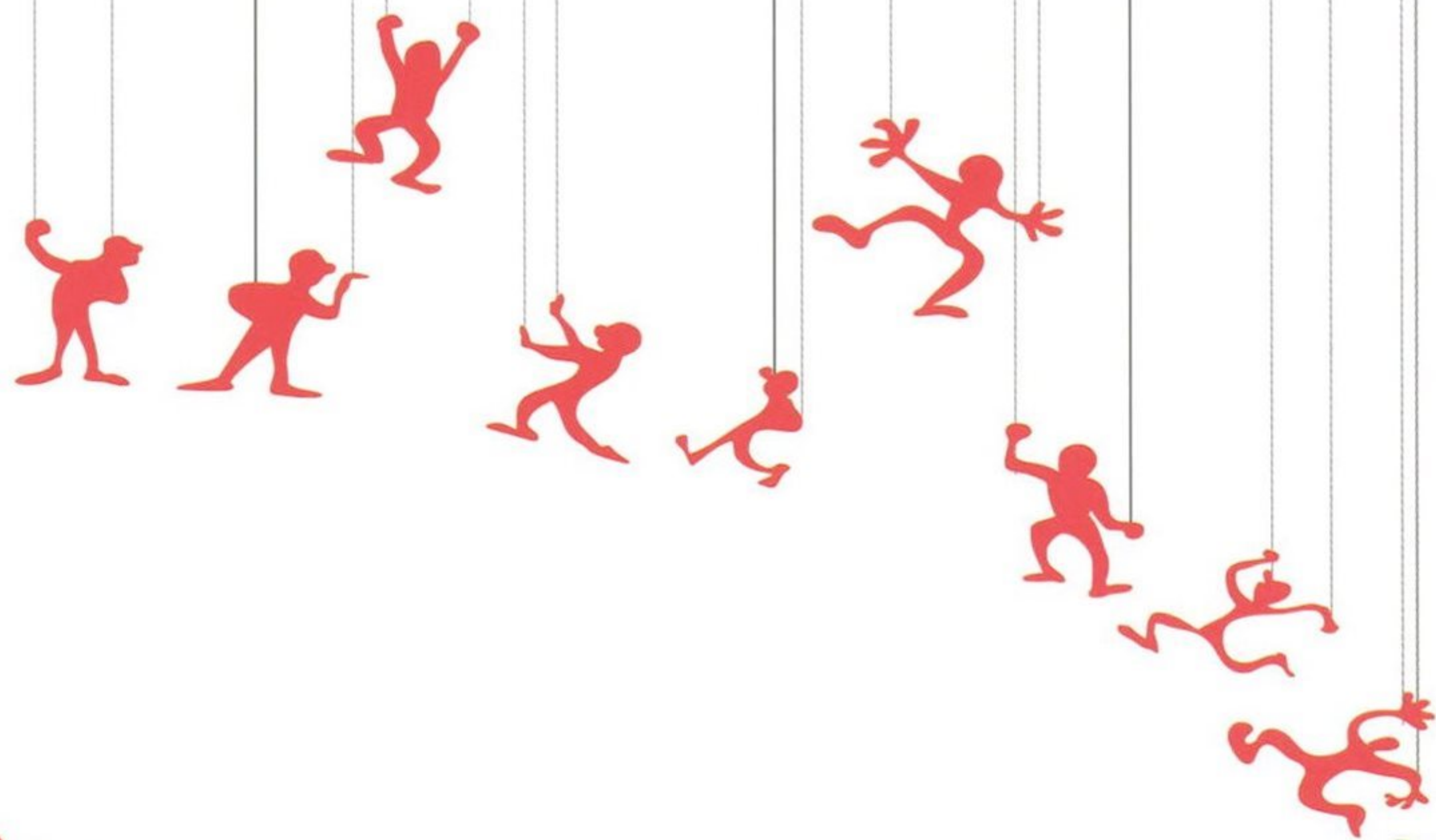
vivaceclassic.co.kr

2006 부산국제연극제

WWW.BIPAF.COM

Non-Verbal with Busan!

말 없이 말하기
소리, 몸짓 그리고 진실



BIPAF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경성대 콘서트홀·소극장
SH공간소극장
너른소극장

2006 5.5 - 15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총 7개국 17개 작품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 님버벌스페셜
- 특별초청공연
- 가족나들이
- BIPAF스테이지



공.연.문.의.

051) 627-0443~4

인.터.넷.예.매.

티켓365

www.ticket365.co.kr

1588-2528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서면-영광도서, 동보서적, 까르푸 서면점
남포동-남포문고 / 경성대앞-면학도서
동아대앞-향학서점 / 북구-대한도서

주최·주관 부산국제연극제추진위원회, 부산문화회관

후원 부산광역시시설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부산연극협회, 경성대학교, 부산예술대학,
부산국제연극제후원회,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부산방송총국, MBC부산문화방송, PSB부산방송

Contents

2006 · 04

- 06 부산문화회관 4월 공연 일정
- 08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4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궁하면 통한다 · 전승환
- 12 반갑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초대사장 김구현
- 14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흑백사진으로 담아낸 용호농장 · 최철오
- 18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국악단상 · 홍희철
- 20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풀밭 위의 휴식 · 김형술
- 22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부산, 일본 영화와 만나다 · 김희진
- 24 연극속으로 | 작가의 힘 - 〈쥐뿔〉 · 변미선
- 26 그곳에 가면 | 부산 숲 체험학습센터
- 28 우리는 문화 가족 | 부산풍물사랑 판
- 30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단소 불어보기〈4〉 · 채수만
- 32 쉽게 듣는 클래식 | 교향시(Symphonic Poem) · 곽근수
- 33 이 사람 | 부산문화회관 문화 자원봉사단 ‘악어봉사단’ 단장 서용득
- 34 공연 화제 | 연극속으로! 관객속으로! 2006 부산연극제
이무지치 실내악단 부산연주회
- 38 부산시립예술단 4월 공연관람 가이드
- 42 4월 프로그램 가이드
- 59 객석에서 |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를 다녀와서 · 이은희
- 60 새로 나온 음반
- 61 새로 나온 책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 6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3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4

월 공연일정

전시실

■ 국제교류서도협회 한·일 교류전-대·중전시실

4월 7일(금)~4월 10일(월)

문의 정운재(806-6118, 016-596-8068)

■ 제 12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상작 전시회-대전시실

4월 12일(수)~4월 15일(토)

문의 최연성(868-5236, 011-864-3698)

■ 부산야외수채화협회

부산과 서울 야외수채화 교류전-대전시실

4월 17일(월)~4월 22일(토)

문의 정인성(262-6562, 017-842-6422)

■ 제 3회 부산서예전람회-대·중전시실

4월 25일(화)~4월 28일(금)

문의 배형동(759-8858, 011-553-2001)

■ 추사서예가협회 전국공모대전-대전시실

5월 2일(화)~5월 4일(목)

문의 김종영(752-8587, 011-772-8587)

국제회의장

■ 대한민국서예대전 시상식

4월 15일(토) 오후 2:00

문의 최연성(868-5236, 011-864-3698)

■ 제 3회 부산서예전람회 시상식

4월 25일(화) 오후 2:00

문의 배형동(759-8858, 011-553-200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9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sat

2 sun

3 mon

4 tue

5 wed

6 thu

7 fri

8 sat

9 sun

10 mon

11 tue

12 wed

13 thu

14 fri

15 sat

16 sun

17 mon

18 tue

19 wed

20 thu

21 fri

22 sat

23 sun

24 mon

25 tue

26 wed

27 thu

28 fri

29 sat

30 sun

5/1 mon

부산콘서트콰이어 제 8회 정기연주회 '명성가곡의 밤' 19:30
1만원 · 5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621-6646)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아지무스오페라단(011-9520-4649)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아지무스오페라단(011-9520-4649)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5:00,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아지무스오페라단(011-9520-4649)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아지무스오페라단(011-9520-4649)

2006 최은희의 우리춤 큰 출판 19:30
1만원 · 7천원/최은희(620-4960, 011-876-0836)

닥터스빅밴드 제 5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닥터스빅밴드(550-9330)

희망을 여는 사람들 'ING생명 고객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희망을 여는 사람들(554-0833)

꼬레아오페라단 '10소프라노 페스티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안상철(016-9302-5271)

부산심포닉밴드 제 3회 정기연주회 '작곡가 임금수 초청 가곡의 밤'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황윤주(011-9305-9366)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 '찬불가 합창경연대회' 18:00
무료/강갑순(019-558-8059)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 제 5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이수영(016-804-7404)

2006 아듀 이루마 콘서트 18:00
6만원 · 5만원 · 4만원/(주)인터스테이지(1588-8477)

이자벨 베르네 & 이철성 듀오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635-908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8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임병원(620-4917, 4918)

 부산문화회관 초청 '이무지치 내한공연'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47)

부산 하모니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최신(463-4565, 011-887-86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9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I'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엄마하고 나하고' 19:0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지니먼트(747-1536)

제 72회 부산영남 무용제 09:00
무료/정성철(246-2294)

중극장

MEDIUM THEATER

1	sat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동그라미그리기 '천하장사 반쪽이' 13:00, 15:00 1만5천원 · 1만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2	sun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동그라미그리기 '천하장사 반쪽이' 13:00, 15:00 1만5천원 · 1만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3	mon	
4	tue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에저또 '난' 19:30 1만5천원 · 1만원/극단 에저또(852-9161)
5	wed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에저또 '난' 16:30, 19:30 1만5천원 · 1만원/극단 에저또(852-9161)
6	thu	
7	fri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휘투타' 19:30 1만5천원 · 1만원/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8	sat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휘투타' 16:30, 19:30 1만5천원 · 1만원/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9	sun	
10	mon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맥 '곡독(哭獨)' 19:30 1만5천원 · 1만원/극단 맥(633-2114)
11	tue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맥 '곡독(哭獨)' 16:30, 19:30 1만5천원 · 1만원/극단 맥(633-2114)
12	wed	
13	thu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바문사 'PLAY5-Mankind History' 19:30 1만5천원 · 1만원/바문사(247-6533)
14	fri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바문사 'PLAY5-Mankind History' 16:30, 19:30 1만5천원 · 1만원/바문사(247-6533)
15	sat	
16	sun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가마골 '햄릿' 15:00, 18:00 3만5천원 · 2만5천원/가마골소극장(245-0042)
17	mon	
18	tue	제 5회 한국피아노 학회 부산, 경남 지부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박정현(016-547-2325)
19	wed	유주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	thu	한연회 제 11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예은예술기획(632-6904)
21	fri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앙코르 앙상블'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22	sat	이솔리스트 합창단 창단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이솔리스트(010-3038-7191)
23	sun	
24	mon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제 31회 정기연주회 '솔로연주' 19:30 균일 1만원/서숙지(018-563-6692)
25	tue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제 31회 정기연주회 '듀오연주' 19:30 균일 1만원/서숙지(018-563-6692)
26	wed	
27	thu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28	fri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한국작곡가들과 함께 하는 우리 성가'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29	sat	피아니스트 김유진 독주회 19:30 초대/김유진(019-322-2167)
30	sun	
5/1	mon	제 21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소극장

SMALL THEATER

1	sat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자갈치 '둥글어진다는 것은 낮아 짐입니다' 15:00, 18:00 1만5천원 · 1만원/극단 자갈치(515-7314)
2	sun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자갈치 '둥글어진다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15:00 1만5천원 · 1만원/극단 자갈치(515-7314)
3	mon	
4	tue	
5	wed	
6	thu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현대무용단 자유 '2st HUM...HUM...Project-Flower' 19:30 1만5천원 · 1만원/현대무용단 자유(510-2956)
7	fri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현대무용단 자유 '2st HUM...HUM...Project-Flower' 19:30 1만5천원 · 1만원/현대무용단 자유(510-2956)
8	sat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마임극단 세진 '하루' 18:00 1만5천원 · 1만원/마임극단 세진(412-1108)
9	sun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마임극단 세진 '하루' 15:00, 18:00 1만5천원 · 1만원/마임극단 세진(412-1108)
10	mon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마임극단 세진 '하루' 19:30 1만5천원 · 1만원/마임극단 세진(412-1108)
11	tue	
12	wed	
13	thu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교육극단 이야기 한·중 합동 그림자극 '청아 청아 심청아' 11:00, 14:00 균일 1만원/교육극단이야기(253-7376)
14	fri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교육극단 이야기 한·중 합동 그림자극 '청아 청아 심청아' 11:00, 14:00 균일 1만원/교육극단이야기(253-7376)
15	sat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교육극단 이야기 한·중 합동 그림자극 '청아 청아 심청아' 12:00, 14:00, 16:00 균일 1만원/교육극단이야기(253-7376)
16	sun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교육극단 이야기 한·중 합동 그림자극 '청아 청아 심청아' 12:00, 14:00, 16:00 균일 1만원/교육극단이야기(253-7376)
17	mon	
18	tue	
19	wed	
20	thu	
21	fri	
22	sat	토요상설무대 '페이지원 재즈밴드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3	sun	
24	mon	
25	tue	메조소프라노 김효순 독창회 19:30 초대/김효순(240-2823, 011-237-4174)
26	wed	
27	thu	
28	fri	고은경, 금찬이 피아노 듀오 연주회 19:30 초대/금찬이(016-850-6424)
29	sat	토요상설무대 '서지영 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30	sun	
5/1	mon	

● 부산시내 기타공연 ④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1	sat	시끄러운 음악회 11:00, 14:00, 16:00 -대극장 원스테이지(1588-0881) 부산연극제 개막식 15:00 -소극장 부산연극협회(645-3759)
2	sun	강은일의 해금플러스 17:00 -대극장 초대/시민회관(630-5200) 부산연극제-남산놀이마당 'SHAMAN' 18:00 -소극장 남산놀이마당(516-4434)
3	mon	부산연극제-남산놀이마당 'SHAMAN' 19:3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남산놀이마당(516-4434)
4	tue	
5	wed	무용 '선택' 19:30 -대극장 초대/시민회관(630-5200) 부산연극제-극단 도깨비 '꿈에' 19:30 -소극장 극단 도깨비(722-4231)
6	thu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음악회 19:30 -대극장 초대/시민회관(630-5200) 부산연극제-극단 도깨비 '꿈에' 16:30, 19:30 -소극장 극단 도깨비(722-4231)
7	fri	
8	sat	부산연극제-극단 액터스 '강통시장' 19:3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극단 액터스(611-3703)
9	sun	제 20회 청소년 무용경연대회 10:00 -대극장 무료/부산무용협회(632-5116) 부산연극제-극단 액터스 '강통시장' 16:30, 19:30 -소극장 극단 액터스(611-3703)
10	mon	
11	tue	부산연극제-축하공연 극단 자유바다 '안녕! 갈매기' 19:3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극단 자유바다(622-3572)
12	wed	부산연극제-축하공연 극단 자유바다 '안녕! 갈매기' 19:3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극단 자유바다(622-3572)
13	thu	2006 지킬앤하이드 20:00 -대극장 오디뮤지컬컴퍼니(1588-5212) 부산연극제-극단 자유바다 '안녕! 갈매기' 19:30 -소극장
14	fri	2006 지킬앤하이드 부산공연 20:00 -대극장 9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오디뮤지컬컴퍼니(1588-5212)
15	sat	2006 지킬앤하이드 16:00, 20:00 -대극장 오디뮤지컬컴퍼니(1588-5212) 부산연극제-부두연극단 '오프-스테이지' 15:00, 18:00 -소극장
16	sun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5:00, 19:00 -대극장 오디뮤지컬컴퍼니(1588-5212) 부산연극제-부두연극단 '오프-스테이지' 15:00, 18:00 -소극장
17	mon	월요일영화 '음란서생'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8	tue	한낮의 휴(休) 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19	wed	
20	thu	정무연 무용단 대공연 '대중과 함께하는 열린무대' 19:30 -소극장 무료/정무연(819-8376)
21	fri	
22	sat	배추공주와 깍두기왕자 13:00, 15:00 -대극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백조왕자 14:00, 16:00 -소극장 열린극단 소품(011-417-3448)
23	sun	배추공주와 깍두기왕자 13:00, 15:00 -대극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백조왕자 12:00, 14:00, 16:00 -소극장 열린극단 소품(011-417-3448)
24	mon	월요일영화 '왕의 남자'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25	tue	세르게이 두가체프 초청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극장 균일 2만원/중앙음악신문(645-6828)
26	wed	월요일영화 '왕의 남자'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27	thu	
28	fri	
29	sat	연극 '날 보러와요' 16:00, 19:30 -대극장 엠스톤엔터테인먼트(1588-8477) 신데렐라 스토리 12:00, 14:00, 16:00 -소극장 프렌즈엔터테인먼트(032-505-7232)
30	sun	연극 '날 보러와요' 15:00, 18:30 -대극장 엠스톤엔터테인먼트(1588-8477) 신데렐라 스토리 12:00, 14:00, 16:00 -소극장 프렌즈엔터테인먼트(032-505-7232)
5/1	mon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1	sat	뮤지컬 인형극 '일곱마리 아기염소'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2	sun	뮤지컬 인형극 '일곱마리 아기염소'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3	mon	
4	tue	
5	wed	한국의 명인명무전 19:30 -대공연장 동국예술기획(011-223-0022) 수요음악회 '작악회 작곡발표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6	thu	주창근 귀국 작곡발표회 19:3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7	fri	교사국악회 그루터기 제 4회 정기연주회 '국악향기 풀~풀 임의 향기 그득' 19:30 -소공연장 무료/김정주(017-569-5771)
8	sat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박셋별(010-6472-5638) 이혜영 가야금 독주회 17:00 -소공연장 이혜영(011-9309-7097)
9	sun	
10	mon	
11	tue	나수련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무료/A.M예술기획(623-0684)
12	wed	한국의 명인명무전 19:30 -대공연장 박동국(011-223-0022) 수요음악회 '배지원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13	thu	부산신포니에타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6천원/김영희(011-9519-0448)
14	fri	금샘국악단 창단연주회 19:30 -대공연장 5천원 · 3천원/강윤정(016-842-4835)
15	sat	
16	sun	
17	mon	글로벌콰이어 제 16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강호진(019-380-9991)
18	tue	바리톤 이창룡 독창회 19:30 -대공연장 이창룡(240-2827) 솔비아도 정기공연 19:30 -소공연장 초대/구중훈(010-2848-4204)
19	wed	피아니스트 최희연 순회공연 19:30 -대공연장 코리아트(02-3775-3880) 수요음악회 '테너 이은민 독창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20	thu	천은화 귀국 오보에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21	fri	2006 봄 어린이 연극축제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세요'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SH공간소극장(621-8518)
22	sat	2006 봄 어린이 연극축제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세요'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SH공간소극장(621-8518)
23	sun	2006 봄 어린이 연극축제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세요'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SH공간소극장(621-8518)
24	mon	정문정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정문정(016-853-8755)
25	tue	제 6회 베이스 손욱 독창회 19:30 -소공연장 2만원 · 1만원/손욱(011-9520-4649)
26	wed	영남필하모니 협주곡의 밤 19:00 -대공연장 손경균(011-841-4636) 수요음악회 '강영화 작곡발표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27	thu	정재운 첼로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소프라노 차성실 클래식연주회 19:30 -소공연장 서현숙(011-850-3065)
28	fri	
29	sat	제 4회 매일 클래식 '스페인의 향기' 16:00 -대공연장 균일 3만원/프로인트(521-5729)
30	sun	
5/1	mon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2만원 · 1만원/이홍길(517-6091)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에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4/29(토) 19:00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4/20일까지 예매시 10%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7-1536)
시민회관 대극장	3/31(금) 14:00, 16:00 4/1(토) 11:00, 14:00, 16:00	시그러운 음악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20%	원스테이지 (1588-0881)
	4/13(목)-4/14(금) 20:00 4/15(토) 16:00, 20:00 4/16(일) 15:00, 19:00	2006 지킬앤하이드 부산공연	R석 90,000원 · S석 70,000원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10%	(주)오디뮤지컬 컴퍼니 (1588-5212)
	4/22(토)-4/23(일) 13:00, 15:00	배추공주와 깍두기왕자	균일 15,000원	3,000원 할인(매표 소에서 카드제시)	동그라미그리기 (818-1772)
	4/29(토) 16:00, 19:30 4/30(일) 15:00, 18:30	날 보러와요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10%	엠스톤엔터테인먼트 (1588-8477)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4/5(수), 4/12(수) 19:30	제 44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S석 30,000원 · A석 10,000원	S석에 한해 10,000원 할인	동국예술기획 (02-2278-5452)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3/31(금) 10:10, 11:20 4/1(토)-4/2(일) 12:00, 14:00, 16:00	일곱마리 아기염소와 늑대	균일 12,000원	3,000원 할인	공연기획DUBU (02-2654-6854)
MBC 아트홀	4/15(토) 11:00, 14:00, 16:00 4/16(일) 14:00, 16:00	캐릭터 뮤지컬 뽀롱뽀롱 뽀르르	균일 30,000원	10%	Y-MIX엔터테인먼트 (757-9876)
경성대 콘서트홀	3/31(금) 15:00 4/1(토)-4/2(일) 12:00, 14:00, 16:00	2006 환타지 오즈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20%	공연기획 나무 (02-2632-5578)
	4/5(수)-4/9(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20:00 일요일 18:00	2006 김장훈 전국 투어콘서트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10%	아마데우스 (1588-9088)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국도레코드(로얄호텔 옆 247-4240)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유닛매장(까르푸 내 462-0833)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YAMAHA**

감동을 함께 만드는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야마하 공식 A/S점

궁하면 통한다

전승환 · 극단 전위무대 대표, 부산연출가협의회 회장

우리집은 어머니가 <박애원>이라는 모자원과 유아원을 운영하시다가 1962년에 하시던 일을 놓으시면서 2층 집이 텅 비게 되었다.

1층은 우리 식구들이 생활의 터로 삼아 살았고 2층 큰방 6개는 텅 비어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의 친구들이 모여들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놀이터를 겸한 숙소가 되곤 하였다. 물론 형님의 친구들도 자주 모이곤 하였다.

1963년 창단된 극단 전위무대의 책읽기 연습 장소로 안성맞춤이어서 나도 자연스럽게 연습장에 합류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연극의 제작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곤 했지만 외교관이 되겠다는 뜻을 품고 있던 당시의 나는 연극을 전공하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를 않았다.

60년대 초에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안정적이지 못하던 시기였다. 5·16 군사혁명으로 사회의 기초질서가 제대로 잡혀 가고 있을 때인 1965년 존 오스본의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와 로레인 헨즈베리의 ‘햇빛속의 건포도’를 부일프레스홀에서 공연할 때였다.

공연시간 몇 분 전 입구가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 봤더니 얼굴에 취기가 있는 건달풍의 남자 3~4명이 공연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입장객을 관리하던 친구가 막았던 것이다. 그 때 옆에 있던 내가 건달풍의 사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공연장에서 시끄럽게 하고 공연을 방해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의 기세에 눌렸던지 그들을 쫓아낸 것을 계기로 연극공연장 문지기 노릇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획일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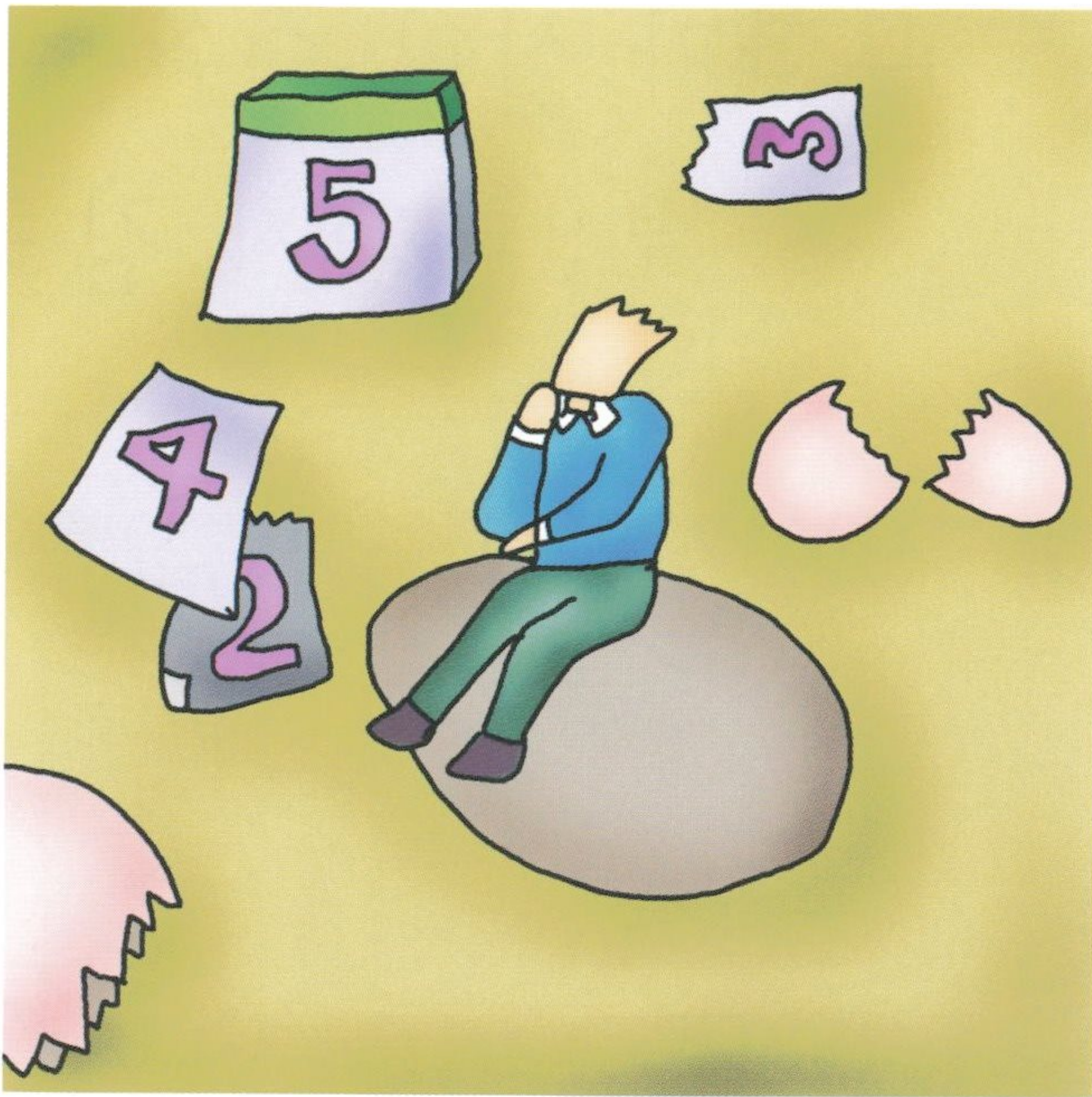
소극장 69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1973년 부산시민회관이 개관되었다. 김영송 교수의 연출로 존 패트릭의 ‘조급한 마음’을 개관기념 공연(1973년 12월)으로 성황리에 마치고 전위무대 정기공연 작품인 장 아누이의 ‘도적들의 무도회’ 연습을 적십자 회관에서 한참 진행중인 1974년 봄 우연하게 무대에 처음 서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큰 도적역을 맡았던 연기자가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형님은 나에게 대역을 맡아 출연할 것을 제안했다. 그때 나는 겁도 없이 출연 제의에 동의했고 그 다음날부터 연습에 참가하게 되었다.

우리가 ‘도적들의 무도회’ 연습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상이었다. 작품속의 시대 상황으로 봐서 의상제작이 쉽지가 않았다. 프랑스 귀족들의 의상. 그때 마침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서울 오페라단의 오페라 한편이 공연됐었다. 제목이 ‘휘가로이 결혼’으로 기억되나 확실하지 않다.

그 오페라를 관람하면서 형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상들이 바로 저것들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형님은 그 오페라 무대 감독인 0감독 (성함은 기억이 안 됨)에게 의상을 빌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페라단의 사정상 의상을 빌려줄 수 없다는 답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과 감독은 무대를 철수하고 소주 한잔 하는 자리에서 거듭 의상을 빌려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감독의 대답은 겸손하나 완강한 거부였다. 의상을 빌려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 형님은 기발한 제안을 하게 된다.

“0감독, 오페라단의 방침이 의상을 빌려주는 것이 절대 불가하다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빌려가겠다.”

이 말에 0감독의 말이 “그게 무슨 말이나?”고 묻자 형님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필요한 의상을 빌려가겠다. 0감독은 모르는 일로 하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0감독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무도 모르게 빌려가는 일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라는 0감독의 통쾌한 대답에 그날 밤 우리는 마무리 무대 작업을 핑계로 무대 뒤로 들어가 의상포장을 뜯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상들을 슬쩍하게 되었다. 포장박스를 제대로 해 놓는 것은 잊지 않았다.

장 아누이 작 ‘도적들의 무도회’ 공연은 대성공으로 기억된다. 의상을 되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은 빌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인가 보다.

공연장 문지기에서 연기자로 데뷔하여 연출 공부를 하라는 형님의 권유에 따라 연출이 나의 전공이 되게 되었다. 1978년 김행호의 ‘흑도’를 시작으로 그 다음해에 아서 밀러의 ‘세일즈 맨의 죽음’을 연출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공연장이 없어 부일프레스홀, 시내 음악다방을 전전하면서 막을 올리던 60년대, 1973년 학수고대하던 공연장!! 시민회관 개관!! 화장실이 없어 남, 여 연기자들이 강통에 볼일 보던 시민회관 시절, 그런 시민회관이 제대로 분장실, 화장실을 갖게 되기까지의 투쟁 아닌 투쟁!! 그때를 기억하며 끊임없는 막을 올려 보리라! 다짐한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지하철

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사장



“부산 지하철은 부산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부산지방 공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만큼 부산시민에게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월 부산교통공사 초대사장으로 취임한 김구현(59) 사장. 김구현 사장은 요즘 부산시민이 감동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을 오고 가며 부산시민들의 불편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1985년 1호선 운행을 시작한 부산 지하철은 현재 3개 노선 90개역, 총 연장 88.8km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도시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지하철은 지난해 한국생산성본부 지하철부분 고객만족도 평

가 1위, 한국경제신문 주관 공공부문 서비스 대상을 수상한 최고의 지하철로 직원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김구현 사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임하며 부산시의 주요 현안들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왔다. 28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시 부산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쁨이 크다는 그는 취임과 함께 고객감동,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김구현 사장은 고객 만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일들을 점검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 편의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내장재 교체 작업을 올해 마무리한다. 그동안 부산지하철 총 776량 중 608량의 내장재를 교체했고 올해는 나머지 168량을 교체하게 된다. 또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1호선 역사에 화재 발생 시 연기확산

을 방지하는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비상조명 등을 개선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구현 사장은 편안한 수송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건설공사가 차질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내년 10월 개통예정인 2호선 연장 호포~중부(물금신도시) 8Km 구간은 올해 93.5% 공정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2008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3호선 미남~안평에 이르는 12.7Km 구간은 올해 37.3% 공정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하철은 1일 70만 명이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지하철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부산지하철이 단지 이동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편의시설을 늘리고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시민들이 즐겁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 행정부시장 재임 중 부산시립예술단장을 겸직하면서 부산의 주요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져온 김구현 사장은 문화의 효과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요즘 자칫 삭막하기 쉬운 지하철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현재 서면역 환승통로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지만 70만명이라는 이용객을 감안하며 공연횟수, 공연 내용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김구현 사장은 3호선 개통으로 생긴 수영과 연산, 덕천역 환승공간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환승구간 외에 1호선의 남포동역, 범일동역, 부산대학 앞 역, 2호선의 사상역, 덕천역, 수영역, 경성대·부경대역 등에서도 비정기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하철 시설에서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언제든지 개방할 계획이다.

평소 조각, 회화 등 미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김구현 사장은 최근 부산문화회관이 위치한 대연역, 부산시립미술관이 위치한 미술관역 등 지하철에서 다양한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연 홍보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굳이 공연장을 찾지않고 지하철에서라도 우연한 기회에 공연을 접하게 된다면 지하철의 분위기도 개선 되겠지만 부산시민의 정서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은 안전하고, 쾌적하고, 약속시간을 지켜주는 부산시민들의 교통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김구현 사장. 그의 열정으로 바뀌어 나갈 부산 지하철의 새로운 모습이 궁금해진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서면 환승역에서 지하철 문화마당이 열리고 있다.

흑백사진으로 담아낸 용호농장

최철오 · 사진작가

사진에 대해 말하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동네사진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함께 찍은 흑백사진을 말할 것이다. 나 역시 책갈피 속에 보관하고 있는 몇장의 흑백사진들은 이제 빛이 바랜 사진으로 변해있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 흑백사진의 관심은 청사회에 입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 오래되진 않는다. 사진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암실작업이 재미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적 표현에는 흑백사진으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기라 충분한 연습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폭넓은 창작활동으로 이어졌다.

최근 사진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장비의 발달로 사진업계에서나 개인적으로도 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필름에서 디지털메모리 칩으로 전환되어 휴대폰에서도 수백만 화소에다가 넓은 저장 공간을 자랑하는 신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고 심지어 촬영된 필름으로 인화를 맡겨도 디지털 스캔으로 작업해서 프린트되는 등 장비의 발달이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사진이 대중화와 정보전달의 수단으로서 큰 몫을 차지한 가운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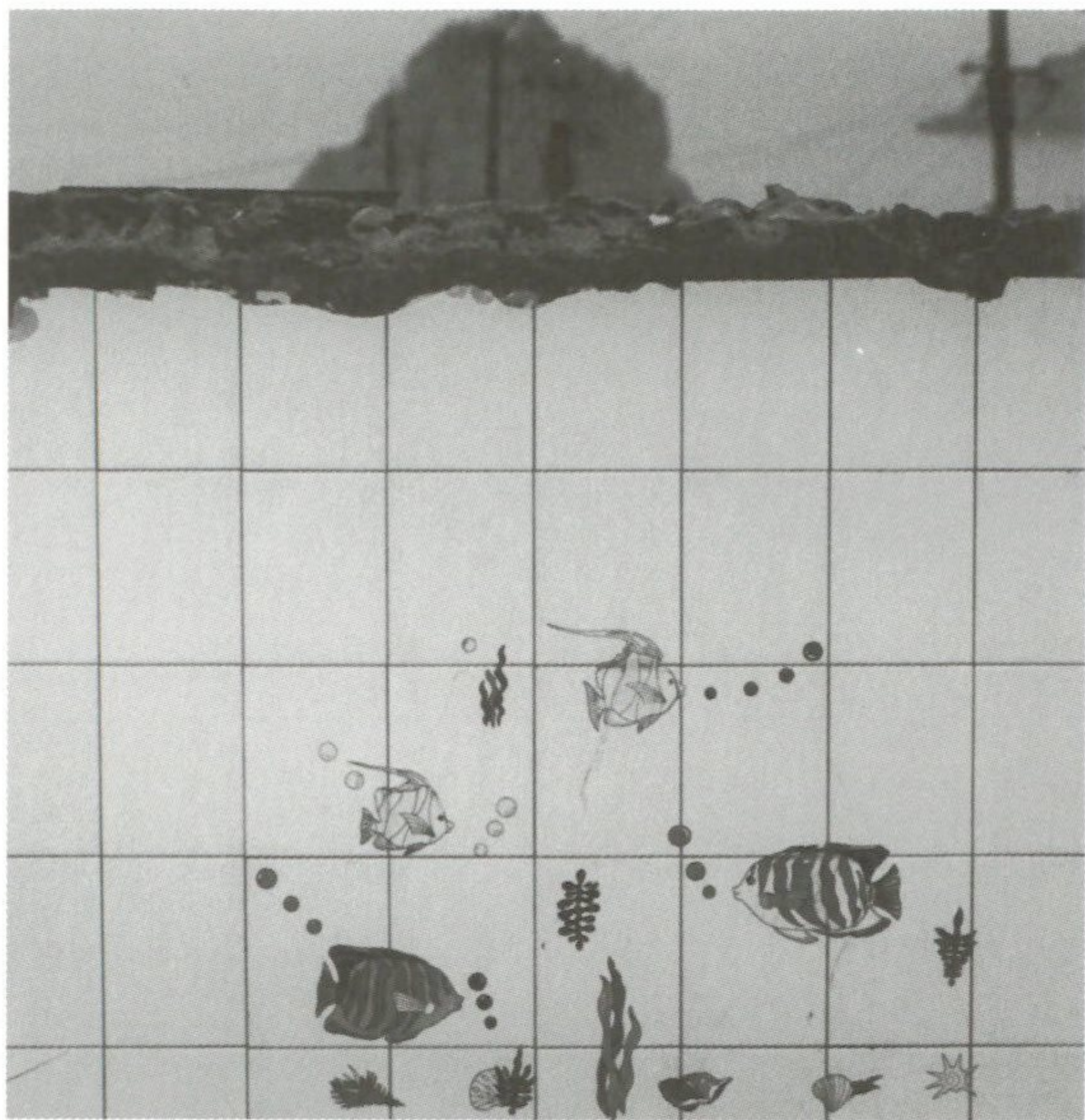
앞으로 사진의 환경은 더 빠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가 우리에게 편리하고, 디지털장비가 정보전달의 수단으로서 다할런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를 독창적 예술장르인 순수사진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한 점이 많다. 사진의 역사는 바늘구멍을 통한 빛의 전달로 상이 만들어짐이, 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적인 방식의 사진 작업에 매달리게하고 흑백사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적으로 좋은 흑백사진 만들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신의 노력이 요구되고 따라서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또한 작가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보는 눈과 표현 능력을 갖추는 것과 어떤 내용을 보여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심을 해야 할 부분이다. 마무리 단계에선 구체적인 내용정리와 많은 샘플작업 중에 몇 작품으로 골라내면 작업의 완성단계에 이른다.

그동안 작업해서 전시해온 부분을 돌아보고자한다.

1999년 구름사냥으로 첫 개인전을 가졌다. 구름이란 매개를 중심으로 좌우측엔 조화로운 다른 사물들을 대칭 또는 조합하여 실험적 이미지를 만든 작업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배경들은 대체로 부산내에서 촬영하고 만들었다.

두 번째 개인전인 '당산나무전'에서 이 당산목들은 부산 근교인 강서구, 기장군에 소재한 수령이 300년 이상된



세번째 전시회 '기억의 저편으로'에서 10년간 용호농장마을 사람들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을 흑백 사진으로 담아냈다.

당산목으로 오랫동안 관찰해서 그 변화하는 모습과 주변의 환경을 그려보는 작업이었다. 특히 부산 강서구 해척마을 입구 300년 이상으로 보이는 당산목은 그 자태가 위엄이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 당산목이 몇해 전 큰 태풍으로 쓰러져 잘려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잠시 물질적인 것에 젖어있을 사이에 자연의 흔적들은 하나 둘 부서져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세월 지난 어느날 문득 그것을 그리워 할 것이며 또한 그 자리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부산 흐린후 맑음 전’ (금정문화회관전시실)에 대한 기획전은 부산을 주제로 한 전시로 작품을 낸 참여작가(황철환교수, 정귀순원장 외 3명)들은 각자의 시각으로 부산에 대한 사진을 내걸었고 개인적으로는 광안리해변 앞바다 가운데 부산의 상징으로 건설된 광안대교를 주제로 하여 공사 과정과 다리가 완성된 이후의 풍경사진을 전시했다.

지난해 2005년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시한 ‘기억(記憶) 저편으로’전은 서면 영광도서 갤러리에서 시작해 충무동 자미원갤러리에서 전시를 마감했다.

1986년부터 이곳 용호동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사진한답시고 주로 어렵게 사는 동네만 골라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면서 촬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마을을 자주 찾은 것 같다.

남구 용호동 끝자락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한 마을은 앞으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있고 부산의 자랑스런 관문인 오륙도가 한 눈에 와 닿아 풍광이 아주 뛰어난 곳이며 당시 마을 전체가 닭을 기르는 양계사업을 하고 있었고 일부에선 가구공장이 들어와서 마을입구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면서 그동안 작업해온 필름을



‘기억의 저편으로’

정리해 구체적인 구상에 들어가면서 이 전시가 계획되었다.

전시된 작품 한점, 한점은 1988년 당시의 마을의 전경, 그리고 오륙도가 보이는 풍경, 이어서 마을의 골목길, 마을 어귀에서 자란 꽃들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마을이 부서지고 흩어져 가는 과정과 아파트 공사장면, 끝으로는 마을상공을 날아다니는 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장면 등 모두 24점으로 구성했다.

이 전시에 대한 작업 노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어디 사라지는 것이 그림자 뿐이라.’

시간도, 기억도 그리고 살아있는 호흡으로 가득했던 공간까지도 존재했음의 흔적만을 남긴채 노을 저편으로 사라진다. 구름사냥, 당산나무전에 이은 이번 작업은 곧 ‘그랬었지’란 단어속의 존재

로만 남게 될 용호농장 마을의 흑백이야기이다.

마을은 긴 세월동안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공간의 존재마저도 잊혀진 채 세상의 소외와 편견으로부터 스스로를 곧추세우며 그들만의 삶의 터전을 가꿔 왔었다. 그리고 이미 예정 되었던 재개발사업이 지난해 이른 봄부터 시작되었으며 마을사람들의 생활 중심에 당당히 서있던 마을회관, 경로당, 교회들이 이사를 하고 철거작업이 시작되면서 마을은 점점 콘크리트 먼지로 사라져갔다.

이 작업에서 나의 사진적 관심은 그리 평탄치 않았던 용호농장 마을 사람들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과 그들의 보랏빛 눈물 같은 끈끈한 채취까지 한낱 먼지로 시간의 허공 속으로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아쉬워 렌즈 속으로 불러들이는 한편, 문드러짐 없이 아름다웠던 마을주변의 풍경과 그 풍경을 닮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키워낸 아린 속살 같은 작은 풀잎과 고운 꽃들의 이미지가 중심이 된다.

짧지 않은 세월동안 그들이 남긴 온갖 물상의 흔적들은 어렵고 힘든 삶의 고비 때마다 그들을 보듬어 주던 작은 위안이였으며 채 피지 못하고 시든 꽃들은 마을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다시 피고 또 머물 것이다.

앞으로도 부산의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네 삶의 이야기는 계속 작품 속에 담아낼 것이다.

흑백사진 고집하는 사진작가 최 철 오



청사회 회원인 사진작가 최철오는 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진들 속에서 고집스럽게 흑백사진을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1983년 우연한 기회에 카메라를 선물로 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사진을 배우게 된 최철오(49)씨는 1968년 사진작가 최민식 선생이 결성한 청사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흑백사진의 관심은 청사회에 입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최철오씨는 당시 사진을 배울 때부터 촬영하고 현상하는 암실작업이 재미있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흑백사진의 매력을 떨칠 수 없다. 2002년에는 청사회 회장을 맡아 회원전, 기획전을 열기도 했다.

1999년부터 '구름사냥'전을 시작으로 그동안 세 차례 개인 전시회를 가져온 최철오씨는 강서구 해척마을, 안창마을, 용호동 용호농장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창작활동을 해왔다. 기획전 '부산은 사진이다'(2000년)와 '부산 흐린 후 맑음'(2002)에서 부산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 최철오씨는 지난해 영광도서 갤러리와 갤러리 자미원에서 가진 '記憶의 저편으로' 사진전에서는 10년간 용호농장 마을을 촬영한 사진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 많은 호응을 받았다.

"10년에 걸쳐 용호농장을 촬영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겪었습니다. 처음 용호농장을 찾았을 때는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중에 작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왕래를 하고 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사진 속에 담고 싶다는 부산토박이 최철오씨. 그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고 모두가 공감하는 부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국악단상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촌스럽습니다...” “잠 오는데요...”

첫 학기가 시작되어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들이다.
질문내용은 “국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마디로 말하시오” 이다.
가끔은 이런 대답도 있다.

“듣기 싫는데요...” “TV에 나오면 즉시 돌립니다...”
국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토록 차가운 대답을 할까...

너무도 솔직한 대답이라 내심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필자도 한때 국악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졌던 터라 자라는 후학과 후배들에게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마디를 던진다.

“이렇게 촌스럽고 잠오는 음악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기던 음악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모두들 이쯤에서 침묵하면서 다음 말을 주목한다. 너무도 당연히 해오던 이 현상이 알고보면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임을 공감할 무렵 나는 한마디 더 덧붙인다.

“오래된 낡은 사진속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비록 디지털카메라의 선명한 사진은 아니지만 더없이 정감 가는 소중한 사진이듯이, 지금은 당장 전통음악이 덜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어설피게 찍힌 우리들의 할머니사진 같이 소중한 것이 바로 국악입니다.”

국악은 국어, 국사와 함께 우리민족에게는 없으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다. 새삼스레 수천년을 이어온 유구한 음악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알 사람은 다 안다.

국악이 이유없이 부담스럽다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혹시, 국악공연을 한번이라도 봤느냐?” “단 한번이라도 직접 감상하고 난 뒤에 국악이 좋은지 싫은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필자의 경험상, 국악공연을 현장에서 제대로 감상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 음악이 만들어진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감상하면, 음악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그렇다. TV, 라디오에서만 듣는 국악이 아닌, 실제 공연장에서 연주자의 긴장된 표정과 땀을 보면서 감상할 때

훨씬 느낌이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 가을, 韓·中·日 전통음악 연주회가 열렸던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다. 리허설을 하는데 통역을 맡은 분이 필자가 리허설 하는 바로 앞에서 말없이 흐느끼고 있는게 아닌가? 알고보니 그녀는(소프라노를 전공하는 제일교포였고 한국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토록 관심 없었던 한국전통음악이 외국에 살면서 이토록 몸서리쳐질 정도로 자기의 영혼을 깊이 자극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다.



이 통역사는 이날 하루만 계약된 사람이었다. 원래 예정된 통역사가 몸이 아파서 대신 나온 것이다. 임시로 통역을 도와준 이 교포는 리허설 때 받은 감동 때문인지 일본에 머무는 내내 우리를 따라 다니면서 자원해서 통역도 해주고 길 안내도 해주었다. 심지어 우리 일행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한 꾸러미 선물을 준비해 건네주며, 비행기에 탑승해 보이지 않을때 까지 손을 흔들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소프라노를 전공한 이 교포는 우리 일행이 길을 모르거나 일본어 대화가 안 되어서 단순히 도와준 것 같지는 않았다. 아마도 외국에 살면서 잊을 뻔한 국악선율을 듣게 해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으리라.

우리 것이기 때문에 마냥 좋아해야할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우리 전통음악은 누가 일부러 훌륭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음악학자들은 동양음악의 대표적 음악으로 한국 전통음악을 인정하고 있다. 국악의 다양한 곡들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직접 듣고, 보고,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

어릴 적부터 서양음악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온 우리의 귀에 낯설게만 느껴지던 국악이 하루아침에 잘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수면제를 먹은 것 같이 우리를 잠 오게 만드는 궁중음악이 임금과 왕실의 위엄을 드높이고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세우기에 얼마나 어울리고 잘 만들어진 음악인지, 그 시대를 상상하며 마음으로 듣다보면 그때서야 “아하...” 하게 될 것이다.

어느덧 온 세상이 진달래, 벚꽃, 개나리 천지가 되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스레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꽃이 피듯, 바야흐로 우리 곁에 이미 다가와 손짓하는 전통음악 선율이 온 나라에 물결치는 계절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풀밭 위의 휴식

- 오순환의 그림〈들에서〉.1994

김형술 · 시인

봄이다. 그 이름만 들어도 목덜미가 간지러워지는 춘삼월 지나 사월, 천지에 긴 잠에서 깨어난 나뭇잎 향기 꽃향기 가득하면 이젠 겨드랑이 거쳐 발바닥이 가려워지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쏘이 찌시는 때가 도래했다. 그러니 꽃놀이, 들놀이나 산놀이 등등 어떤 핑계, 아무 이름이나 붙여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밖? 어디 무엇으로의 밖?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집밖이지만 또한 겨우내 갇혀있던 추운 시간의 바깥, 웅크렸던 마음의 바깥, 늘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을 쳇바퀴 돌던 의식의 바깥을 뜻하기도 한다.

김밥을 말고 계란을 삶아 사이다를 챙기든지, 햄버거에 감자튀김과 콜라를 챙기든지 혹은 식구들 몰래 배낭 속에 소주 한 병을 얼른 숨긴 후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텅텅거리는 구닥다리 자가용을 타고 가능한 한 집에서 멀리 떠나야 한다.

노오란 봄햇살을 따라 북상하는 꽃행렬의 꿈무늬를 쫓아 가노라면 희고 노란 배추나비는 따뜻한 햇빛 사이를 날고 온몸 가득 꽃잎을 단 나무들은 차창 밖으로 훑훑 달려간다. 시야 너머로 재빠르게 달려가는 꽃들은 잊혀졌던 첫사랑의 얼굴이고 오래 전에 까먹어 기억도 나지 않던 좋은 시절의 노래 한자락이고 스물이던가 마흔이던가 긴가민가 싶어 실감나지 않던 내 나이의 숫자이기도 하다.

봐라 봐라, 아름다운 것들은 쉽게 스러지는 찰나이고 찬란하던 한 시절은 꿈결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꽃들은 노래한다. 아이들은 자라고 마누라는 늙고 너는 이제 백발 가까이에 왔음을 직시하라고 강변한다. 그런 꽃의 항변을 듣기 위해서, 잊고 살던 제 나이를 정확히 헤아리기 위해서 봄날에는 집을 떠나야한다. 그저 제 마음 하나만 꺼안고 어느 나무 아래, 어느 들판의 풀밭 위에 구름처럼 가볍게 누워보아야 한다.

오순환의 그림들은 대부분 쉽고 소박하고 따뜻하다. 그림에 관한 이런 저런 지식이 없어도 그의 그림 앞에 서면 가식없이 편안한 웃음을 머금을 수 있게 된다. 그는 주로 우리 이웃의 평범한 소시민들이 있는 풍경들, 즉 아이와 노인, 아내, 가장 등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서민적 풍모의 인물들로 구성된 가족과 그 가족의 일상적 풍경들에게 따뜻한 긍정의 시선을 부여함으로써 낯설지 않고 친근한 그림들을 선보여 왔다. 인물과 풍경에 관해 단순함으로 일관한 그의 묘사는 얼핏 추상적이나 세부적 묘사가 생략된 자리에 배치된 풍부한 여백은 그림과 마주한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력을 풍부하게 불러일으키는 미덕을 발휘한다.

1994년에 그려진 이 그림 〈들에서〉는 단순하지만 섬세하고 촘촘하게 묘사된 초록의 풀잎과 노란색의 자잘한 꽃들에서 누구라도 쉽게 풀향기,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풀밭 위에 누운 남자는 얼굴에 드리운 세파의 그림자를 잠

시 잊고 풀잎처럼 혹은
꽃처럼 천진한 모습으
로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데 모든 사심이 사
라져버린 듯 무심한 그
의 표정에는 풀밭같은
평화가 스며있다.

일상의 번잡함이나
삶의 고통을 잠시 잊고
아이같은 모습으로 누
워 대지의 숨결, 풀과
꽃의 속삭임에 귀를 귀



오순환 작 '들에서'

울이는 건 쉬운 일이지만 또한편으로는 결코 쉽게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아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를 요구하는 현
재의 삶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조금만, 잠시만이라도 느리게 가며 삶을 성찰하는 일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이 그림
은 보여준다.

이제 달려가는 꽃행렬의 중간 쯤에 도착했다. 어느 숲가, 어느 들관에 차를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오순환의 이 그
림처럼 4월의 부드러운 풀밭에 몸을 누여 볼 차례다. 등을 풀밭에 대고 팔을 활짝 편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세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얼굴을 풀잎 속에 묻는 자세여야 한다. 그래야 자잘한 들꽃들과 눈을 맞춘 채 풀잎의 속삭임,
대지의 숨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테니.

풀잎보다 낮게 몸을 낮추는 자세만으로도 내 몸엔 대지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스며든다. 꽃잎과 풀잎을 흔드는 봄
의 미풍을 온몸으로 섬세하게 느껴보는 일은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내 몸의 숨결, 내 마음의 움직임에 귀기울이는
일에 다름아니다.

그렇게 온 몸을 4월의 대지에게 맡겨놓고 있으면 이마와 머리카락을 간질이는 봄햇살이 가만가만 속삭여준다. 살
아서 봄을 맞는 일만한 축복은 세상에 다시 없는 거라고.



부산, 일본 영화와 만나다

김희진 · 영화감독

약 1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는 일본인 영화감독 사토키 켄모찌가 얼마 전 부산을 다녀갔다.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라기 보단 나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 자주 부산에 오곤 했는데, 이번 경우는 휴가라고 말하긴 했지만 한창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중이라 장소나 배우 섭외의 목적도 있는 듯 보였다. 한국이 좋아 준비하는 영화에 한국 배우를 출연시키고 일부 촬영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려 하고 있는 그는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최근 부산에는 일본영화 촬영이 부쩍 늘고 있다. <착신아리 파이널>이 그 중 규모가 제일 컸고, <키사라 츠 캣츠 아이>는 몇 장면을 촬영하고 갔다. 얼마 전엔 <보이 미츠 부산>이란 기록영화와 극영화 형식을 섞은 작품의 오디션이 있기도 했다. 내가 운영하는 엔돌핀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배우들을 추천했다. 또 재일교포 감독 최양일의 차기작이 국내 제작으로 부산 로케이션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 영화의 해외 로케지가 홍콩, 대만 등에 이어 우리나라, 특히 부산으로 옮겨지는 느낌이다.

최근 축구나 야구 등을 통해 한일간의 이슈가 많아진 것 같다. 한류, 일류 등 문화 교류도 활발하다. 유명한 술집은 일본식이 많아졌고 패션이나 게임 등 일본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엔 일본인과 결혼한 친구도 몇이 된다. 그러다보니 한일전 스포츠 경기에 대해 말할 때 자연스레 입조심을 할 때도 많다.

켄모찌 감독의 말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선 <내 머리 속의 지우개>가 약 300개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흥행도 좋다고 한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영화는 일본 개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일본영화 <러브레터>가 국내에 상영되었을 때 “오징끼데스까?”가 유행어가 되었는데 일본에서도 유행하게 될 한국말이 곧 생기지 않을까 싶다.(‘사랑해요’는 이미 유행어가 된듯하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일본 드라마를 즐기는 친구가 한일 야구 4강전을 보며 열을 내긴 했지만 지금처럼 문화 교류가 활발해 지다 보니 이제 일본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인들도 한국을 좀 더 이해해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서로를 알게 되면 이해가 생긴다는 상식이 통하는 구석이다.

영화를 통한 일본과의 교류가 부산 영화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사실 중요하다. 아시아의 영상

허브로 기획되는 부산의 영상산업도시화는 일본처럼 자본이 든든하고 활발한 제작 활동을 하는 나라와의 교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어떤 면에선 일본은 지금 한국영화 산업을 동경하고 있다. 자국영화 점유율에서부터 한류스타까지 한국영화는 일본영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켄모찌 감독처럼 한국에 와서 영화를 찍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이런 면을 증명해 준다. 이참에 부산의 연기자들도 소위 일본에서 뜨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부산의 연기자들을 일본영화에 추천해야겠다.

아울러 영화를 공부하고 일본어가 가능한 인력의 필요성도 느낀다. 요즘처럼 잦은 일본영화의 장소 헌팅이 이루어질 때 영화를 알면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의 부족함이 절실하다. 이제 영화를 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외국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일의 환경이 변해있다. 부산이 로케이션 촬영 장소로 외국에 알려지기 위해선 부산을 잘 설명하고 영화를 제작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려 줄 수 있는 외국어 능통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연기자들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금상첨화다. 부산에 와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부산이 바라보는 영화 산업의 시장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영화 영상 인력들을 양성하고 육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환경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하지만 특히 교육의 부분은 절대 빠져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해외 합작영화 제작이나 로케이션 촬영지로서 필요한 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영화 전공자들과 현장 스텝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 언어에 대한 자신감은 일의 능률로 이어지고 소통의 자유로움은 곧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이어져 굳건한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부산이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빠뜨리지 말고 시행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현재 부산에서 활동 중인 양수영 감독은 요즘 일본 영화의 부산 촬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헌팅 지원이며 연기자 캐스팅이며 도울 일이 많기 때문이다. 양수영 감독이 일본에서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 일본대학 영화과의 전통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건 촬영 장비를 모두 지고 산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작 모듬이 촬영 풀 세트를 나누어 지고 정해진 산행 길을 따라가며 과제로 주어진 촬영을 하게하는 이 프로그램은 영화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서로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각인 시켜줬다고 한다. 각자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질 때 영화가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삶의 과정이 이러한 정신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 든다. 모두들 조화롭게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작가의 힘 - 〈쥐덫〉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라디오소리] 스코틀랜드 아드 보고에 의하면 사건은 패팅톤 갈바 스트리트 이십사 번지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혔습니다. 피살된 여인의 이름은 모오틴 리온, 수사반에서는 살인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 (몰리, 일어서서 중앙 안락의자로 건너간다) 검정색 오바코트의 (몰리, 가일즈의 오바를 집는다) 얇은 스카프를 두른 (몰리, 가일즈의 스카프를 집는다) 털모자를 쓴 사나이를 찾고 있습니다. (몰리, 가일즈의 모자를 집어 우측 후면 아치문으로 퇴장한다) 폭설 경보를 보내드립니다. 빙설지역에서의 차 운행은 절대 금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어벨 소리) 폭설은 계속 될 것이며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와---

〈쥐덫(The Mouse Trip)〉은 세계 최장 공연기록을 갖고 있다. 1952년 영국에서 초연되어 지금까지도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 55년째 연속공연이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다른 최장 혹은 최다 공연기록을 알아보자. 미국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장의 공연기록을 가진 작품은 〈오페라의 유령〉이다. 2006년 1월 9일 7,486번 째 공연으로, 종전의 최장공연 작품이었던 〈캣츠〉의 기록을 깨고 지금도 계속 공연되고 있다. 브로드웨이와 오프브로드웨이를 통틀어서는 〈판타스틱스〉라는 뮤지컬이 기록보유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2년째 공연 중인 〈지하철 1호선〉이 지난 3월 29일로 3,000회를 맞아 최장공연 기록을 지니며, 동시에 7팀까지 공연을 하는 〈난타〉의 경우 횡수로 현재 5,800여회라는 최다공연기록을 가지고 있다. 창작 뮤지컬로는 〈사랑은 비를 타고〉가 11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뮤지컬 아닌 연극으로는 〈용띠 위에 개띠〉가 9년째 2,400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쥐덫〉의 55년 최장기록은 추리소설 작가인 아가사 크리스티의 역할이 크다. 성경과 셰익스피어 작품집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이다. 그녀의 추리소설에는 잔인한 범죄수법이나 살해현장의 처참함 등의 그로테스크하거나 극단적인 설정이 없다. 그녀의 천재성은 단지 플롯을 뒤섞는 구성의 재량에 있다. 또한 그녀의 상상 속에서 탄생하는 생생한 인물들과 그 인물들을 통한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본성에 대한 묘사를 보자면 독자들은 그녀 작품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아가사 크리스티가 추리소설 작가가 된 계기는 그녀 언니와의 내기 때문이었다. 독자가 끝까지 범인을 추측할 수 없는 추리소설을 아가사가 쓸 수 없다는 것이 그녀 언니의 장담이었고, 그녀는 그 기대를 뒤엎는 소설을 쓴 것이다. 첫 남편의 배신에 잠시나마 정신착란까지 일으켰던 그녀의 경험, 1차대전 당시 외과병동 간호사로서의 경험, 그 후

약사로서 익힌 독극물에 관한 지식, 그리고 14년 연하의 고고학자 남편을 따라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 그녀의 가장 아팠던, 혹은 가장 행복했던 경험들은 전세계의 독자들과 연극관객들의 감성과 지성에 엑스터시를 일깨우는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작가의 유명세로 인해 그것이 연극으로 만들어질 경우에 기본적으로 흥행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그녀의 전 작품이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가사 크리스티가 있고,

그 외에 4대 비극으로 빛나는 최고의 희곡작가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작품 다음으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인형의 집>과 <유령>의 헨리크 입센, 그리고 여느 작품보다도 현대적 해체, 재구성, 패러디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공연이 많이 되고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의 사무엘 베케트 등이 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이 그 드라마, 즉 사건전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다른 두 작가의 작품들은 형식적 변화에 관객들의 호기심이 유발될 것이다.



'쥐덫'은 1952년 영국에서 초연되어 지금까지도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 55년째 연속공연이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사진은 극단 에저또가 2월에 선보인 '쥐덫')

[트루터] 얼떨떨해 하실 건 없습니다. 여섯 개의 진술 중에서 진위를 가리자는 거니까요. 특별히 하나의 거짓진술을 찾기 위한 거죠. 여러분에게 각기 새로운 위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렌 부엌으로 가시겠어요. 미스터 파라비치니 미스터 렌의 방으로 가 있으시지요. 뒷층계로 가시면 편리하죠. 멧카프소령은 미스터 랄스톤의 방에 가셔서 전화 줄을 살펴보실까요. 미스 케이스웰은 지하실로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미스터 렌이 길을 안내하도록 하죠. 미안하지만 그때 제 행동을 맡아 대신해 주셔야겠는데, 미스터 랄스톤! 제 역할을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윌리엄 아처는 소설이 천천히 전개되는 예술이고 희곡은 급속히 발전하는 위기(Crisis)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그의 견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아마도 추리극일 것이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쥐덫>일 것이다.

단편소설을 5막의 장막극으로 작가가 직접 각색한 <쥐덫>은 폭설로 고립된 날씨 속에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여관을 찾은 5명의 손님들 중에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있고 곧 새로운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시작된다. 관객은 범인이 스스로 범인임을 시인하는 최후까지 범인을 추측할 수가 없다. 결국 보일 여사가 죽게 되는 2차 범죄가 발생하고 공포와 추리의 강도는 배가 된다. 종국에 범인이 밝혀짐으로서 관객의 긴장도는 완전 해소되어야 하나 작가는 특유의 능수능란함을 발휘해 색다른 감정의 전환과 함께 작품을 마무리한다. 범인은 단순히 자기 욕망에 의한 악인이 아니다. 그 역시 그가 죽인 피해자들에 의한 희생자이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쥐덫>에서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은 범죄자일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반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범죄자는 없을 수도 있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학습으로 배워보는 숲 체험학습센터

싱그러운 자연속에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을 통해 느껴보는 ‘숲 체험환경교실’이 최근들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한 ‘숲 체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숲 체험환경교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숲 생태계의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원한 숲 체험학습센터는 그동안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던 기존의 환경홍보교육관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체험학습 공간으로, 개원과 함께 숲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숲 체험환경교실은 이론중심이던 기존의 환경교육과 달리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등 교육대상자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눈높이식 교육을 펼치고 있는 숲 체험환경교실은 강의실과 시청각실을 갖춘 숲 체험학습센터에서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 숲 해설사의 안내로 인근의 성지곡수원지나 백양산 등 자연속으로 직접 체험활동을 하러 나간다. 자원봉사자들로 꾸려지는 숲 해설사는 은퇴한 교사나 언론인 등의 자원봉사자들 중 선발하여 일정 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숲 체험학습센터 인근에는 참나무류와 삼나무, 해송, 육송 등 100여종 3천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어 어린이



자연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숲 체험학습센터 숲 체험환경교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등 교육대상자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눈높이식 교육을 펼치고 있는 숲 체험환경교실은 학습과 놀이가 함께 어우러져 어린이들의 흥미를 돋운다.

들이 직접 만지고 관찰 할 수 있다. 특히 청진기를 이용하여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를 듣게하는 체험학습은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자연도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알게 하여 어린이 스스로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미경을 이용, 나뭇잎을 직접 관찰하거나 천연물감으로 염색하기, 나뭇잎이나 솔방울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곤충모형 만들기 등 학습과 놀이가 함께 어우러진 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만 해도 8,2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숲 체험환경교실을 다녀갔다. 숲 체험환경교실이 운영되던 첫 해인 2004년에 1,100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해만에 7배가 넘게 증가된 것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배로 늘어난 2만여명이 숲 체험환경교실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숲 체험학습센터가 인기를 모으면서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자 지난해 11월에는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부터 숲 체험학습센터 인근의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숲 체험환경교실에서는 앞으로 자연생태분야, 생활환경분야로 환경교육을 보다 전문화,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연생태분야에서는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대연수목원, 감전동 야생화단지, 석대 양묘장 등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조류탐조, 원예, 야생화 관찰, 학교숲 가꾸기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생활환경분야에서는 명지·해운대 소각장, 생곡 쓰레기 매립장, 수영·장림 하수처리장 등을 방문,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하수처리, 지구온난화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06년 숲 체험환경교실은 5월 1일 문을 연다. 10월 31일까지 펼쳐질 2006년 숲 체험환경교실은 지난해와 달리 체험장소를 숲 체험학습센터가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온천동 금강공원과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숲 체험학습센터에서는 현재 2006 숲 체험환경교실에 참가할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모집기간 : 3월 20일 ~ 4월 10일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숲 체험학습센터[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888-3585)

흥겨운 신명속에 펼쳐지는 풍물사랑 부산풍물사랑 판



지난 2003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처음 문을 연 ‘부산풍물사랑 판’은 그 이름처럼 언제 어디서든 흥겨운 한판을 벌릴 수 있는 신명나는 아마추어 풍물 동호회이다.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며 누구나 쉽게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부산풍물사랑 판’은 가족같은 분위기에 늘상 흥겨움이 묻어난다.

온라인 회원수만 800여명이 넘는 ‘부산풍물사랑 판’은 실제 강습회에 참여하는 오프라인 회

원 수도 50여명을 헤아린다. 20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유치원생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가족같은 분위기여서인지 아이와 함께 온 가족 회원들이 함께 장구채를 붙잡고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박병찬, 김화선 부부 역시 초등학교생인 지현이와 유치원생인 지은이 두 자매와 함께 온가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시절 풍물 동아리활동을 했던 남편 박병찬씨가 직장생활 때문에 한동안 밀쳐두었던 풍물을 최근 다시 배우면서 온가족이 부산풍물사랑 판과 인연을 맺었다. “얼마전부터 두 딸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풍물을 배우고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김화선씨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흥겨운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게 가장 좋다”고 한다.

부산풍물사랑 판의 최고령 회원에 속하는 조은영 회원. 65세인 조은영 회원은 6개월 전 아는 사람 소개로 친구와 함께 장구를 배우고 있다.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라 강습시간이 재미있지만 실력이 생각만큼 늘지 않아 장단을 같이 맞추는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는 그는 그래도 젊은 회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이 시간이 언제나 즐겁기만 하다.

4년전부터 부산풍물사랑 판과 인연을 맺어온 회원 최정옥 씨. 중학교때 풍물을 배우던 친구의 영향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오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취미생활로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낀다는 그는 ‘풍물’로 뭉쳐진 회원들끼리 어울려 흥겨운 풍물 한판을 펼칠 때가 가장 즐겁다.

부산풍물사랑 판과 회원 김영자씨의 인연은 조금 특별하다. 부산풍물사랑 판이 자리하고 있는 건물주인 김영자씨는 이곳을 드나드는 회원들의 예의바름과 동호회의 따뜻한 분위기에 반해 가입하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 열혈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지난 2003년 개원된 공간 ‘부산풍물사랑 판’에서는 초보 회원들을 위한 강습회가 매주 열리고 있다. 회원들을 위한 연습공간으로도 이용되는 이 곳은 강습이 없는 날에는 즉석에서 회원들끼리 흥겨운 한판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현재 초보회원들을 위해 풍물을 가르치고 있는 회원 박서연씨는 “배우고자 하는 회원들을 위한 강습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어울려 풍물을 즐기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만큼 여타 동호회와는 달리 회원들간의 유대감은 특별하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부산풍물사랑 판은 매달 한차례 회원들끼리 야유회를 가거나 자체공연을 가지며 결속력을 다져왔다.

‘부산풍물사랑 판’은 그동안 3차례의 정기공연을 비롯 용두산 토요 전통민속놀이마당,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봉송축제 길놀이, 부산국제필름박람회 축하공연, 가나요양원 태평소 시나위 및 사물공연, 부산자갈치축제, 기장 신년맞이 해맞이공연, 정월대보름 광안리 달맞이행사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흥겨움을 전해왔다. 올해는 6월에 4번째 정기공연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신명나는 풍물 아마추어 동호회인 ‘부산풍물사랑 판’은 가족같은 분위기에 늘상 흥겨움이 묻어난다.



2003년 개원한 공간 ‘부산풍물사랑 판’에서는 매주 초보회원들을 위한 강습회가 열린다.

단소(短簫) 불어보기<4>

채수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지난호에서 단소의 음정 仲, 林, 無, 潢, 汰의 기본 5음을 배웠다. 한걸음 전진하여 전통음악은 어떤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자.

서양음악에서 한 옥타브 내에 12음이 있듯이 한국 전통음악에서도 12음이 있는데 이를 12율명(律名)이라고 한다. 서양악보인 오선보와 12율명을 비교하였다. 전통음악에서 음정과 오선보의 음정과는 차이가 있으나 창작국악에서는 거의 음높이를 같게 쓰는 추세이다.

1) 전통 음악의 12율명

黃鍾	大呂	太簇	夾鍾	姑洗	仲呂	蕤賓	林鍾	夷則	南呂	無射	應鍾
(황중)	(대려)	(태주)	(협중)	(고선)	(중려)	(유빈)	(임중)	(이척)	(남려)	(무역)	(응중)

12율명을 악보에 기보할 때는 그 첫 자만 떼어서 황(黃), 대(大), 태(太), 협(夾) 등으로 기보한다. 원 음역(中聲)에서 한 옥타브 높으면 淸자의 약자인 삼수변(彡)을 붙이어 ‘청’이라 읽고 두 옥타브 높으면 삼수변 둘(彣)을 붙이어 ‘중청’ 또는 ‘청청’이라고 읽는다. 예를 들면 潢은 ‘청황’, 潢은 ‘중청황’ 또는 ‘청청황’이라고 읽는다. 반대로 한 옥타브 낮으면 배(倍)자의 약자인 (亅)변을 붙이고 탁(濁)이라 읽고, 2옥타브 낮으면 (冫)변을 붙이고 ‘배탁’이라고 읽는다. 潢은 ‘탁황’, 潢은 ‘배탁황’이라고 한다.

◎ 단소 제 5공의 음정은 고선(姑先)일까? 협중(夾鐘)일까?

단소에 있어서 전통음악은 주로 5음 음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에서는 단소로 동요, 가곡, 가요, 영화음악, 팝송, 종교음악, 클래식 등 모든 음악을 표현해 보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자면 부득이 12율명을 모두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단소나 현재에 사용되는 많은 단소에는 다섯 번째 지공을 고선(姑先)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이는 영산회상에서 군악(軍樂)을 연주하도록 만들었다 하나 그 외에는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 그러나 제 5공을 협중(夾鐘)으로 반음정을 낮추게 되면 조옮김이나 현재의 모든 곡들도 쉽게 연주할 수 있다. 다행히 현재 유통되는 단소들 중에 제 5공을 夾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이 있어 단소의 연주영역이 더욱 넓어

韻	오	沖	에	沖	나		沖	아	無	나	沖	가	沖	오	대 장 금
無	지	泱	해	淋	니		淋	니	韻	나	淋	나	淋	나	
淋	도	韻	야	無	노	△	淋	리	韻	니	淋	라	淋	라	
沖	못	沖	디	韻	오	沖	에	沖	아	韻	나	淋	가	淋	
泱	하	泱		無	지	泱	해	淋	니	無	려	無	나	沖	
韻	나	韻	야	淋	도	韻	야	淋	리	淋	도	淋	라	泱	
無	도	淋	해	泱	하	泱		淋	니	無	노	沖	주	泱	
韻	가	泱	라	韻	나	韻	야	韻	노	韻	나	淋	가	泱	
韻		沖	나	韻	나	沖	에	泱	네	無	니	淋	나	泱	
		淋	니	無	도	淋	해								
△		無	노	韻	가	泱	라			△		△		△	중 모 리

지리라 생각된다.

• 연습용 대장금은 TV 사극의 주제가로 유명해진 곡이다. 협종(夾鐘)음을 사용하여 채보하였다. 단소의 제 5공이 고선(姑先)인 경우 고개를 조금 숙여 음정을 반음 떨어지게 협종(夾鐘)음이 나도록 연습해 본다.

• 연습곡 칠갑산은 많이 알려진 대중가요이다. 부호와 장식음을 익혀보자. (청청협)은 2공과 3공을 막고 세게 분다.

汰	아	林	아	汰	동	淋	날	밀 양 아 리 랑 세 마 치
韻	리	林	아	韻	섯	沖	보	
無	랑	林	랑	無	달	汰	소	
汰	고	林	쓰	汰	꽃	淋	날	
韻	개	林	쓰	韻	듯	沖	보	
沖	로	林	랑	沖	이	汰	소	
汰				韻				
無	날	淋	아	無	날	淋	날	
無	넘	沖	리	無	좀	沖	좀	
林	주	汰	가	林	보	汰	보	
林	소	沖	났	林	소	沖	소	세 마 치
無		淋		無		淋		
林		汰	네	林		汰		

韻	林	어	韻	울	韻	칠	汰	홀	沖	포	淋	무	林	배	淋	콩	칠 갑 산 중 모 리
	無	린	無	어	어	갑	泱	어	沖	기	淋	순	無	적	淋	발	
無	沖	속	韻	주	沖	산	泱	머	泱	다	無	설	沖	삼	淋		
淋	태	울	淋	던	淋	산	汰	니	林	눈	韻	움	沖	이	淋	매	
														홈	淋	는	
	泱	웠					마							백	淋		
							루										
淋	韻	소	沖	산	淋	에	韻	시	韻	나	淋	그	淋	다	沖	아	
無			泱	새			韻	집			無	리		泱	淋	나	
泱			泱	소리			無	가			淋	많		泱	泱	네	
韻			林	가			韻	날			淋	아		林	야	리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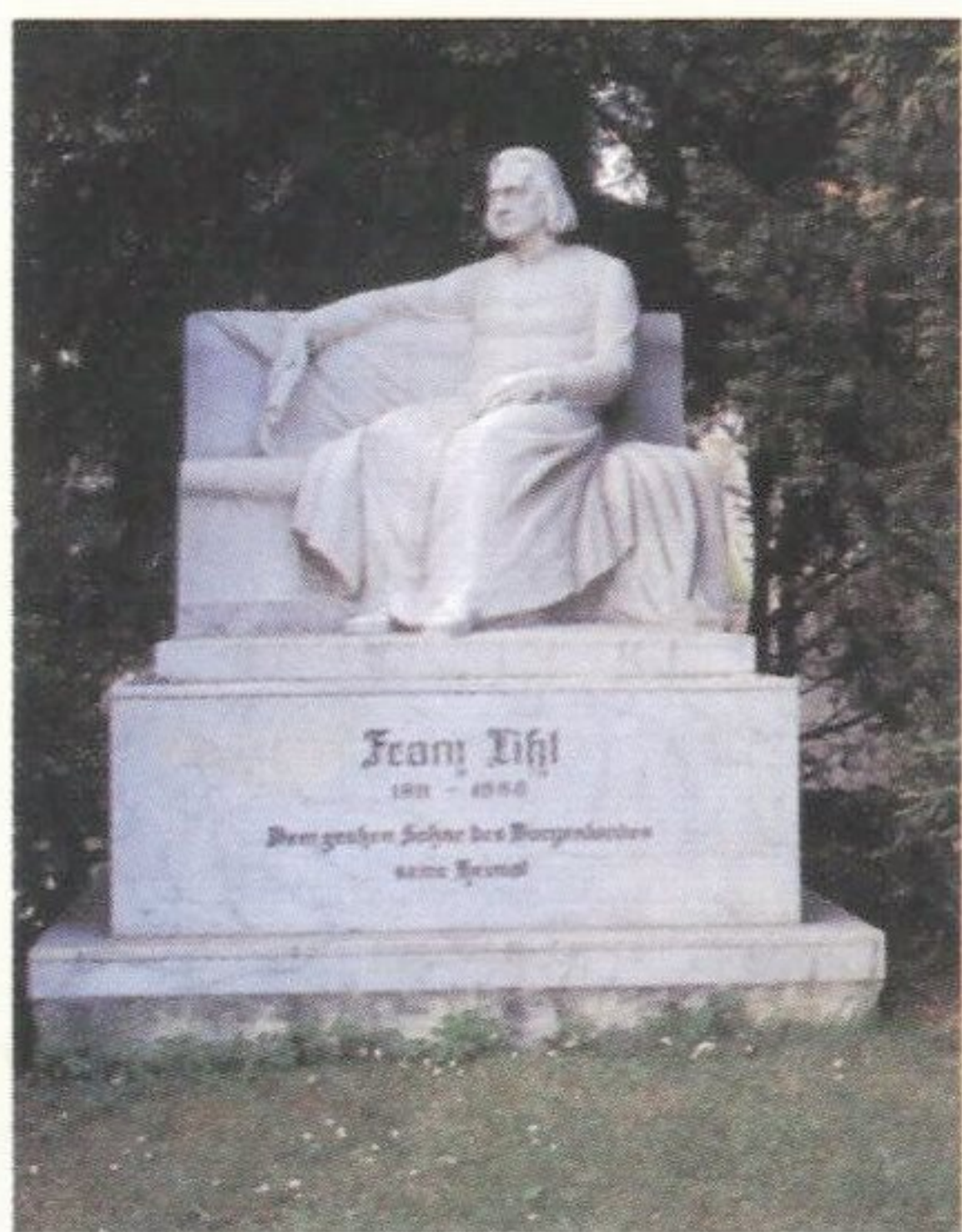
밀양아리랑은 경상도 민요다. 흥겨운 세마치 장단이라 신명이 나도록 연습해본다.

칠갑산과 밀양아리랑에 나오는 장식음과 부호이다.

沖	=	沖泱沖		泱	=	泱沖泱
無	=	無韻無		沖	=	沖淋沖
汰	=	汰韻汰		林	=	林仲

교향시 (Symphonic Poem)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헝가리 출신의 로맨티스트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에 의해서 창시된 교향시는 묘사적인 표제가 붙은 단일 악장 형태의 관현악 작품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리스트는 1854년에 ‘타소(Tasso)’라는 작품을 서곡으로 작곡했는데,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서곡’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향시’라는 용어를 씌으로써 교향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리스트는 “음악의 참 모습은 표제적인 요소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묘사적인 표제와 문학 작품의 구체적인 상(像)을 음악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다. 이를테면, 시의 내적인 본질을 깊이 이해한 후, 그것을 음악적인 수단으로 번역함으로써 음악 자체가 시가 되도록 하는 작업이 교향시곡의 창작인 것이다.

리스트보다 조금 앞서서 독일 작곡가 레베(C. Loewe, 1796-1869)가 1830년에 ‘마제파’를 발표하면서 악보에 ‘음시(音詩, tone poem)’라고 표기했는데, 교향시(symphonic poem)와 음시는 결국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리스트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에서 힌트를 얻어 교향시를 발명했지만, 베를리오즈(H. Berlioz, 1803-1869)는 오히려 리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3곡의 교향시를 발표했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R. Strauss, 1864-1949)는 리스트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형식과 다양하고 광범한 내용의 작품들(돈 판, 킬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돈키호테, 영웅의 생애 등 10곡)을 써서 교향시의 역사에 찬란한 금자탑을 세웠다.

19세기의 국민악과는 교향시라는 비옥한 토양을 흡수하면서 걸출한 작품들을 쏟아 내었다. 스메타나(Smetana, 1824-1884)의 ‘나의 조국’이 이를 증거 한다. 프랑스의 거장인 생상스(Saint-Saens, 1835-1921)는 ‘죽음의 춤’ 등 4곡의 뛰어난 교향시를 썼고, 댕디(D’Indy, 1851-1931)도 ‘산정의 여름날’ ‘해변의 시’ 등 프랑스적 에스프리가 가득 찬 교향시를 발표했고, 댕디와 같은 시대에 활약한 인상파 음악의 귀재 드뷔시(Debussy, 1862-1918)는 ‘바다’라는 걸작을 남겼다.

교향시에서 다루는 묘사적인 소재들은 아주 다양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장르의 작품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관현악법이 매우 화려하고 다이내믹하다는 사실이다. 실내악처럼 조용하고 서정적인 성격의 작품이 있는가 하면, 웅대한 스케일에 담긴 장려하고 당당한 음악도 있다. 화성에 있어서도 과감한 불협화음이 등장하고 관현악의 규모와 음역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악기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금관악기 부분에서는 튜바가 추가되었고 목관악기의 수도 증가했고, 타악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아울러 그 사용의 빈도수도 훨씬 높아졌다. 3관 편성의 오케스트라를 요구하는 일이 거의 일상화된다. 결과적으로 교향시곡은 오케스트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중심체가 되었다.

부산문화회관 문화자원봉사단

악어봉사단 단장 서 용 득



지난해 10월 출범한 부산문화회관 문화자원봉사단 악어봉사단이 본격적인 공연시즌을 맞아 성숙한 공연관람 정착을 위해 땀흘리고 있다. 악어봉사단 단장 서용득씨. 그는 부산문화회관 대관공연이 열리는 날에는 어김없이 부산문화회관을 찾는다.

문화관광부 지정 무료 평생 교육원인 기회의 학숙 14기, 15기 졸업생 30명으로 구성된 악어봉사단은 기회의 학숙에서 6개월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유산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받았다.

‘악어’라는 이름은 후퇴를 모르고 전진만 하는 악어의 습성이 힘겨운 자원봉사 활동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정해진 이름이다.

“10월부터 자원 봉사를 시작해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공연관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즐거운 표정으로 공연장을 나가는 시민들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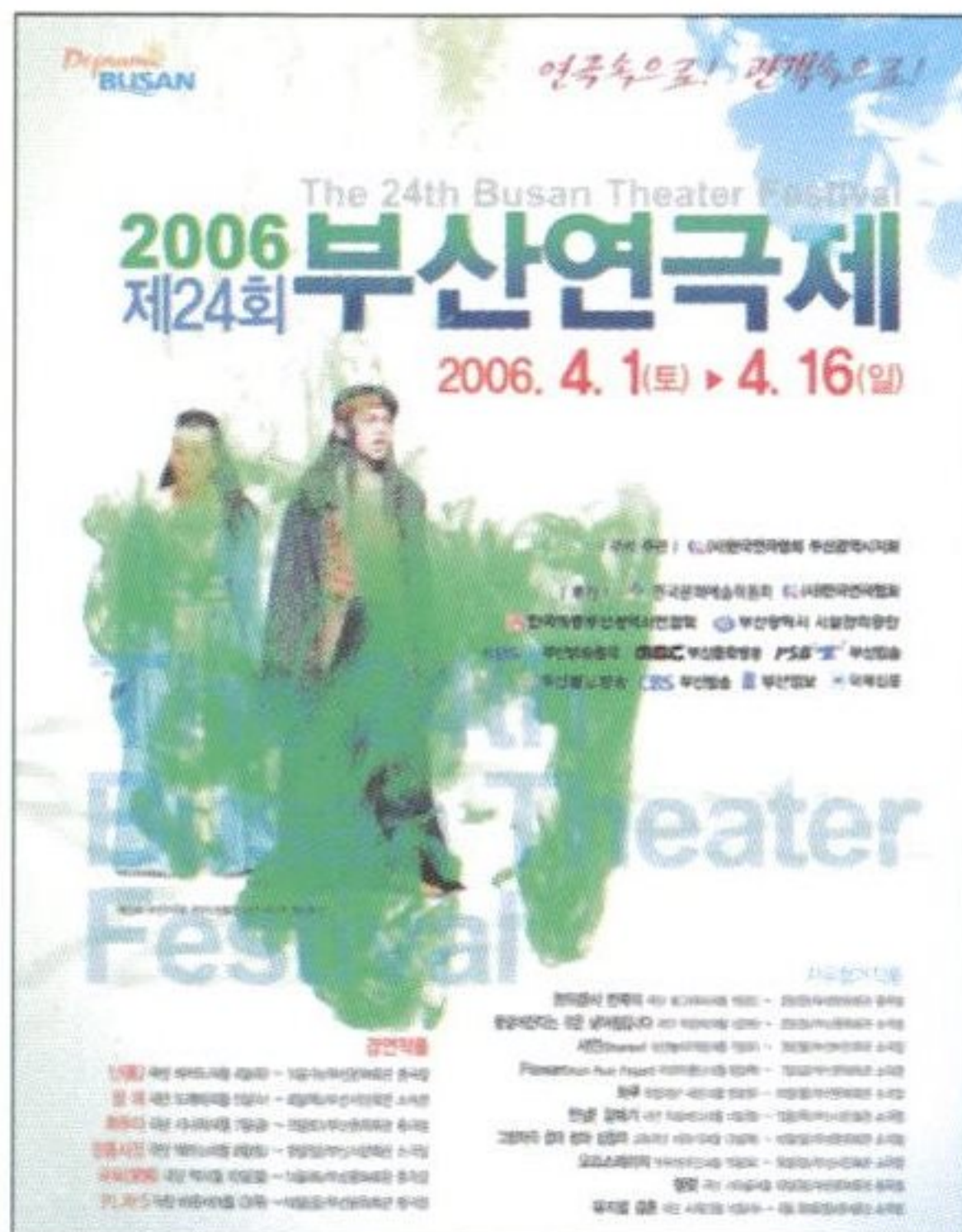
이제 발족한지 6개월을 맞았지만 서용득 단장과 악어봉사단 단원들이 추진하는 일은 한 둘이 아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지역을 부산문화회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악어봉사단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는 서용득 단장은 올해부터는 부산국제연극제와 부산국제무용제, 부산비엔날레, 부산바다축제, 국제락페스티벌 등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행사에도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서용득 단장 개인적으로는 2년 임기 중에 부산지역 다른 공연장에도 악어봉사단을 만들어 문화 자원봉사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단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연극속으로! 관객속으로!

2006 제 24회 부산연극제

1일(토)~16일(일)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SH공간소극장



부산연극인들의 최대축제인 '2006 부산연극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SH공간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연극속으로! 관객속으로!'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부산연극제는 극단 에저또, 극단 도깨비, 극연구집단 시나위, 극단 엑터스, 극단 맥,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 6개 극단이 참가하는 경연부문 외에도 극단 가마골, 남산놀이마당, 현대무용단 자유, 마임극단 세진 등 10개 단체가 출연, 타악퍼포먼스, 그림자극, 현대무용, 마임 등 관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 경연작

▷ 극단 에저또 '난(亂)' (작, 연출/최재민 · 출연/손미나, 김진욱, 이지훈, 곽정립 외)

- 4일(화) 오후 7:30, 5일(수) 오후 4:3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선 개국 초기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민중의 삶을 좌지우지한 권력자들의 암투를 그린 작품.

▷ 극단 도깨비 '꿈에' (작, 연출/김익현 · 출연/배준호, 백정임, 이윤숙, 안소영, 차일환, 심영락, 박대호 외)

- 5일(수) 오후 7:30, 6일(목) 오후 4:30,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꿈속에서 겪은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 삶의 희망을 그린 작품.

▷ 극연구집단 시나위 무술타악 코믹퍼포먼스 '휘투타' (작, 연출/강태욱 · 출연/강태욱, 손안모, 김학준, 백길성 외)

-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후 4:3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우리나라 불교 전통무술인 '금강승 불무도'에 전통타악을 접목시킨 무술타악 퍼포먼스.

▷ 극단 엑터스 '강통시장' (작/이철우 · 연출/이종근 · 출연/호민, 변미선, 박동민, 박지연 외)

- 8일(토) 오후 7:30, 9일(일) 오후 4:30,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원작인 방산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옮겨 1970년대와 현재의 부산을 배경으로 삶의 아이러니와 가족의 참 의미를 묻는 작품.

▷ 극단 맥 '곡독(哭獨)' (작, 연출/김경화 · 출연/이돈희, 고인범, 황창기, 심미란, 전지숙, 남정현, 권은하, 이지승 외)

- 10일(월) 오후 7:30, 11일(화) 오후 4:3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가면극, 꼭두각 등 전통 연희양식을 표현의 기본으로 삼아 현대적인 무대기법으로 재창출한 작품.

▷ 바문사 'PLAY5'(Mankind History) (작, 연출/김지용 · 출연/유상훈, 이현주, 김성경, 엄준필, 김성훈 외)

- 13일(목) 오후 7:30, 14일(금) 오후 4:3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인간의 존재와 삶의 진실을 찾는 주인공의 행적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원하면서도 운명의 굴레에 안주하는 인간의 절망을 그린 작품.

■ 축하공연

▷ 극단 사계 뮤지컬 '결혼' (작/이강백 · 연출/김만중 · 출연/구원모, 권순요, 황자미)

- 3월 15일(수)~4월 3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개인의 물질적 조건이 결혼의 전제조건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참다운 결혼의 조건을 제시한 작품.

▷ 남산놀이마당 'Shaman' (작, 연출/설영성 · 출연/장재희 외)

- 1일(토)~2일(일) 오후 6:00, 3일(월)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정적이면서도 두려운 존재로 인식된 '샤먼'을 삶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이웃으로 해석한 작품.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천하장사 반쪽이' (각색, 연출/오계영 · 출연/오계영, 조일영, 송관수, 이선화, 해미르)

- 1일(토)~2일(일) 오후 1:00,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반쪽인 겉모습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지만 언제나 곳곳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가족뮤지컬.

▷ 극단 자갈치 '둥글어진다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작/공동창작 · 연출/황해순 · 출연/김평삼, 홍순연, 전성호 외)

- 1일(토) 오후 3:00, 6:00, 2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뇌성마비 장애인 수길과 정신지체 장애인 종수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곳곳이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그린 작품.

▷ 현대무용단 자유 '2st HUM..HUM..Pruject-Flower' (안무/문은아 · 출연/문은아, 정진우, 박재현, 안선희 외)

- 6일(목)~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많은 사람들의 희망도 될 수 있지만 눈물이 되기도 하는 꽃을 소재로 저마다 현실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춤으로 풀어낸 작품.

▷ 마임극단 세진 '하루' (작, 연출/김세진 · 출연/김세진, 이효림)

- 8일(토) 오후 6:00, 9일(일) 오후 3:00, 6:00, 10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유쾌한 씨의 하루, 잔인한 하루1, 술먹는 하루, 맹인 검객의 하루 등 젊은 마임리스트 김세진의 삶이 투영된 6편의 창작초연극.

▷ 극단 자유바다 '안녕! 갈매기' (각색, 연출/정경환 · 출연/김상훈, 강혜란, 엄지영, 권혁철, 송가영, 심인보, 장우성)

- 11일(화)~13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연극을 준비하는 아들과 유명 여배우인 엄마, 그녀의 애인 작가 등 다양한 인물들의 애증과 갈등을 그린 작품.

▷ 교육극단 이야기 한 · 중 합동공연 그림자극 '청아 청아 심청아' (각색/박현형 · 연출/박현형, 양명충)

- 13일(목)~16일(일) 평일 오전 11:00, 오후 2:00, 주말 오후 12:00, 2:00,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우리의 전통설화 '심청전'과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그림자 연기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그림자극이 만난 한 · 중 합동공연.

▷ 부두연극단 '오프-스테이지' (각색, 연출/이성규 · 출연/최성우, 구민주, 이수정, 남현주, 여의주, 박미경 외)

- 15일(토)~16일(일) 오후 3:00,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일본작가 시미즈 쿠니오의 '분장실'과 채흠의 '백조의 노래' 등 연극인의 꿈과 좌절을 그린 두 작품을 옴니버스식으로 각색한 작품.

▷ 극단 가마골 '햄릿' (각색, 연출/이운택 · 출연/이승현, 남미정, 김소희, 임성진 외)

- 16일(일) 오후 3: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996년 초연당시 원전의 작품성을 유지하면서도 연출의 독창적인 해석과 무대로 한국적 셰익스피어를 선보여 화제가 된 작품.

■ 문의 : 부산연극협회(645-3759, www.bstheater.or.kr)

비발디 사계의 신화

이 무지치(I MUSICI) 실내악단 내한공연

4월 26일 수요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세계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실내악단으로 명성을 떨쳐온 이무지치(I MUSICI)가 부산문화회관 2006 우수연주인 초청 기획공연 첫 번째 연주단체로 오는 4월 26일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1952년 창단 이래,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세계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실내악단으로 명성을 떨쳐온 이 무지치(I MUSICI)는 특유의 아름답고 쾌활한 기질과 수준 높은 연주력으로 전 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975년 첫 내한공연을 가진 이 무지치는 2002년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테이프를 한국에서 끊은 바 있고 2004년 MBC와 아카디아 레이블로 〈한국의 사계〉 음반을 발매하기도 해 우리나라와 인연이 각별하다.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The Musicians)을 의미하는 ‘이 무지치’는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촉망받는 음악인들로 창단되었다. 이 무지치는 당시 낭만적으로 기울어진 바로크의 표정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자는 창단정신으로 출발, 바로크의 사도로서 세계무대에서 최정상의 지위를 지켜 왔다. 1980년대 이후로는 바로크 중심에서 벗어나 고전과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한편 단원 교체를 통해 변함없는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무지치의 단원들은 이무지치 활동 외에 솔리스트로,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교수, 오케스트라 단원 등으로 유럽음악계에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무지치가’가 자랑하고 있는 바로크 음악의 진수인 비발디의 〈사계〉는 일본에서만도 3백여 만장의 디스크가 팔리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 세인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1983년 ‘이 무지치’의 모든 단원은 전세계에 걸쳐 천만 장이 넘는 레코드 판매를 기념하여 필립스 음반사로부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레코드를 받았다. 그들이 연주한 최초의 비발디 ‘사계’ 레코딩은 아직도 가장 잘 팔리는 음반 항목 중 하나이고, 1989년 가장 최근에 녹음한 ‘사계’는 다섯 개의 매체(레이저디스크, VHS, CD, MC, LP)로 동시에 발매되어 음향과 영상에 있어 이탈리아의 진수를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무지치’는 창단과 함께 1952년 베니스 음악제, 영국의 에딘버러 음악제 등 유럽의 저명한 음악제에 참가하여 그 연주실력을 인정 받았으며, 세기의 지휘자 토스카니니로부터 ‘세계 최고의 실내 합주단’이라는 격찬을 받기도 했다. 미국 음악비평의 태두로 불리는 버질 톰슨은 ‘세계가 지금까지 들어온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실내악단이며 그 연주야말로 〈완벽〉이란 두 글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극찬을 했는가하며 뉴욕 타임즈의 로버트 셔먼 기자는 이무지치를 두고 ‘완벽성과 명확성을 유지하며 완벽한 음향을 내는 그들의 역량에 항상 감탄하고 있다. 또 이 악단은 표현, 균형감각, 섬세한 명암의 대비를 잘 갖추고 있으며 리듬의

절제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조화된 선율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고 호평했다.

2006년 내한 공연에 앞서 4월 6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서의 투어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는 이 무지치는 이번 내한 무대에서는 이 무지치의 독보적인 레퍼토리인 비발디의 〈사계〉와 함께 피아졸라의 유명 탱고 작품, 보케리니의 미뉴엣, 레스피기의 시칠리아나 등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 프로그램

보케리니/미뉴엣

모차르트/론도

레스피기/시칠리아나

파가니니/바이올린에 의한 변주곡

차이코프스키/왈츠

아노니모스(Vito Paternoster 편곡)/타란텔라 이야기

팔라/스페인 춤곡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몬티/차르다스

비발디/사계

※ 곡목과 공연순서는 연주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중고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S석, A석 20% 할인)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47, 607-6070,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앙코르 앙상블

4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06년의 새 봄을 지나며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유수정, 남순천, 기미현, 최선희 등 13명의 시립합창단원이 준비한 소그룹 특별 연주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앙코르 앙상블’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대극장에서 갖는 정기연주회와는 달리 청중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중극장 무대로 보통 연주회에서 앙코르곡들로 자주 연주되는 재미있고 친숙한 곡들을 선

곡해 출연진들과 청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를 구성했다.

전반부 무대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모차르트의 무대로 펼쳐진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와 오라토리오 아리아 5곡들로 꾸며진 ‘I Love Mozart’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최선희, 테너 김웅태, 소프라노 남순천, 소프라노 기미현, 바리톤 서관수가 독창자로 무대에 오른다.

두 번째 무대는 이번 연주회의 타이틀인 앙코르앙상블 무대로, 기존 음악회에서 앙콜곡으로 불려온 재미있는 곡들로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재미난 리듬과 소리로 꾸며진 두 곡 ‘지리적 푸가’와 ‘네임 댓 튠’, 사랑의 테마로 꾸며진 ‘사랑의 기쁨’, ‘우리는 하나’,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세 곡 그리고 ‘테킬라 삼바’, ‘다시 트위스트를 취요’ 등 재미난 두 곡의 춤곡을 중창으로 들려준다.

그동안 합창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단원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솔로, 중창 무대 인만큼 단원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 출연/유수정, 남순천, 기미현, 최선희(이상 소프라노), 김윤희, 박진희(이상 알토), 강종철, 김웅태(이상 테너), 최기호, 오승중, 서관수(이상 베이스)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입장료 :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4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3월 30일 봄을 알리는 춘래음(春來音)으로 싱그러운 봄의 무대를 열어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4월 27일 중국광파민족악단 지휘자 팡가붕을 초청, 특별무대를 연다.

지난해 중국광파민족악단을 이끌고 부산창작국악관현악축제에 참가, 중국 전통 음악을 들려준 팡가붕(彭家鵬)은 두 차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객원지휘 해 부산국악애호가들과는 친숙한 지휘자이다.

상해음악원과 중앙음악원에서 작곡과 지휘를 전공한 팡가붕은 1997년 미국지휘자협회에 우수지휘자로 뽑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개최한 지휘 마스터 클래스에 유학, 세계적인 지휘자 Gustav Meier, Mendi Rodan, Robert Gutter, Roman Kofman을 사사했다.

현재 중국광파민족악단과 중국동방교향악단 예술총감독 및 수석지휘자, 마카오화교악단 예술감독 및 수석지휘자, 오스트리아 그라스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팡가붕은 2000년, 200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페라하우스에서 가진 〈용년중국춘절민족음악회〉와 〈신세기중국민족교향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지휘, 현지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2003년 1월 비엔나 오페라하우스에서 가진 연주회에서 중국음악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 팡가붕은 같은 해 2월 미국 굴지의 기업 후원으로 뉴욕 링컨센터,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가스 등 여러 도시에서 중국 광파민족악단과 함께 순회연주를 가지기도 했다.

팡가붕은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음악평론가 ‘싱크 위치’로 부터 ‘음악적 추리능력이 뛰어나고 카라얀 같은 아름다움과 열정적이고 생기 있으며 자기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호평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중국북경중앙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중국북경음악가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왕영(王穎)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왕영은 이번 무대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로 소리가 맑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얼후를 위해 작곡한 박범훈의 협주곡 ‘쵸’를 들려준다. 얼후 협주곡 ‘쵸’은 지난 1991년 12월 17일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韓, 中, 日 민족음악회에서 초연되었다.



객원지휘자 팡가붕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9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I

4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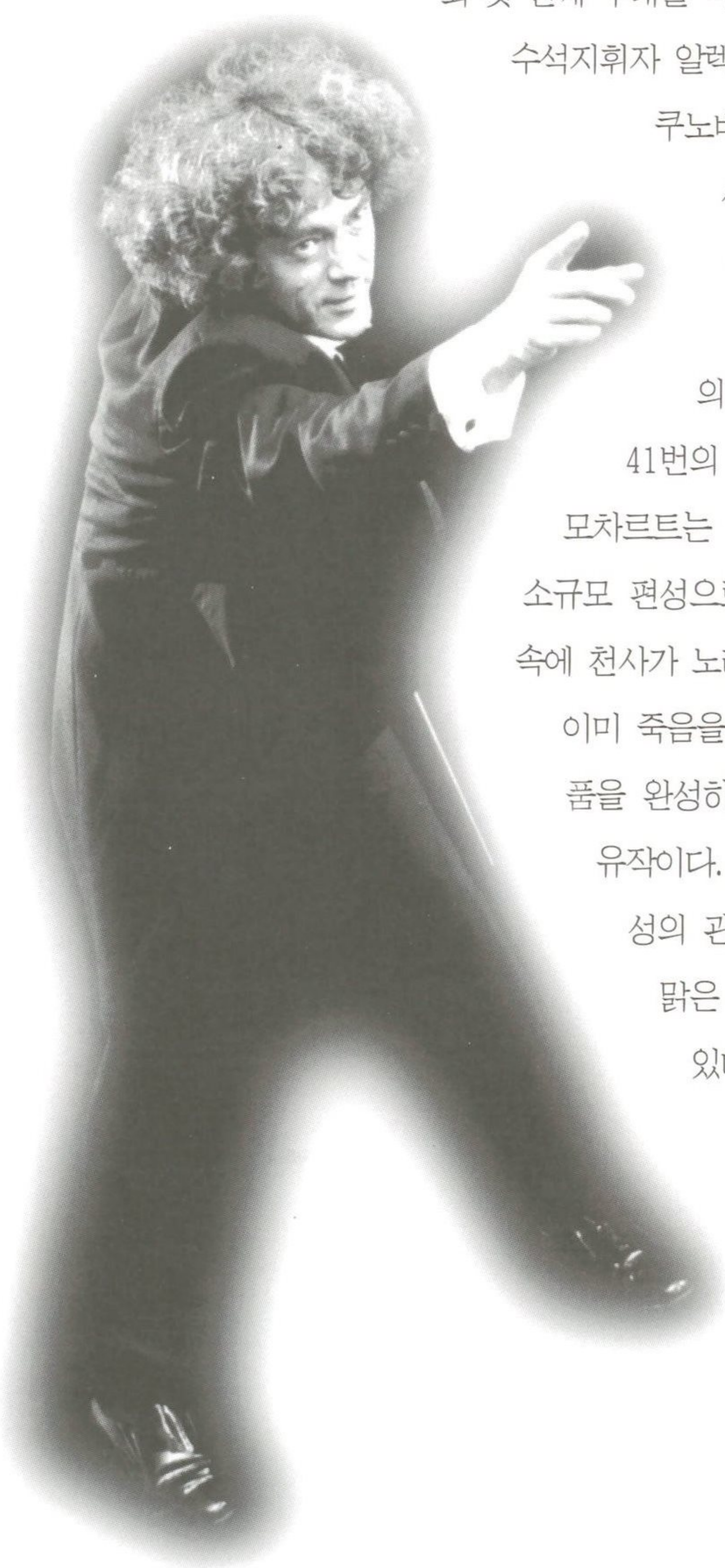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모차르트 ‘최후의 3대 교향곡’ 중 두 번째곡인 ‘교향곡 제 40번’과 죽음을 앞두고 미완성으로 작곡된 ‘레퀴엠’으로 기념음악회 첫 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하석배, 베이스 티그란 마르티로시안과 부산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이 출연,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를 느낄 수 있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첫 곡으로 연주되는 ‘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작품 55’은 최후의 3대 교향곡 중 첫 곡인 39번의 밝고 맑은 느낌과 마지막 곡인 41번의 장려함과 대조적으로 그윽한 애수를 담은 비극미가 특징이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에서 바로크 작품들처럼 트럼펫과 팀파니를 제외시키는 소규모 편성으로 자유분방한 관현악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슈베르트는 이 작품 속에 천사가 노래하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있던 최만년의 작품인 ‘레퀴엠’은 모차르트가 끝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그의 제자인 쥐스마이어에 의해 완성된 유작이다. 혼성4부의 독창과 합창, 그리고 플룻, 오보에를 제외한 2관 편성의 관현악과 오르간으로 편성된 이 작품은 모차르트 만년의 고상하고 맑은 울림으로 고금의 레퀴엠 중 최고 걸작 중 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레퀴엠’ 솔로이스트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는 러시아 로스토프 온 돈 국립극장의 프리마돈나로, 2003년과 2005년 ‘골든 마스크’에서 영예로운 디플로마를 수여받기도 했다. 매년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순회공연을 가졌던 그는 현재 페르골레지 ‘스테바트 마테르’, 모차르트 ‘레퀴엠’, 바하 ‘미사’, 비발디 ‘글로리아’, 베토벤 ‘교향



곡 제 9번'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및 뉴욕 줄리어드음대 대학원,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수학한 메조소프라노 추희명은 오페라 카르멘, 피가로의 결혼, 세빌라의 이발사, 리골레토, 마술피리 등 다수 오페라 주역과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동아콩쿠르, 한국청소년성악경연대회, 뉴욕 푸치니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는 추희명은 현재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경희대학교 성악과 및 이태리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하석배는 그동안 베르디, 파르마, 비요찌 베르첼리, 빌바오, 몽세라 까바예, 비냐스 등 유명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몽세라 까바예, 플라시도 도밍고, 로린 마젤, 기돈 크레머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유럽순회공연을 가진 바 있는 하석배는 오페라 주역을 비롯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동경심포니, 하노버, 바로셀로나 등 국내외 유명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아르메니아 출신으로, 그네신 주립음악원 수학 중 모스크바 시립극장에서 오페라 데뷔무대를 가진 베이스 티그란 마르티로시안은 그동안 러시아 음악콩쿠르 1등, 국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특별상 및 디플롬, 퀸 소냐 국제음악콩쿠르 2등, 마ریان 앤더슨 콩쿠르 2등 등 수많은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다.

2000년 플라시도 도밍고 '오페랄리아'의 파이널리스트로서 도밍고가 지휘한 베르디 '레퀴엠'에 초대되어 무대에 오르기도 한 그는 1993년 이후 수많은 콘서트와 오페라에 출연하면서 미국 및 유럽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리나 크리쿠노바



추희명



하석배



티그란 마르티로시안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부산콘서트콰이어 제 8회 정기연주회

명성가곡의 밤

3일 월요일 오후 7:30



1992년 순수 아마추어합창단으로 창단, 지금은 성악을 전공한 단원들과 함께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콘서트콰이어 제 8회 정기연주회.

부산콘서트콰이어는 부산민간합창단으로 최초로 불우이웃돕기 자선오페라 '아말과 크리스마스의 밤'을 개최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프로그램

박지훈/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나운영/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비제/하나님의 어린양 등 수곡

· 객원지휘/전상건(글로리선교합창단 상임지휘자, 예코폴리스오페라단 단장)

· 특별출연/초량교회 임마누엘찬양대

출연

정현수(테너), 주유진(소프라노), 김원(오르간), 현미경(피아노), 박정미(피아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621-6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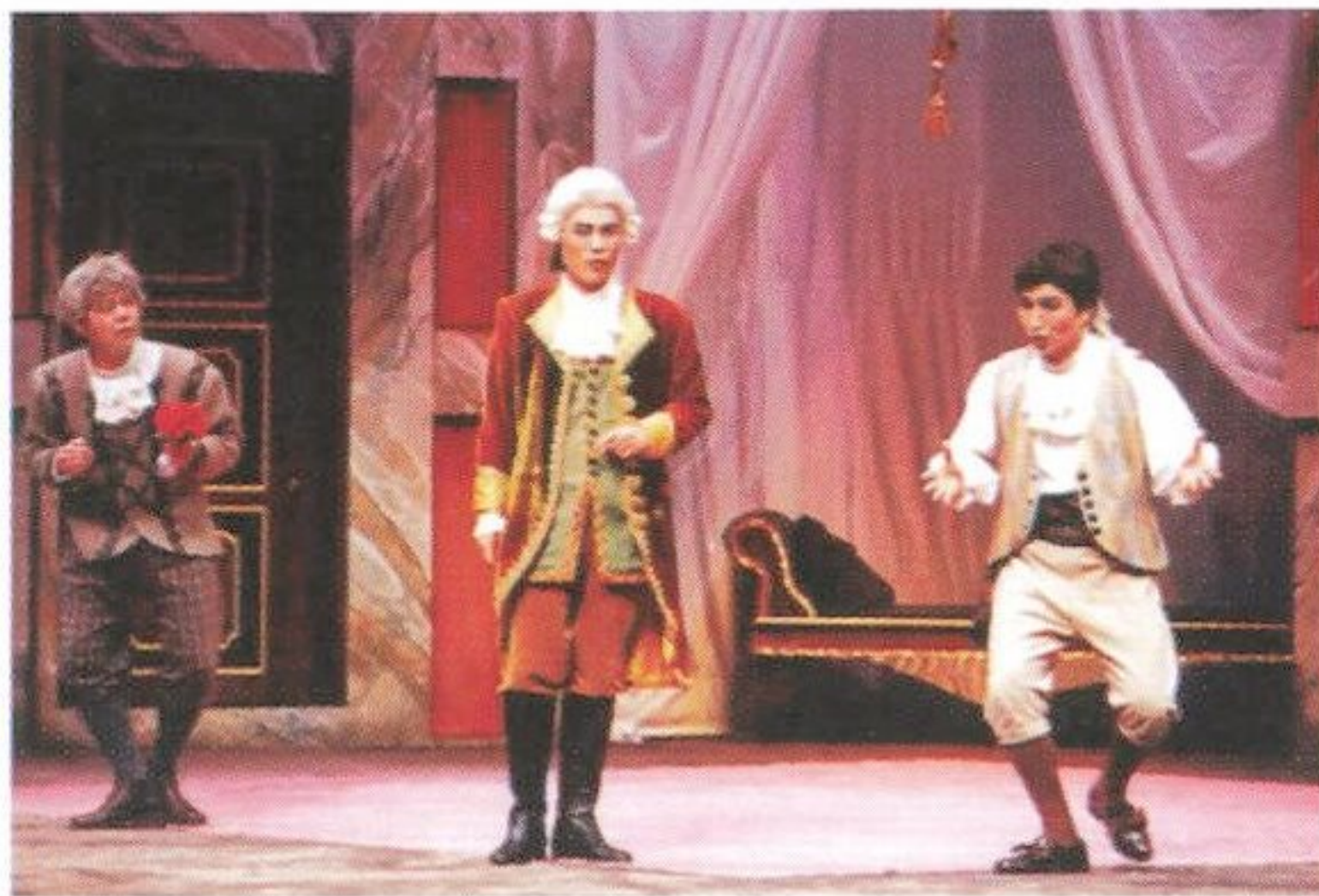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아지무스 오페라단 제 4회 정기공연

피가로의 결혼

6일-9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7:3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아지무스 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유쾌한 가족오페



라로 오랜만에 부산무대에서 공연되는 '피가로의 결혼'은 매력 있는 멜로디와 교묘한 앙상블, 그리고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등의 풍부한 음악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 예술총감독/박영국(구미대학 교수, 오페라 단장)

· 연출/김성경(밤비니오페라제작소 대표)

· 관현악/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지휘/박종휘)

· 합창/단비울&BLS(지휘/강성철)

출연

허미경, 백선아, 신정순, 이한나킴, 윤현숙(이상 백작부인), 김도형, 박원한, 박용민, 최대우, 이정민(이상 피가로), 김방술, 이정희, 황윤정, 임지아, 남순천(이상 수잔나), 고영호, 최기천, 신화수, 최인철, 오세민(이상 백작), 성미진, 이지영(이상 케루비노) 외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품)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

(011-9520-4649)

2006 최은희의 우리춤 큰 출판

11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춤패 배김새 총감독으로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는 최은희의 우리춤 큰 출판.

2006 우리춤 큰 출판은 새해의 소망과

지역민들이 화합하는 이상향에 대한 바람으로 신을 부르고(請神), 놀리고(娛神), 보내는(送神) 단계를 '춤열림', '춤맞이', '춤내림의 춤' 세마당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

· 첫째마당 - 춤열림(請神의 단계)

터울림, 태양제(춤바라), 터밧기, 오방신장무

· 둘째마당 - 춤맞이(娛神의 단계)

춘앵전, 향발무, 태평무, 승무, 삼고무, 살풀이 춤, 진주교방굿거리 춤, 장고춤

· 셋째마당 - 춤내림(送神의 단계)

호적살풀이 춤

· 재구성안무, 연출/최은희(경성대 무용학과 교수, 춤패 배김새 총감독)

· 특별출연/이영희(경성대 무용학과 교수, 새알춤회 예술감독), 정재연구회, 진주교방굿거리 보존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경성대학교 무용학과(620-4964)

닥터스 빅 밴드 제 5회 정기연주회

1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지역의 의사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닥터스 빅 밴드의 제 5회 정기연주회.

1999년 창단된 닥터스 빅 밴드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는 물론 의사회 학술대회, 온천천 환경문화축제, 자갈치 축제 등으로 연주활동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다.

프로그램

Malaguena, Johnny B. Goode, Vibrations, Bugler's Holiday, The Girl From Ipanema, Latin Folly, American Graphity 등 수곡

· 지휘/정흥기

· 협연/메조소프라노 이지영

· 무용/강태희, 박연희, 이현정, 이해은

입장료 무료

문의 닥터스 빅밴드(550-9330)

희망을 여는 사람들

ING생명 고객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

14일 금요일 오후 7:30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청소년 조국체험 국토기행' 경비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사랑의 음악회.

프로그램

김명표/사당의 노래

카치니/아베 마리아

조두남/새타령

줄리아니/기타협주곡 제 1번 가장조 작품
30 등 수곡

출연

고충진, 김윤종, 신성진, 최상미(이상 클래식기타리스트), 강유정, 박미경, 김지현(이상 소프라노), 하병욱(바리톤), 박미옥(피아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사회복지단체 희망을 여는 사람들
(554-0833~4)

고려아 오페라단

10소프라노 페스티벌

17일 월요일 오후 7:30

3월 오페라 가면무도회와 버섯피자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고려아 오페라단이 마련하는 10소프라노 페스티벌.

출연

김방술, 허미경, 김미성, 정태미, 민상순, 김현숙, 박현정, 박미경, 이윤정, 박은미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학생 10,000원

문의 안상철(016-9302-5271)

부산심포닉밴드 제 3회 정기연주회

강 건너 봄이 오듯... 작곡가 임금수 초청 '가곡의 밤'

18일 화요일 오후 7:30



2004년 국내 최대의 민간 관악단으로 창단된 부산심포닉밴드가 마련하는 2006년 첫 정기연주회로 작곡가 임금수를 초청, 우리 가곡의 밤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서곡 페스티보

임금수/나의사랑 독도야, 옛님, 구름 따라,
사랑하는 마음, 초혼, 사미인곡, 꿈속의 사랑, 해바라기, 강 건너 봄이 오듯, 한강수타령, 풍년잔치 등 수곡

· 지휘/이기균(부산심포닉밴드 상임 지휘자)

· 협연/허미경, 박현정, 배수진, 장원상, 김도형, 김수길, 강학윤, 부산콘서트콰이어, 부산진구어머니합창단, 경성대 콘서트콰이어, 평안교회합창단

입장료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손정경(017-559-9063)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

찬불가 합창경연대회

19일 수요일 오후 6:00

부산지역 18개 불교합창단이 한 자리에서 마련하는 찬불가 합창경연대회.

참가단체

광명선원(지휘/김하정), 관음사(지휘/시명스님), 금강암(지휘/정서영), 금련사(지휘/백규진), 내원정사(지휘/배천종), 미룡사(지휘/정수연), 범어사(지휘/배천종), 선암사(지휘/조성완), 여여선원(지휘/진혜정), 영주암(지휘/정서영), 옥련선원(지휘/강영화), 정각사(지휘/조은정), 통도사 포교원(지휘/박현정), 폭포사(지휘/차성실), 한마음선원(지휘/정성민), 황정사(지휘/백규진), 혜원정사(지휘/김수진), 흥법사(지휘/정성민)

입장료 무료

문의 강갑순(019-558-8059)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20일 목요일 오후 7:30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유망주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60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윤상운이 지휘한다.

ForAD
종합광고대행사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드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4번 사장조 작품
58 중 제 3악장

텔레만/비올라 협주곡 사장조 작품 51 중
제 1악장 & 제 2악장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중 제 3악장 등 수곡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권순지(바이올린, 석포여중 3년), 김
민경(바이올린, 동주여중 3년), 김호
연(바이올린, 신도초등 3년), 김량하
(비올라, 부산예중 1년), 이예린(첼
로, 부산예중 3년), 이예림(피아노,
부산예중 3년)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 트라 제 5회 정기연주회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흔하지 않는
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아마빌레 색소폰오케
스트라는 2002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이래
그동안 부산은행 주최 불우이웃돕기 호프 데
이 행사, 부산 난리굿판 행사, 부산지하철
문화마당, 통영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초청
연주회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이와이(편곡)/Ob-la-di, Ob-la-da,
Hey Jude,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Brazil, Rock'n Roll
Medley, El Bimbo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이수영(016-804-7404)
김인홍(017-596-7795)

2006 아듀 이루마 콘서트

23일 일요일 오후 6:00



공연, 음반, 영화음악, CF, 드라마 음악
으로 끊임없이 대중들과 만나온 뉴에이지 피
아니스트 이루마의 아듀 콘서트.

한국인 최초로 런던대 킹스컬리지에 입학
하여 현대음악의 거장 해리슨 버트위슬을 사
사한 이루마는 2000년 한·영 친선문화
교류기념 런던, 서울 공동제작 연극 '태' 음
악담당을 계기로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
했다.

이루마는 2002년 1월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규모의 음반 박람회
'MIDEM'에서 한국인 최초로 초청 공연
을 가진 후 유럽, 아시아에서 라이선스
수출 발매하였다.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문의 (주)인터스테이지(1588-8477)

이자벨 베르네 & 이철성 듀오연주회

24일 월요일 오후 7:30



이자벨 베르네

이철성

한국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가진 바 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이사벨 베르네
와 부산의 테너 이철성의 듀오 무대.

이사벨 베르네는 뛰어난 가창력 뿐 아니라
열정적이며 유모러스한 무대매너로 부산무대

에서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1985년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레진 크레스
팡의 제자로 들어간 이사벨 베르네는 오페
라, 오라 트리오, 서정예술 부문에서 1위상
을 3개나 획득하여 주목 받았다.

프로그램

싸티/당신을 원해요, 제국의 디바, 부드럽
게, 인형 3개

뒤빠르프/여행에의 초대, 파도와 중, 피델레
메싸제르/가면 쓴 사랑 중 '내겐 두 명의 애
인이 있어요...'

로페즈/ '오르페브르가' 중 '나와 함께 춤을
춰요' 등 수곡

· 피아노/박미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문화(633-8990)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8회 정기연주회

25일 화요일 오후 7:30



오충근

김용배

1993년 창단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부산의 대표적인 순수 민간 오케스트라로 그
동안 17회의 정기연주회와 6편의 오페라 연
주, 2회의 한국 창작 발표회 등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 서곡 작품 96

그리그/피아노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차이코프스키/비창 제 6번 나단조 작품 74

· 지휘/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고신대학교 교수)

· 협연/김용배(피아니스트, 추계예대 교수,
예술의 전당 사장)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학생단체 5,000원

문의 BSO(620-4917, 4918)

부산문화회관 세계 정상 연주인(단체)
초청 기획공연

이 무지치(I MUSICI) 내 한 공연

26일 수요일 오후 7:30



1952년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촉망받는 음악인들로 창단, 이탈리아 뿐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실내악단으로 명성을 떨쳐온 이 무지치(I MUSICI) 부산연주회.

‘사계’로 유명한 이 무지치는 지난 반세기 동안 특유의 아름답고 쾌활한 기질과 수준 높은 연주력으로 전 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프로그램

보케리니/미뉴엣

모차르트/론도

레스피기/시칠리아

파가니니/바이올린의 의한 변주곡

비발디/사계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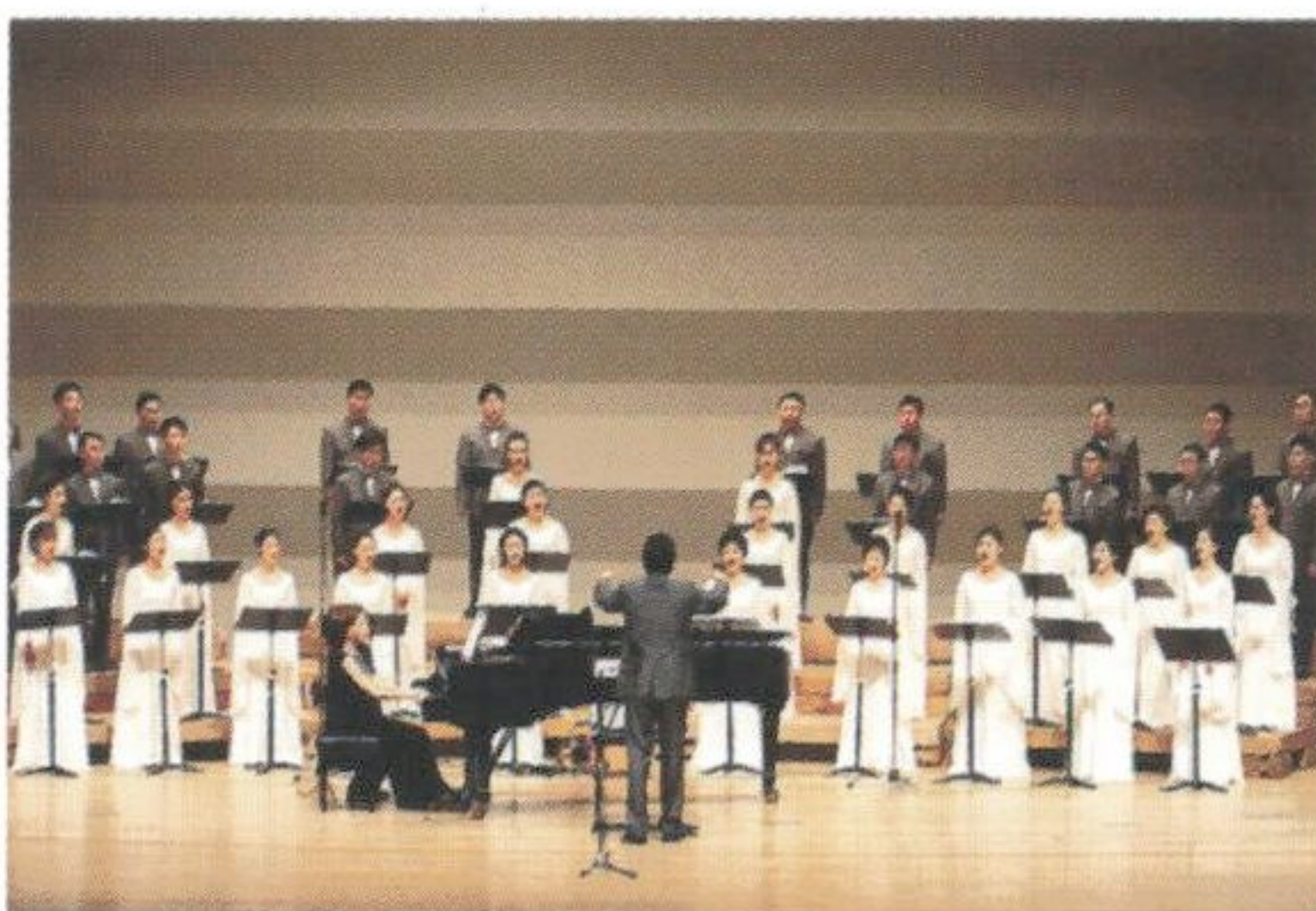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B석(중고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S석, A석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607-6047)

부산 하모니합창단 제 3 회 정기연주회

27일 목요일 오후 7:30



재미있고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들려주는 부산하모니의 세번째 정기연주회.

그리움, 작은 하모니, 영국과 미국의 합창, 즐거운 합창이라는 각각의 타이틀을 가진 4개의 무대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합창 1:그리움-또 한송이의 나의 모란(김진균), 못잊어(윤지영), 도라지꽃(박지훈), 사랑하는 마음(임금수)

합창 2:작은 하모니-빛속에서 노래해요, 춤추실래요, 무지개를 넘어서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반주/윤지영
· 특별출연(자녀무대)/천정민(첼로), 최영민(피아노)

· 특별출연/김영립(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입장료 초대

문의 최신(011-887-86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9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I

28일 금요일 오후 7:30



음악사상 최대의 작곡가 중 한사람인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9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3대 교향곡 중에서 가장 보편성을 띤 교향곡 제 40번과 고금의 레퀴엠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레퀴엠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작품 550

모차르트/레퀴엠 라단조 작품 626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이리나 크리쿠노바(소프라노), 추희명(메조소프라노), 하석배(테너), 티그란 마르티로시안(베이스)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 엄마하고 나하고 -

29일 토요일 오후 7:00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3위 우승, 쾰엔리자베스 콩쿠르 은상, 윌리엄 카펠 콩쿠르 1위 우승, 리즈 콩쿠르, 헬렌하트 콩쿠르 입상 등 세계 메이저 콩쿠르를 휩쓸면서 세계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남포동
자갈치 중앙아치탑 앞
각종 공연 예매처
Tel: 245-3843

문우당서점의 특별한 혜택!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과 CGV(영화)에서 사용! 도서구입시 5%적립 CGV 10%적립 및 특정요일 할인

가마골소극장 할인! 문우당 영수증제시로 수요일은 문우당의 날로 50%할인 화·목·금요일 20%할인(일부대관공연 제외)

문우당 창립 51주년 기념 1년간 책구매시마다 사은품 증정 부산교통수첩(버스노선 외), 세계명언집(수첩형), 세계지도 캘린더 기타 사은품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할인매장

책과 지도의 백화점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와 지구본 대형매장(대형코팅 전문)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를 무대로 활동해온 백혜선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하는 '엄마하고 나하고'.

두 아이의 엄마로, 피아니스트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백혜선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무대에서 음악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반부에서는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꼭 만나게 되는 소나티네에서부터 피아노를 다룰 줄 안다면 누구나 한번씩은 꼭 연주한다는 명곡을 들려주고 후반부에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즐기는 세계적인 동화 '아기코끼리 바바 이야기'를 프랑스의 작곡가 풀랑이 피아노로 표현한 음악동화를 백혜선이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그의 육성으로 동화구연을 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다장조 K.545

쿨라우/소나티네 중에서

클레멘티/소나티네 중에서

멘델스존/봄의 노래 무언가 중에서 '실 잣는 노래'

체르니/비엔나 행진곡

모차르트/작은별 주제에 의한 8개의 변주곡 등 수곡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4월 20일 까지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06 숲속발레 창작 무용극 '꿈속의 꿈'

5월 2일-5월 3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7:30

지혜로운 삶과 어울림의 사랑을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밝은 마음을 전하는



숲속발레 '꿈속의 꿈'.

전 3장(1장 오프닝, 2장 숲 마을 이야기, 3장 지금의 꿈)으로 구성된 '꿈속의 꿈'은 화려함과 장엄함 그리고 발레의 독특한 맛을 통해 발레의 진수를 보여준다.

· 연출, 대본/김준기

· 안무/김옥련

· 작곡/전현미

입장료 일반 15,000원

학생, 어린이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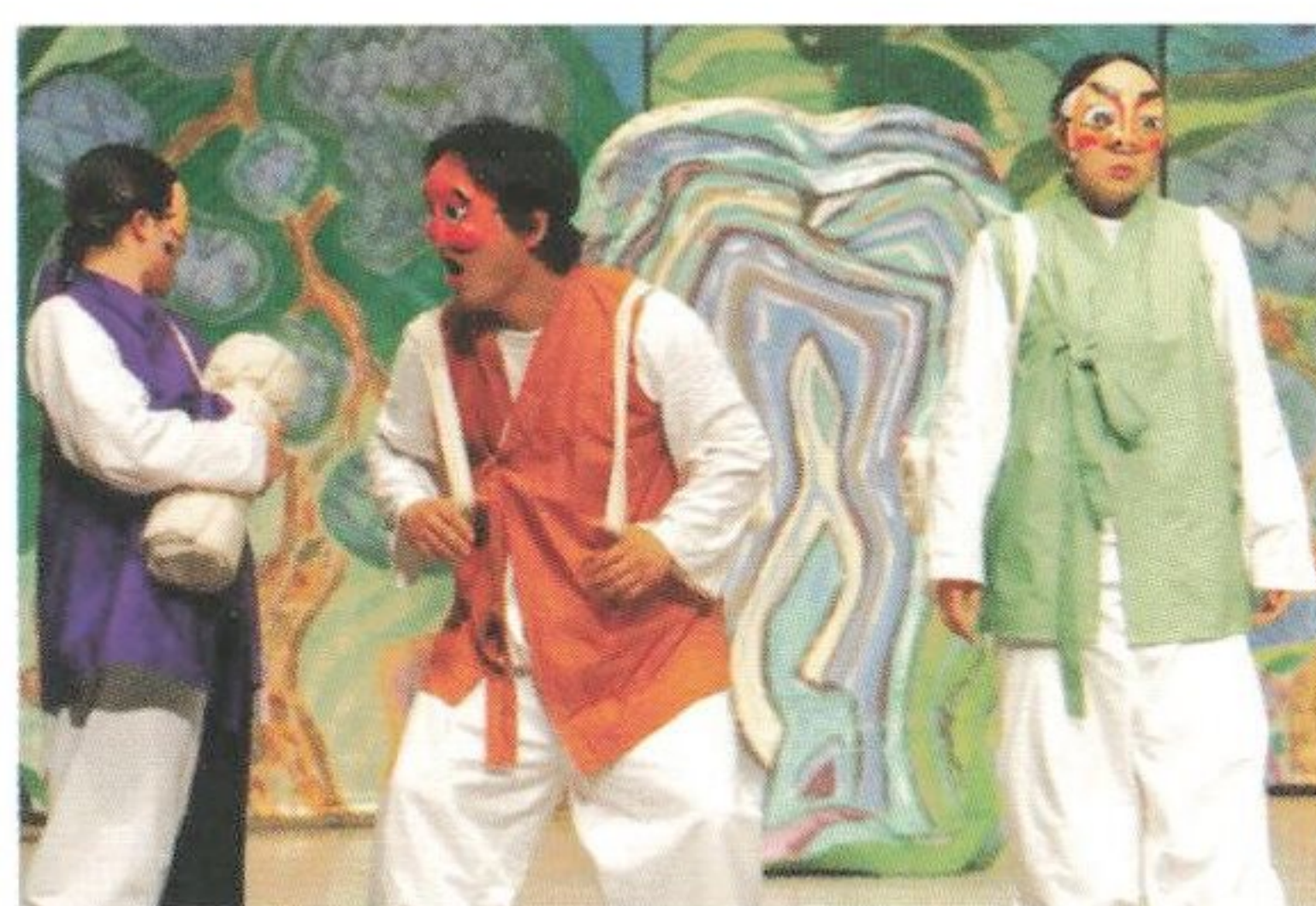
문의 김옥련무용원(627-4113, 626-9486, 016-579-9486)

중극장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통그라미그리기 천하장사 반쪽이

1-2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겉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곳 곳하고 재치있게 사는 반쪽이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오계영

출연

조일영, 오계영, 이선화, 송판수, 박세훈, 이선구

입장료 균일 15,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통그라미그리기(818-1772~3)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에저또 난(亂)

4일-5일 화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4:30, 7:30

조선의 역사를 배경으로 민중의 삶과 함께 민중을 좌지우지한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극단 에저또의 '난(亂)'. 지난해 부산연극제 최우수연기자상을 수상한 김진욱과 극단 에저또 단원들이 열연한다.

· 작, 연출/최재민

출연

이지훈, 곽정림, 김진욱, 김지연, 구윤희, 신영재, 김상호, 김현자, 조일현, 김근화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에저또(852-9161)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무술타악 코믹퍼포먼스 휘투타

7일-8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APEC 일반문화행사로 지난해 10월 선보인 극연구집단 시나위의 '휘투타'를 부산연극제 참가작으로 다시 만난다.

'부산작가가 쓴 희곡으로 연극제 개최 1년 안에 공연된 작품도 창작 초연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참가작에 포함된 휘투타는 불교 무술 집안 두 형제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타악과 불무도를 결합시킨 작품이다.

· 작, 연출/강태욱

출연

강태욱, 손안모, 김학준, 백길성, 서성원, 김현진, 백상희, 반필우, 최병희, 구미석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맥
곡독(哭獨)

10일-11일 월요일 오후 7:30,
화요일 오후 4:30, 7:30



전통 연희양식을 표현의 기본으로 삼아 현대적인 무대기법으로 재창출해낸 극단 맥의 경연작 '곡독(哭獨)'.

가면을 쓴 배우, 배우의 데드 마스크를 쓴 꼭두, 배우를 닮은 손꼭두가 무대의 이성과 감성을 표현해 낸다.

· 작, 연출/김경화

출연

고인범, 심미란, 전지숙, 정진화, 남정현, 권은하, 이지승, 박성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맥(633-2114)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플레이 5 인류 역사
(PLAY5 Mankind History)**

13일-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4:30, 7:30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의 경연작 '플레이 5 인류 역사'는 부산연극제에서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부조리극으로 현대사회의 권력과 지배, 지식인의 현실 참여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지난해 희곡상을 수상한 김지용이 희곡과 연출을 맡았다.

· 작, 연출/김지용

출연

엄준필, 김성훈, 김성경, 이현, 유상훈, 이진희, 문지연, 이윤희, 윤순환, 조재호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바문사(247-6533)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가마골 햄릿

16일 일요일 오후 3:00, 6:00



1996년 초연 당시 연출의 독창적인 해석과 무대구성, 폭발적인 연기로 한국적 셰익스피어 공연양식을 선보인 햄릿은 1996년 서울연극제 연출상을 수상하며 러시아, 독일, 일본 등에서 각광받았다.

· 각색, 연출/이윤택

출연

이승헌, 신현서, 김소희, 조영진, 장재호, 남미정, 한갑수, 윤용준 외

입장료 R석 35,000원 · A석 2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제 5회 한국피아노학회
부산 · 경남지부회 정기
연주회**

18일 화요일 오후 7:30



장진이

이설애

한국피아노 학회 회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경남 지부회 회원들이 들려주는 제 5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쇼팽/폴로네이즈 작품 44

라흐마니노프/Six Morceaux op.11중
(1piano 4 hands) 'Barcarolle'
'Russian theme' 'Valse'

생상/베토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35(2 piano) 등 수곡

연주

이경진, 김은정, 장진이, 송화연, 이현정, 정미선, 이설애, 채혜연, 최미경, 방효선, 조용학

입장료 초대

문의 박정현(016-547-2325)

유주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일 수요일 오후 7:30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뒤셀도르프 음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디플롬을 받은 피아니스트 유주선 귀국 독주회.

한국일보 콩쿠르 최우수상, 월간음악 콩쿠르 1위, 부산음협 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 있는 유주선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중국 상하이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를 비롯 독일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올림바장조 작품 78 제24번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제12번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제 11회 한연회 정기연
주회**

20일 목요일 오후 7:30

1998년 부산대학교 한명희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한연회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포레/돌리

프로코피에프/로미오와 줄리엣 등 수곡

· 연주/박윤희, 안미정, 김소형, 김소희, 김일주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앙코르 앙상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I Love Mozart' 무대와 보통의 합창연주회에서 앙콜 곡으로 불러질 수 있는 재미난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Mozart/오페라 '마술피리' 중 '난 알아요', 오페라 '돈 죠반니' 중 '그녀의 행복이야말로 나의 소원'

마르트니/사랑의 기쁨 등 수곡

출연

유수정, 남순천, 기미현, 최선희(이상 소프라노), 김윤희, 박진희(이상 알토), 강종철, 김웅태(이상 테너), 최기호, 오승중, 서관수(이상 베이스)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I SOLISTI 합창단 창단 연주회

나눔의 음악회

22일 토요일 오후 7:30

새롭게 창단되는 I SOLISTI 합창단이 들려주는 나눔의 음악회로 주옥같은 성가 합창곡과 흑인영가를 혼성합창과 여성·남성합창, 독창으로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출연

이 솔리스트 합창단, 안민, 소프라노 이경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 솔리스트(010-3038-7191)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31회 정기연주회

24일-25일 월-화요일 오후 7:30

2006년 피아니스트 김복수를 회장으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31회 정기연주회.

■ 제 1일 24일(월) 솔로연주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27 제 1번

리스트/베네치아와 나폴리

슈만/빈사육제의 어릿광대 작품 26 등 수곡
· 연주/서상혜, 김은정, 이수연, 김은희, 정은

■ 제 2일 25일(화) 듀오연주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와 푸가 K.V.448

라벨/스페인 광시곡 등 수곡

연주

김규도, 김민정, 공소현, 김미연, 김진희, 김문주, 박정운, 하서경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서숙지(018-563-669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국광파민족악단, 중국 동방교향악단 예술총감독,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팽가봉의 객원지휘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박범훈/얼후를 위한 협주곡 '쫄' 등 수곡

· 객원지휘/팽가봉 · 협연/왕영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한국작곡가들과 함께 하는 우리 성가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하고 현재 부산콘서트와이어 단원, 부산스트링스

리틀와이어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형태의 객원지휘로 젊은 작곡가들의 창작 성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아름다운 성가/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이현철 편곡), 주께 영광(박지훈)

박정규/날 좀 보소, 엄마야 누나야

이현철/시편모음 등 수곡

· 객원지휘/최형태

· 지도/노금선, 김양자 · 반주/이영옥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피아니스트 김유진 독주회

29일 토요일 오후 7:30



계명대학교,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피아노 트리오 Arcobaleno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유진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프랑스 모음곡 제 5번 사장조

라흐마니노프/2 프렐류드 작품 23 제 6번 내림마장조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김유진(019-322-2167)

제 21 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5월 1일-3일 월-수요일 오후 7:30

■ 1일(월) 구미정 피아노 독주회

서울대학교, 미시간대학, 뉴욕시립대에서 음악수업을 한 구미정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내림 나장조 K.333

쇼팽/발라드 제 1번 사단조 작품 23, 제 2

번 바장조 작품 38, 제 3번 내림가장조 작품 47 등 수곡

■ 2일(화) '현대 작곡자의 밤'

Piet Swerts/Galop

윤이상/Interludium A

· 연주/서심미 & 최정순, 김복수, 황정미, 장진이, 안경수

■ 3일(수) 'Solo & Duo'

리스트/발라드 2번

베베른/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작품 27

· 연주/육순진, 김은희, 조혜영, 박현정, 김혜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소영(011-9336-1679)

소극장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자갈치 등글어진다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1일-2일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뇌성마비 장애인 수길이와 정신지체 장애인 종수가 복지시설을 떠나 그룹홈에서 살아가며 겪는 삶의 경험을 그린 작품.

· 작/공동창작 · 연출/황해순

출연

김평삼, 홍순연, 전성호, 이상우, 손재서, 이해영, 최익덕, 류성호, 서지연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자갈치(515-7314)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현대무용단 자유 2st HUM..HUM..Project - Flower

6일-7일 목-금요일 오후 7:30

안무자의 정체성과 나아가 현실 속에서의 버티기를 춤으로 풀어보기 위한 이번 무대는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눈물이 되기도 하는 꽃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춤으로 담아냈다.

· 안무/문은아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현대무용단 자유(510-2956)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마임극단 세진 하루

8일-10일 토요일 오후 6: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오후 7:30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마임리스트 김세진이 그만의 젊은 고민과 상상력의 장을 연극의 한 장르인 마임으로 구체화해서 관객들 앞에 선보인다.

프로그램

유쾌한씨의 하루, 잔인한 하루 1, 술먹는 하루, 잔인한 하루 2, 맹인 검객의 하루 등 · 작, 연출/김세진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마임극단 세진(412-1108)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교육극단 이야기 한 · 중합동공연

그림자극 청아청아 심청아

13일-16일 목-금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그림자극의 원류라 할 정도로 깊은 전통과 함께 화려한 색채, 섬세한 그림자 연기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그림자극 기법과 우리나라의 심청전이 만나 새롭게 창작된 그림자극 '청아 청아 심청아'.

· 각색/박현형 · 연출/박현형, 양명충

출연

박현형, 권미영, 김홍식, 남혜진, 이주은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교육극단이야기(253-7376)

메조소프라노 김효순 독창회

25일 화요일 오후 7:30



최근 클래식음악을 공부한 정통 메조소프라노로는 드물게 흑인영가를 담은 음반을 출반한 김효순 교수가 흑인영가 특유의 진지한 영혼의 감정을 훈련되고 세련된 서양발성에 담아 들려준다.

프로그램

예수님과 아시네, 거기 너 있었는가, 울리어나 하프를, 여호수아 성을 쳤네, 복음 열차,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예비해 주소서 등 · 음악/크로스노트

입장료 초대

문의 김효순(011-237-4174)

고은경, 금찬이 피아노 듀오연주회

28일 금요일 오후 7:30



스승과 제자, 독우회 회원으로 음악적 교류를 가져온 고은경과 금찬이가 마련하는 첫 듀오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소타타 KV 521

슈베르트/론도 D. 608, 알레그로 라장조 D. 947 '인생의 폭풍우'

입장료 초대

문의 금찬이(016-850-6424)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가람아트홀(626-6664)
가마골소극장(245-0042)
가톨릭센터(462-187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국도아트홀(247-4242)
금정문화회관(519-5651)
글로벌아트홀(505-5995)
놀이아트홀(631-0660)
동래문화회관(550-4481)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부산민주공원(462-1016)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부산시민회관(630-52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소극장 너른(622-3572)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엑터스소극장(611-6616)
열린소극장(555-5025)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추리문학관(743-0480)
프랑스문화원(465-0306)
40계단문화관(600-4041)
KBS 부산홀(620-7100)
MBC아트홀(760-1000)
SH공간소극장(611-8518)

(※ 가나다순)

음 악

강은일의 해금 플러스

2일 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대극장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음악과의 접목을 통해 크로스오버 음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해금주자 강은일과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으로 있는 마

임이스트 유진규, 손인영 무용단이 함께하는 해금과 춤의 만남.

입장료 초대

문의 시민회관(630-5200)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5일 숙음아르떼와 함께하는 작악회 작곡발표회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대 출신 연주자들의 모임인 숙음아르떼의 연주로 들려주는 작악회 작곡발표회.

■ 12일 배지원 피아노 독주회

오스트리아 린쯔 브룩크너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원장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배지원 독주회.

■ 19일 테너 이은민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독일 프라운호퍼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성악아카데미,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는 테너 이은민 독창회.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 피아노/정희경

■ 26일 강영화 작곡발표회

이화여대 작곡과 및 동대학원, 미국 조지아주립대,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작곡가 강영화는 동아음악콩쿠르 입

상, 대한민국 연극제 및 국제연극제 극음악작곡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음악회

6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조영창(첼로), 배익환(바이올린), 마티아스 북홀츠(비올라), 미치노리 분야(더블베이스) 등이 활동하고 있는 화음챔버오케스트라는 1996년 창단이후 연간 3회의 정기연주회와 해외연주회를 통해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슈베르트/현악 4중주 라단조 '죽음과 소녀'

입장료 초대

문의 시민회관(630-5200)

주창근 귀국 작곡발표회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스위스 바젤음대를 졸업한 작곡가 주창근은 그동안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 바르샤바 현대음악제, 다름슈타트 여름음악제 등에 참가해왔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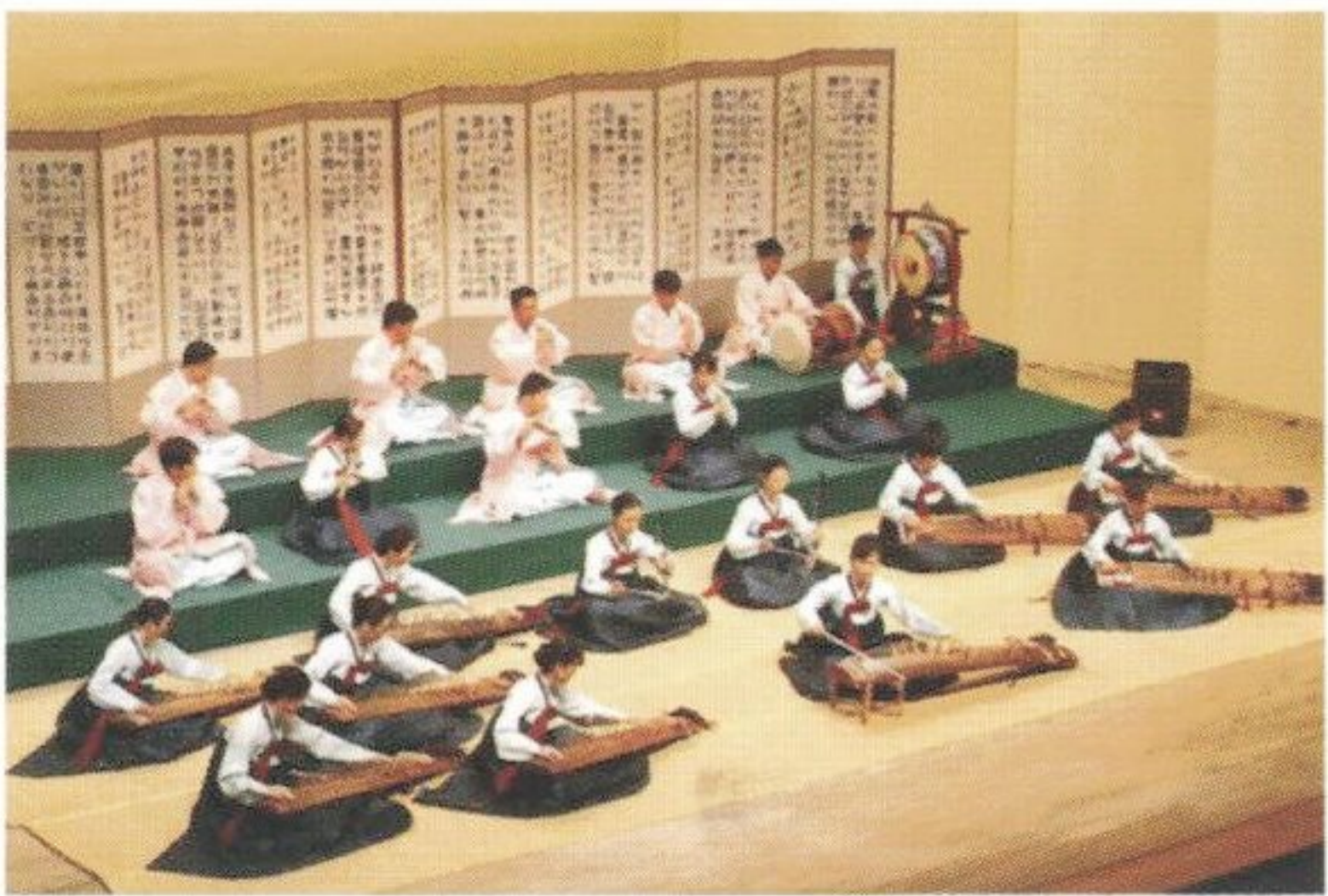
메조소프라노와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가
곡 '가을의 고독', 첼로와 라이브 일렉트로
닉을 위한 '길II', 타악기 솔로주자와 라이
브 일렉트로닉을 위한 '새타령'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교사국악회 그루터기 제 4회 정기연주회

국악향기 풀~풀 임의 향기 그득

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전통음악의 보존과 전승에 관심을 가진 교
사들로 구성된 교사국악회 그루터기의 4번
째 정기연주회로,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그
루터기 고문이자 지도교수인故 이두원 부산
교육대학교 교수를 기리는 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관현악 합주 '평조회상' 중 '상령산', 가야
금중주 '침향무', 단소독주 '청성곡', 창작
국악관현악 '아리랑 연곡' 등 수곡

입장료 무료
문의 김정주(017-569-5771)

부산 멜로스 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8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2년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창단된 이
래 정기연주회를 비롯 가족음악회, 좋은강안
병원 초청연주회 등에 서운 부산 멜로스 오
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교향곡 제 8번 나단조 D.759
피아졸라(편곡/정흥기)/리베라탱고



앤더슨/요술시계 등 수곡
· 지휘/정흥기
· 협연/박훈(테너), 강동환(플룻)

입장료 무료
문의 박섫별(010-6472-5638)

이혜영 가야금 독주회

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국대학교 국악
과를 졸업하고 현
재 동국대학교 문
화예술대학원에 재
학 중인 이혜영이
석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마련한 졸
업연주회.

프로그램
숲, 춘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강마을, 민
요 '탐돌이' 주제에 의한 25현 가야금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이혜영(011-9309-7097)

나수련 피아노 독주회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계명대학교 피아
노과 및 동대학원,
독일 뮌스터 국립
음대,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
고 현재 계명대학
교 초빙교수로 있
는 피아니스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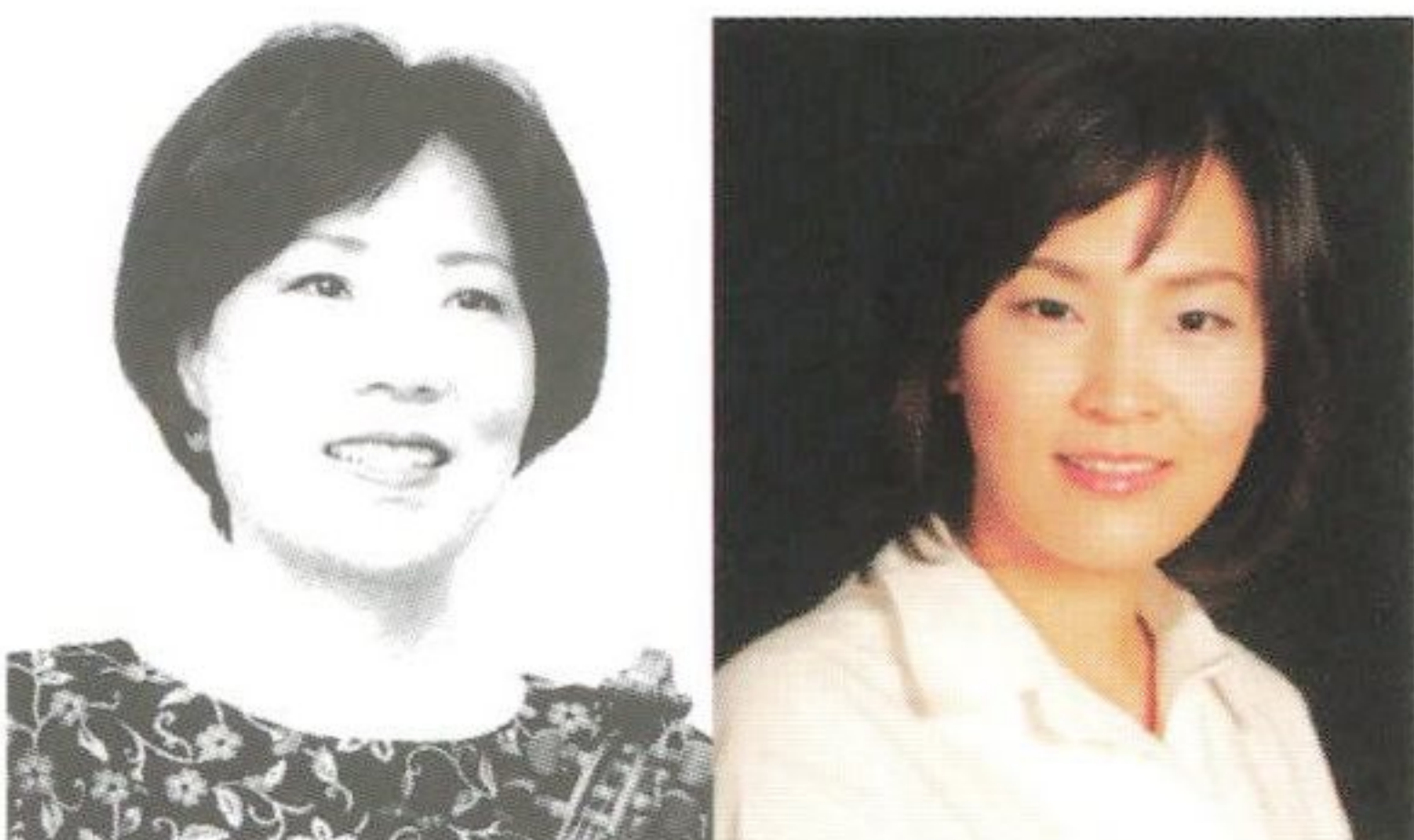
수련 독주회.
프로그램

쇼팽/녹턴 작품 27 제 2번, 스펀크초 작품
20 제 1번, 스펀크초 작품 54 제 4
번, 24 프렐류드 작품 28

입장료 무료
문의 A.M 예술기획(623-0684)

부산신포니에타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김영희 김은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
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의 수준높은 연주를 들
려주고 있는 부산신포니에타가 창단 20주년
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라장조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호프마이스터/비올라 콘체르토 라장조
· 리더/김영희(부산대학교 교수)
· 협연/김은진(비올라)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문의 김영희(011-9519-0448)

금샘국악단 창단연주회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국악연주인
들로 결성된 금샘국악단 창단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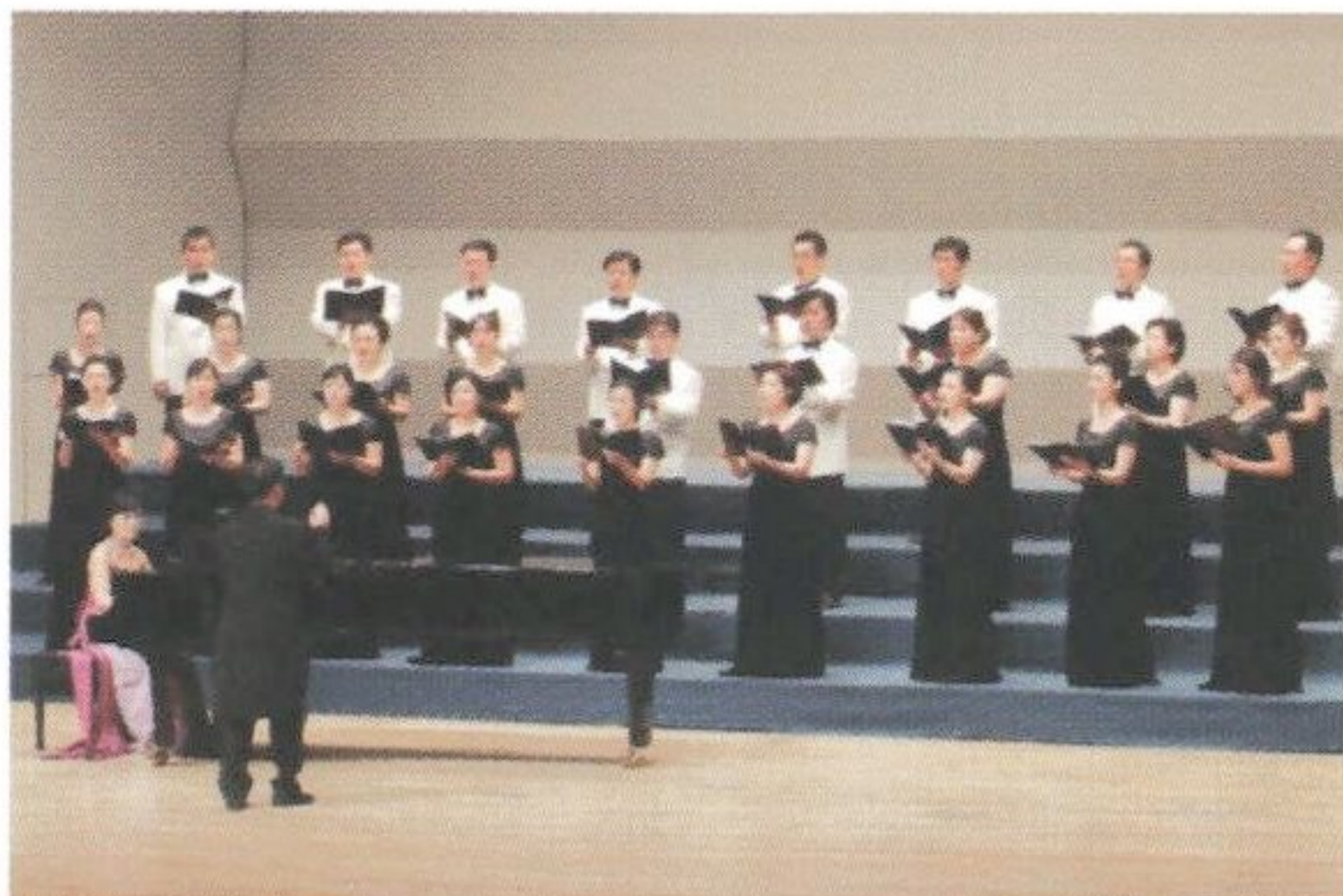
프로그램
이준호/국악관현악 '판'
김희조(편곡)/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사랑가'
양반언/제주의 왕자, 프론티어 등 수곡
· 지휘/이영우(상임지휘자)
· 협연/진형준(태평소)

입장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강윤정(016-842-4835)

소년소녀 가장돋기를 위한

제 16회 글로리콰이어 정기연주회

1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1982년 CBS 성인합창단으로 첫 발을 내딛은 글로리콰이어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부산합창제, MBC목요음악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등 많은 무대에 서왔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강호진(019-380-9991)

한낮의 휴(休) 콘서트

18일 화요일 오전 11:00
시민회관 대극장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소프라노 최훈녀, 테너 이은민, 바리톤 장은익, 박대용이 봄과 사랑을 주제로 한 성악곡과 흥겨운 왈츠, 영화음악 등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바리톤 이창룡 독창회

- 프랑스 가곡의 밤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이창룡 독창회.

그동안 프랑스 작곡가 포레를 비롯 슈베르트, 브람스 등 한 작곡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온 이창룡은 이번 무대에서 포레, 뒤파르크, 라벨 등 프랑스 작곡가의 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포레/무덤에서, 감옥, 이 세상에
뒤파르크/피딜레, 여로에의 초대, 황홀
라벨/월시네 공주에 끌리는 돈키호테, 낭만적 노래 등 수곡

· 피아노/차미소란(동아대학교 교수)

입장료 초대

문의 이창룡(240-2827, 2853)

피아니스트 최희연 순회 공연 2006

19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조니, 비오티, 윌리엄 카펠 등 유명 국제콩쿠르 입상으로 국제무대에 두각을 나타낸 서울대학교 최희연 교수의 피아노 연주회.

프로그램

드뷔시/전주곡

베토벤/발트슈타인

쇼팽/야상곡 작품 48-1 다단조 등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5,000원

문의 코리아트 엔터테인먼트

(02-3775-3880)

천은화 귀국 오보에 독주회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중앙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최고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 차석으로 있는 오보에리스트 천은화 귀

국 독주회.

프로그램

마르티누/Concerto Pour Hautbois

크루셀/디베르티멘토 다장조 작품 9

이본/잉글리쉬혼을 위한 소나타 바장조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정문정 피아노 독주회

2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루스벨트대학(석사), 드폴대학교 최고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정문정은 전미교수협의회(MTNA) 콩쿠르,

루스벨트대학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바흐-부조니/샤콘느 라단조

프로코피예프/소나타 제 3번 가단조

하이든/소나타 내림마장조 Hob XVI

입장료 초대

문의 정문정(016-853-8755)

글로벌아트홀 기획공연

한낮의 음악회

24일 월요일 오전 11:30
글로벌아트홀



백사론

이지선

저녁시간을 내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글로벌아트홀에서 마련한 한낮의 음악회.

수준높은 연주무대와 더불어 아트홀 내 전시작품 감상, 깔끔한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특별한 무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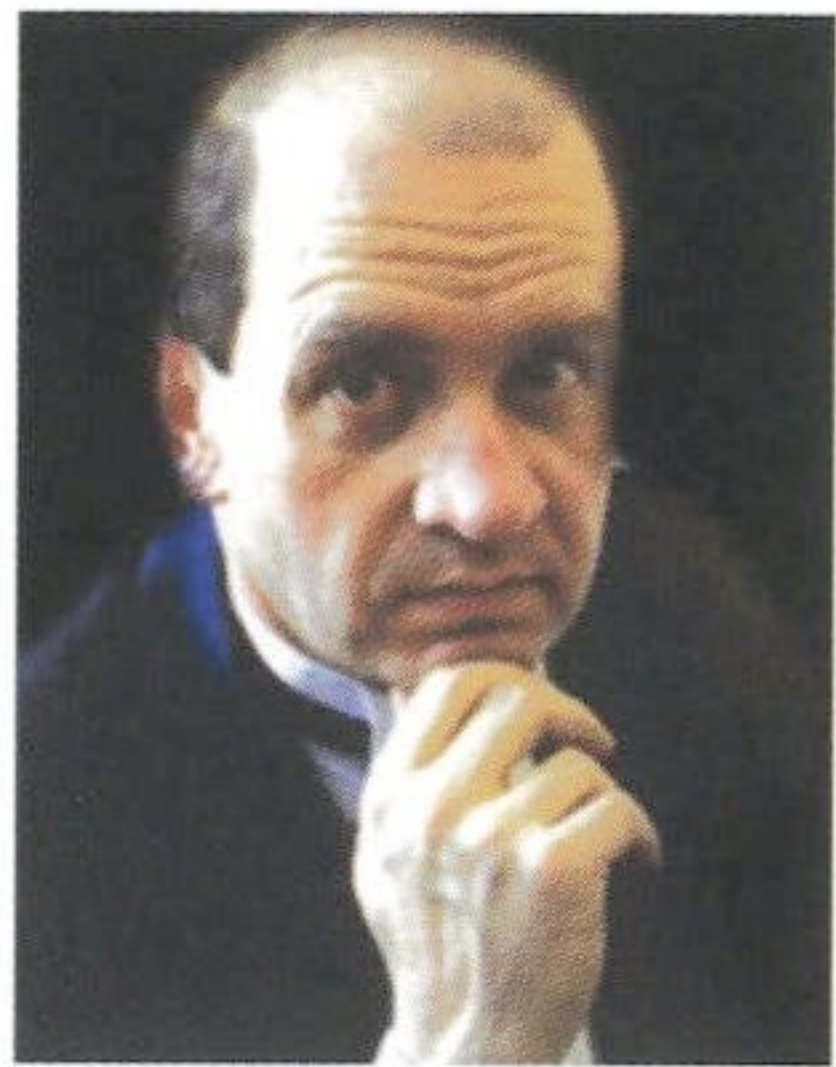
· 연주/백사론(바이올린), 임현아(첼로), 이
지선(피아노)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
기회원 20% 할인)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세르게이 두가체프 초청 피아노 독주회

25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러시아 우파 예
술학교와 모스크바
콘서바토리를 졸업
하고 현재 우파 예
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두가체프
는 러시아 전국 피

아노 콩쿠르, 비엔나 국제 베토벤 콩쿠르에
서 1위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판타지 라단조 KV 397

쇼팽/녹턴 내림라장조 작품 27 제 2번

라흐마니노프/소나타 제 2번 작품 36 등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중앙음악신문(645-6828)

제 6회 베이스 손욱 독창회

2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젊은 성악가들의
모임인 아지무스와
아지무스 오페라단
을 이끌고 있는 베
이스 손욱의 6번
째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베이스
아리아와 2중창, 한국가곡과 유명 뮤지컬
넘버곡 등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성현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손욱(011-9520-4649)

정재윤 첼로 독주회

2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독
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트로싱
엔 국립음대를 졸
업하고 현재 서울
바로크합주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정

재윤 독주회.

프로그램

윤이상/칸타빌레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 3번 가장조 작품 69

브람스/첼로 소나타 제 1번 마단조 작품 38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제 4회 매일 클래식 스페인의 향기

29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스페인의 젊은 피아니스트 다빗 고메스를
초청, 정열적인 피아노연주와 더불어 기타와
현의 화려한 앙상블 등 스페인의 정취를 느
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출연/김화림(바이올린), 다빗 고메스(피아
노), 김정현(바이올린), 박성희(비올
라), 지진경(첼로), 서정실(기타)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예술기획 프로인트(521-5729)

연극

2006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사계 뮤지컬 결혼

3월 15일(수)-4월 3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
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빈털터리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모든
물건을 빌려 여자를 초대하지만 제한된 짧은
시간내에 그 빌린 물건들을 돌려줘야 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결혼의 궁극적 방정

식을 풀어가는 작품.

· 작/이강백 · 연출/김만중

· 출연/구원모, 권순요, 황자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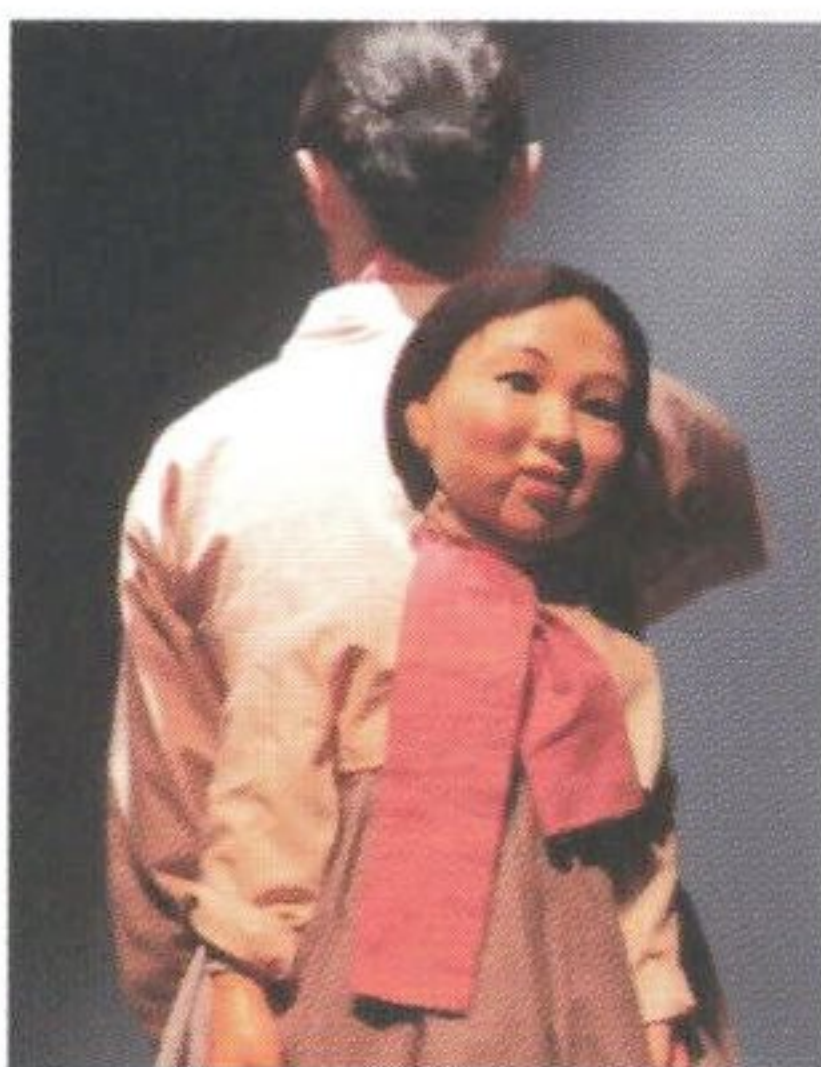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11-8518)

가마골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시
리즈 I

바보각시

3월 17일(금)-4월 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
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1993년 초연당
시 파격적인 연극
언어와 시적 구성
으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현대인
의 모습을 통해 사
랑의 본질을 표현
한 수작으로 평가

받은 '바보각시'.

· 작, 연출/이윤택(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연습감독, 인형제작/정동숙

· 출연/이윤주, 문원령, 김소희, 이승현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권철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3월 21일(화)-5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놀이소극장



노벨문학상을 수
상한 이탈리아 극
작가 다리오 포가
중국 여행길에서
만난 장터 연극을
즉흥 희극으로 옮
긴 작품을 우리의
근현대사로 배경을

옮겨 권철의 모노드라마로 새롭게 선보인다.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놀원소극장(631-0660)

극단 열린무대 불면증

1일(토)-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잠을 자지 못하는 주인공과 그를 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의문의 존재를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묻는 작품.

· 작/김도원 · 연출/김근수

· 출연/배진만, 강원재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2006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남산놀이마당 Shaman

1일-2일 토-일요일 오후 6:00,
3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두려운 존재로 인식된 '샤먼'을 우리와 같은 보통 이웃으로 해석한 타악퍼포먼스.

· 작, 연출/설영성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남산놀이마당(516-4434)

2006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도깨비 꿈에

5일 수요일 오후 7:30, 6일 목요일
오후 4: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꿈속에서 겪은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 삶의 희망을 그린 작품.

· 작, 연출/김익현

· 출연/백정임, 이윤숙, 안소영, 차일환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도깨비(722-4231)

2006 제 24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액터스 강릉시장

8일 토요일 오후 7:30, 9일 일요일
오후 4: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이산가족을 통한 가족의 참의미와 삶의 아리러니를 담은 작품으로, 원작인 방산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장소와 배경을 옮겨 암울했으나 따뜻했던 1970년대와 현재의 부산을 배경으로 부산의 토속적인 풍광을 그려냈다.

· 작/이철우 · 연출/이종근

· 출연/호민, 변미선, 박동민, 박지연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액터스(611-3703)

2006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자유바다 안녕! 갈매기

11일-13일 화-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연극을 준비하는 아들과 유명 여배우인 엄마,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주변인물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벌어지는 애증과 갈등을 그린 작품.

· 각색, 연출/정경환

· 출연/김상훈, 강혜란, 엄지영, 권혁철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자유바다(622-3572)

2006 지킬앤하이드 부산공연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8:00,
15일 토요일 오후 4:00, 8:00,
16일 일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인간본성의 이중성을 다룬 진지한 주제에 매혹적인 로맨스를 더해 '브로드웨이 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찬사를 받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006년 무대.

· 출연/류정한, 이해경, 김선영, 이영미 외

입장료 R석 90,000원 · S석 70,000원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오디뮤지컬컴퍼니(1588-5212)

2006 제 24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부두연극단 오프-스테이지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소극장
20일-30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5:00 액터스소극장



연극인의 꿈과 좌절을 그린 시미즈 쿠니오의 '분장실'과 채흠의 '백조의 노래'를 옴니버스식으로 각색한 작품.

· 각색, 연출/이성규

· 출연/최성우, 김수수, 구민주, 이수정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두연극단(611-6616)

극단 가마골 서툰 사람들

4월 18일(화)-5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
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여교사 화이와 서툰 좀도둑 덕배가 펼치는
엉뚱하면서도 유쾌한 로맨스 코메디극.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최윤미, 변진호, 김낙균, 오성태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날 보러와요

29일 토요일 오후 4:00, 7:30
30일 일요일 오후 3:00, 6:30
시민회관 대극장

1996년 초연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연극 '날 보러와요'. 희대의 미제살인사건으
로 남아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각색되
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작, 연출/김광림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
기회원 10% 할인)

문의 엠스톤엔터테인먼트(1588-8477)

무 용

제 44회 한국의 명인명 무전

5일(수), 12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한국 전통의 예술혼을 이끌어온 예능보유



자를 비롯 원로와
중진, 신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통
의 흥과 멋을 보여
주는 한국의 명인
명무전.

■ 5일

한영애(기원무),
허순선(홍애수건춤), 장인숙(지전춤), 홍기
태(훈령무), 변지연(원향지무), 김미숙(승
무), 김윤옥(살풀이춤), 정명자(진도북춤),
박경량(영남교방청춤)

■ 12일

이길주(산조무), 김덕명(양산사찰학춤), 권
명화(대구살풀이춤), 송준영(훈령무), 김진
홍(동래한량춤), 박재희(태평무), 엄옥자(원
향살풀이춤), 채상묵(승무)

입장료 S석 30,000원 · A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S석에 한
해 10,000원 할인)

문의 동국예술기획(011-223-0022)

안성수 픽업그룹 선택

5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줄리어드 무용
원을 졸업하고
Martha Hill상,
Bonnie Bird
북아메리카 안무
가상 등을 수상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안성수 픽업그룹

의 창작무용 '선택'.

이번 무대에서는 흙에서 비롯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선택' 과
라벨의 인상주의 음악을 몸으로 연주한 '앵
콜 볼레로 2005' 두 작품을 선보인다.

입장료 초대

문의 시민회관(630-5200)

정무연무용단 대공연 대중과 함께하는 열린무대

20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1950년대 우리나라 춤꾼으로는 최초로 스
페인 민속무용을 국내에 소개한 원로무용인
정무연이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열린무대.

프로그램

마을수호신, 팔도강산, 남국의 정서, 멕시코
민속춤, 라틴송 등

입장료 무료

문의 정무연(819-8376)

영 화

시네마테크 부산 월드 시네마III

3월 24일(금)-4월 16일(일)
오전 11:30, 오후 2:00, 4:30,
7:00(상영작에 따라 변동있음, 월요일
휴관) 시네마테크 부산

루치노 비스콘티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비
롯 알랭 레네 '지난해 마리앵바드에서', 찰
리 채플린 '키드', 마틴 스콜세지 '성난
황소', 허우 샤오시엔 '쿵푸이에서 온 소년'
등 21편의 작품이 상영되는 월드시네마.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아 동 극

2006 봄 어린이 연극축제 토끼의 이솝여행기

3월 23일(목)-4월 16일(일) 평일
오후 4:00, 주말 오후 1:00,
3:00(월-수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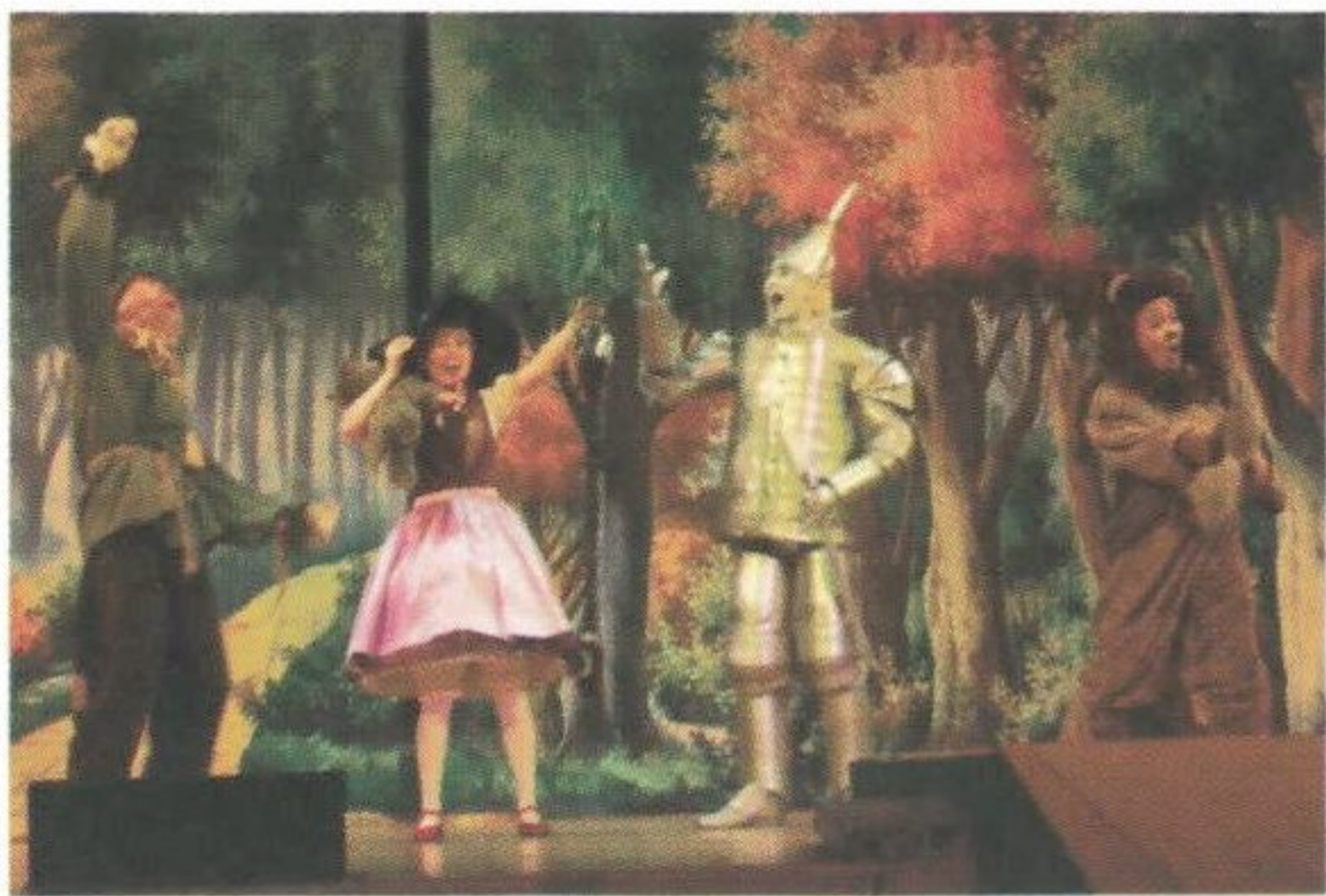
전래동화 '자라와 토끼'에 등장하는 토끼
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동화속 주인공들을 만
나면서 겪는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이솝우화
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21-8518)

2006 환타지 오즈

3월 31일 금요일 오후 3:00, 1일-
2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오즈의 마법사’를 환타지적 요소와 신나는 라이브음악으로 재구성,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가족뮤지컬.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공연기획 나무(02-2632-5578)

뮤지컬 보롱보롱 보르르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4:00 MBC 아트홀

EBS 교육방송에서 3D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어 최고의 인기를 얻은 ‘보롱보롱 보르르’를 각색한 캐릭터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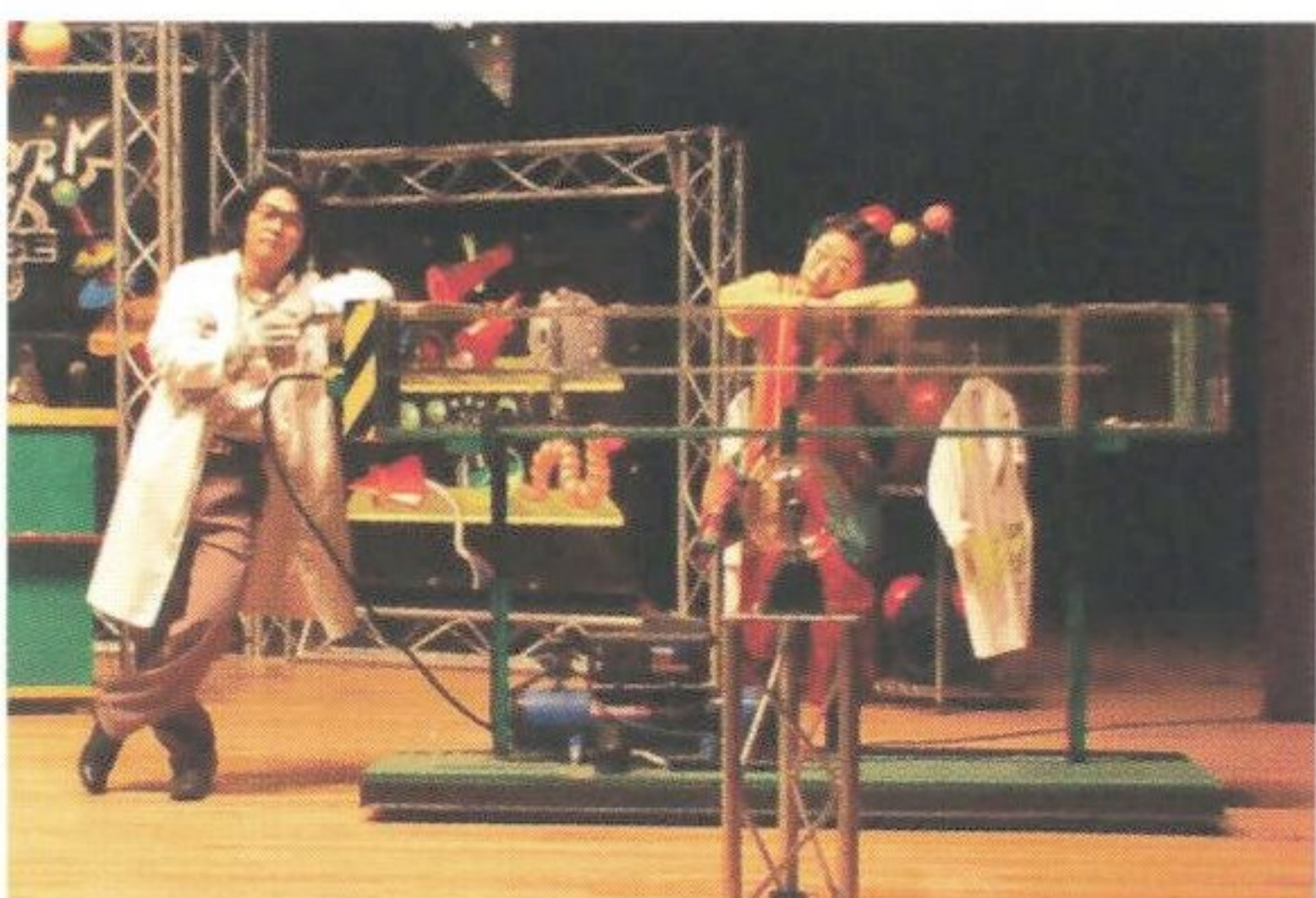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Y-MIX엔터테인먼트(757-9876)

2006 봄 어린이 연극축제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세요

21일 금요일 오후 4:00, 22일 토요일 오후 2:00, 4:00, 23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가 몰랐던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을 마술과 연기, 실험, 춤과 노래로 풀어보는 어린이 체험 과학뮤지컬.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21-8518)

배추공주와 깍두기왕자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대극장

백두호랑이, 도깨비, 천하대장군 등 토속적인 캐릭터들이 출연, 사물놀이패 해미르의 흥겨운 공연과 함께 펼쳐지는 마당놀이극.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가족뮤지컬 백조왕자

22일 토요일 오후 2:00, 4:00, 23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사랑과 희생을 그린 안데르센의 동화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입장료 균일 10,000원(예매 7,000원)

문의 열린극단 소꿉(011-417-3448)

제 2회 부산아동극페스티벌

4월 26일(수)-5월 4일(일) 평일 오전 10:20, 11:30, 주말 오후 2:00,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과 동래읍성 체험, 교구체험전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펼쳐지는 부산아동극페스티벌.

· 4/26일(목)-4/29일(토) 장화신은 고양이

· 4/30일(일)-5/4일(수) 토끼야 용궁가자

입장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인형극단 까치(633-2114)

뮤지컬 파워레인저SPD

29일 토요일 오후 2:00, 4:30, 3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 부산홀

우주경찰 파워레인저와 악당 아레나이저의 지구를 둘러싼 한판 승부가 최첨단의 특수효과로 펼쳐지는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입장료 R석 33,000원 · S석 22,000원
(4/22일까지 예약자에 한해 5,000원 할인)

문의 좋은날음악기획(621-6556)

뮤지컬 신데렐라 스토리

29일-30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마음씨 못된 새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다가 요정할머니의 도움으로 왕자와 결혼하게되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입장료 균일 8,000원

문의 프렌즈(032-505-7232)

콘서트

김장훈 전국투어 콘서트

5일(수)-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6: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데우스(1588-9088)

이문세 독창회Ⅳ 앵콜

15일 토요일 오후 7:00, 16일 일요일 오후 5:0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좋은콘서트(1544-5057)

송대관 태진아 라이벌 콘서트

16일 일요일 오후 3:00, 6:30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볼룸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와우엔터테인먼트(1588-6466)

클래지콰이 부산 콘서트

16일 일요일 오후 6: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문의 Y-MIX 엔터테인먼트(757-9876)

패닉 부산 콘서트

23일 일요일 오후 5:0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좋은콘서트(1544-5057)

행사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4월 1일(토)~4월 9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일반 4,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
(740-3431~3)

동래온천 학 축제

2일 일요일 오후 3:00
호텔 농심 야외광장 및 대연회장



‘동래온천과 학의 만남’이란 주제로 호텔 농심에서 마련한 문화예술축제.

인간문화재 문장원 선생과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회원들의 동래학춤, 동래야류 공연을 비롯 남사당 춤꾼 권원태 명인의 줄타기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4월 1일~4월 30일까지는 학을 주제로 한 도자기, 사진, 서각 등이 허심청 3층 및 호텔 구름다리에서 전시된다.

문의 호텔 농심(550-2512)

제 6회 광안리 어방축제

8일(토)~10일(월)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

문의 수영구청(610-4061~5)

시올림 제 48회 시낭송회

12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강갑재, 박강우, 이규열, 이근대, 이병구, 이상개, 전다형, 탁영완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2006 부산국제모터쇼

4월 28일(금)~5월 7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미래의 자동차 기술을 선보이는 승용차, 상용차, 특장차, 이륜차, 부품(용품) 등이 다채롭게 전시되는 2006 부산국제모터쇼.

입장료 일반 6,000원 · 청소년 3,000원
문의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3411)

전시

근대를 달리는 철도展

2월 14일(화)~4월 30일(일)

문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부산시립미술관 2006년 첫 기획전

부산의 미술가들 2

2월 28일(화)~4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소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2006년 첫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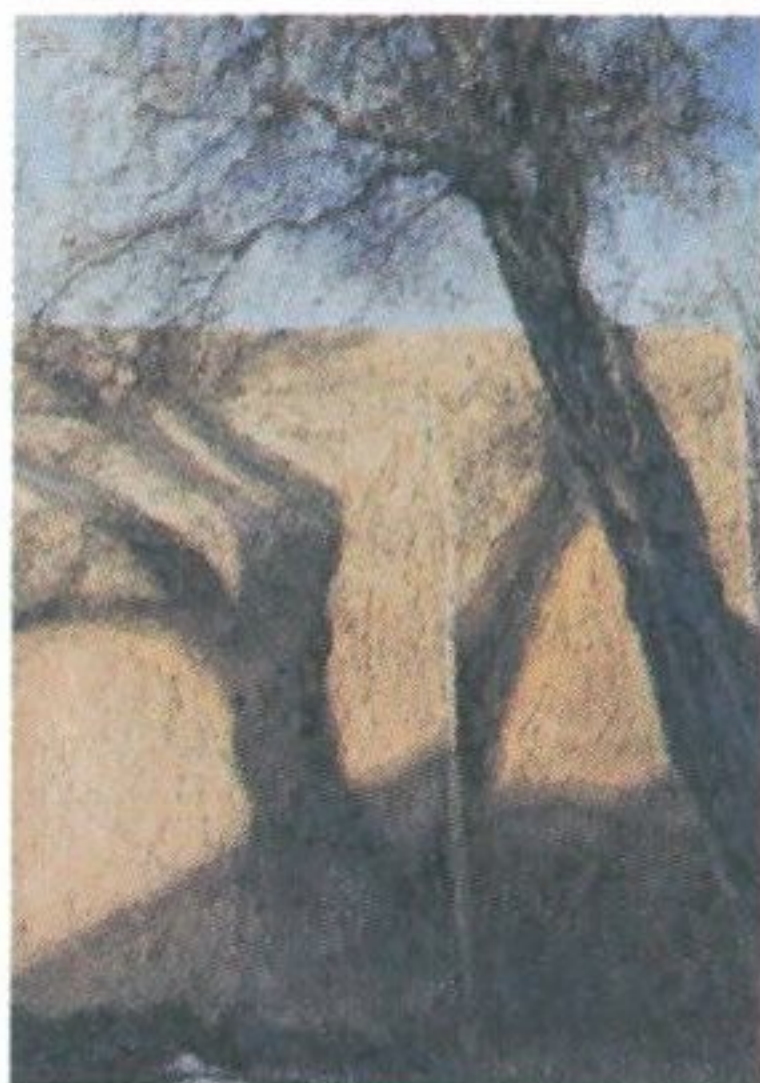
근대에 현대의 시간대기

3월 4일(토)~4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오치균 초대전

3월 15일(수)~4월 17일(월)



사막 한가운데 자리잡은 미국의 향량한 도시 산타페의 하늘과 탄가루로 뒤덮인 검정색 도시사복을 그린 작가 오치균의 파스텔화 40여점 전시.

문의 도시갤러리(756-3439)

열매전

4월 3일(월)~4월 9일(일)
부산광역시청 제 1전시실

문의 박동명(011-887-4983)

2006 부산판화제

4월 3일(월)~4월 8일(수)
부산광역시청 제 2, 3전시실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박도훈 선묵전

4월 10일(월)~4월 15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1전시실

문의 박도훈(018-760-2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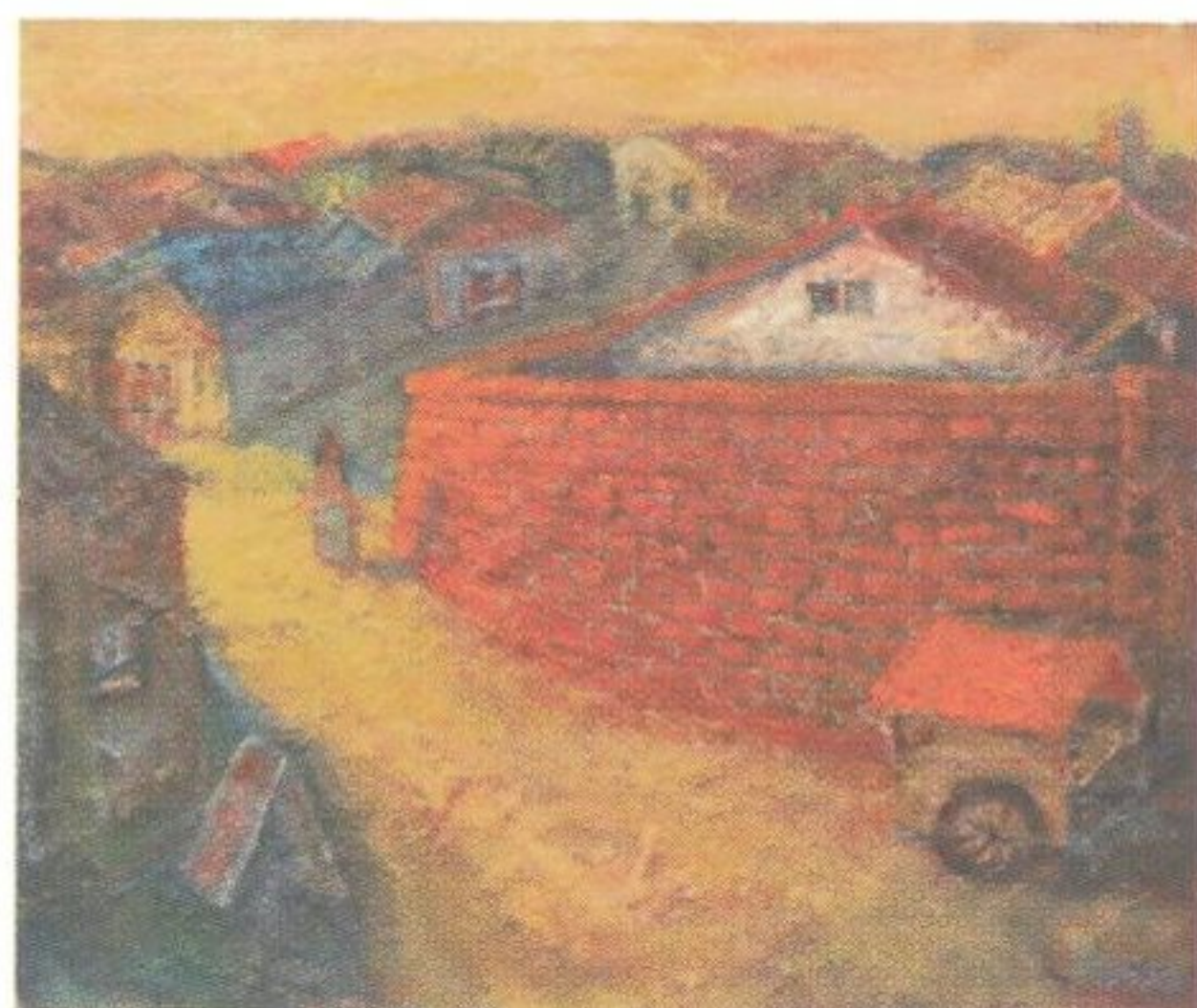
그룹터치 제 3회 정기전

4월 10일(월)~4월 15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2, 3전시실

문의 손락(019-9157-1136)

박병제 초대전

4월 11일(화)~4월 30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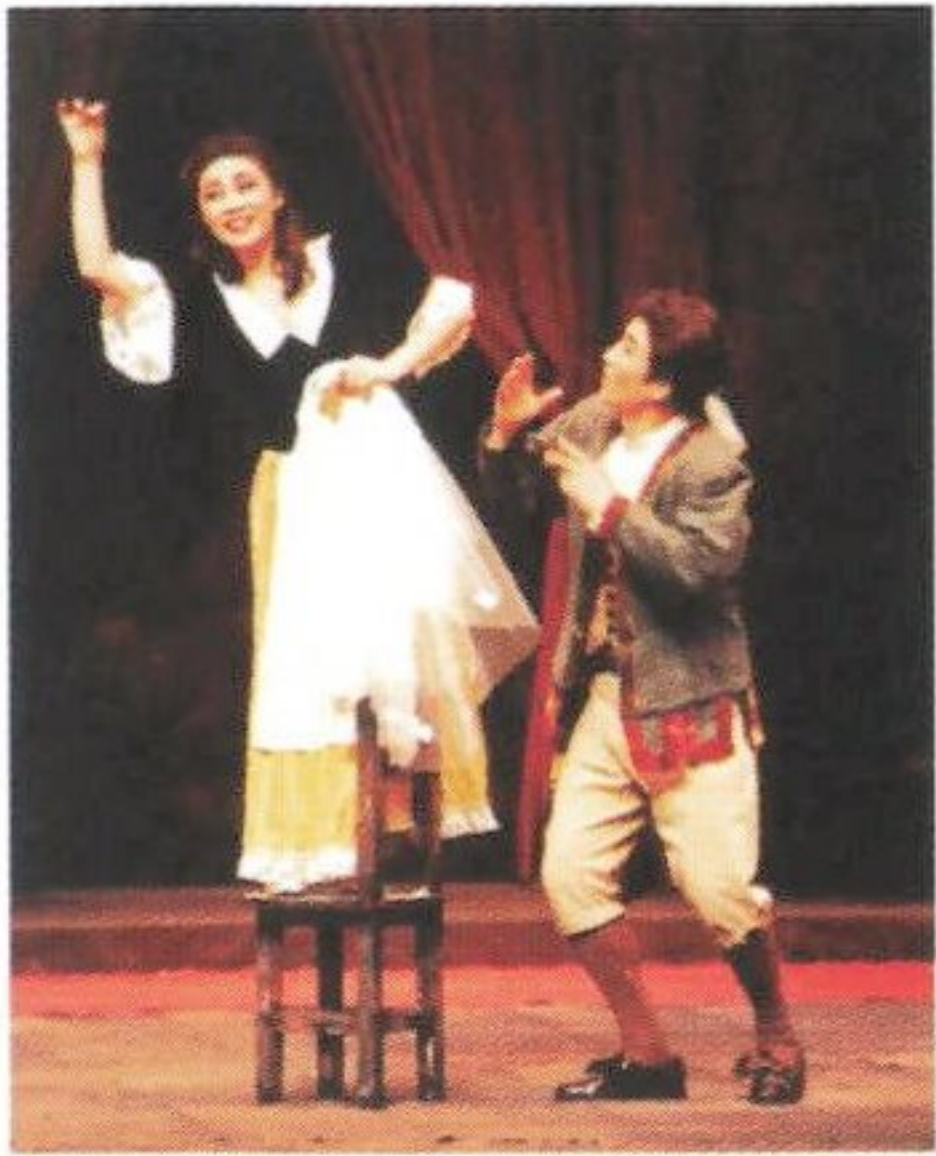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Recommended Performance in April

To 250th Birthday Celebrations for Mozart, the 4th Azimuth Opera Company Subscription, Le Mariage di Figaro

6th-9th, Thur. - Fri. 7:30 pm, Sat. 3:00, 7:30 pm Sun.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Perhaps one of the most popular opera performance in the world is 'Le Mariage di Figaro' by Mozart.

This work is pleasant family opera and appeals many opera fans in the worldwide stages.

Ticket: R 70,000 Won · S 50,000 Won

A 30,000 Won · B 20,000 Won

More Information: 011-9520-4649

2006 Big stage of Uri Chum(Korean traditional dance) by Choi Eun-hee

11th(Tue) 7:30,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As a professor of Kyungsung University and general director of Baegimsae(dance company), she has worked hard to introduce Korean traditional dance.

Program

Tueolim, Taeyangje(The ritual to sun), Tubalgi, Obangshinjangmu, Chunangjeon, Hyangbalmu, Taepyeongmu, Seungmu, Samgomu, Salpulee etc.

Ticket: Adult 10,000 Won · Student 7,000 Won

More Information: 620-4964

2006 Jekyll & Hyde in Busan

13th-14th Thur-Fri 8:00 pm, 15th Sat 4:00 , 8:00 pm, 16th
Sun 3:00, 7:00 pm Busan Citizen Hall Main Theater

This famous musical which treats of duality in human nature, angel and devil, and is added attractive romance is praised as 'the most beautiful thriller since Broadway'.

Ticket: R 90,000 Won · S 70,000 Won · A 50,000 Won

B 30,000 Won

More Information: 1588-5212

Isabelle Vernet & Lee Chill-sung Duo Concert

24th Mon.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sabelle Vernet, the most popular soprano in France and well known tenor in Busan, Lee Chill-sung have a duo concert. Ms. Isabell is loved with not only outstanding singing ability but also passionate and humorous stage manner.

Ticket: All Seat 10,000 Won

More Information: 633-8990

Top Artists in the World – Designed by Busan Cultural Center inviting I MUSICI

26th Wed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world's premier chamber group, I MUSICI has been renowned for their beautiful ensemble since established in 1952. Many of classical fans in Busan look forward to this concert.

Program

Boccherini/Minuetto

Mozart/Rondò (from Eine Kleine Nachtmusik)

Vivaldi/Le Quattro Stagioni etc.

Ticket: VIP 70,000 Won · R 50,000 Won · S 40,000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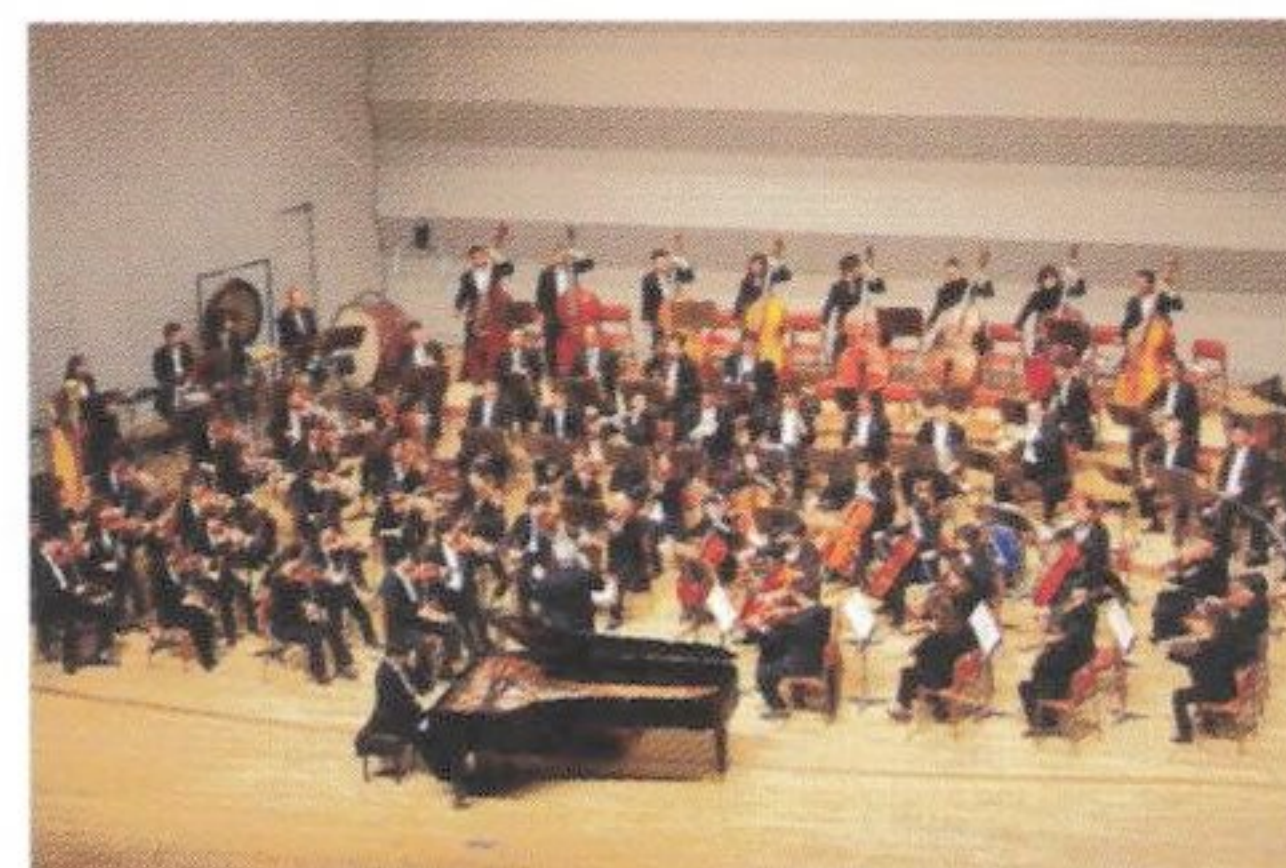
A 30,000 Won

More Information: 607-6047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19th Subscription Concert

To 250th Birthday Celebrations for Mozart

28th 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year is meaningful for classical music fans. To celebrate Mozart's 250th birthday, many performances will be held this year. Als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will

show us special moments.

Program

W.A.Mozart/Symphony No.40 in g minor K.550

W.A.Mozart/Requiem in d minor K.626

· Con/Alexander Anissimov

· Sop/Irina Krikunova · M.Sop/Chu Hee-myung

· Ten/Ha Suk-bae · Bs/Tigran Martirosian

· Chorus/Busan Metropolitan Chorus, Jeonju City Chorus

Ticket: R 10,000 Won · S 7,000 Won · A 5,000 Won

More Information: 607-6070, 607-6101

Paik Hae-sun Piano Recital 'Mom and Me'

29th Sat 7: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As one of the Korean virtuoso, pianist Paik has gained international fame since she won many prizes such as, the 3rd in Chaikovskii concours, silver in Queen Elizabeth concours, the first in William Kapell concours etc.

W.A.Mozart/Sonata in C Major, K.545

R. Kulau/Sonatina

M.Clementi/Sonatina etc.

Ticket: R 50,000 Won · S 40,000 Won · A 30,000 Won

More Information: 747-1536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를 다녀와서

이은희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봄 내음이 활짝 풍기는 화창하고 맑은 날씨에 첫번째로 진행된 테마여행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역사의 고장 경주로 멋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수학여행 다시가기’란 프린트를 보면서 어릴 적 수학여행 때를 더듬어 추억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한 신라의 문화를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컸습니다. 경주는 여러 번 다녀왔었지만 초등학교 수학여행이후 전문 가이드가 같이 동행하여 탐사를 한건 처음이었습니다.

경주박물관에서 설명해주시는 강사님을 통해 에밀레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종 안에 정말 아이가 있었던 걸까’ 하고 궁금했던 의문이 풀리고 여러 유물들에 관한 비화와 설명들을 통해 옛 조상에 대한 경건함과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릉원에서는 산사람과 죽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말을 실감했고 첨성대를 보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안압지의 수려한 풍경은 일상에서 찌든 나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고 4월이 되면 유채꽃과 벚꽃이 만발하여 더욱 아름답다는 경주에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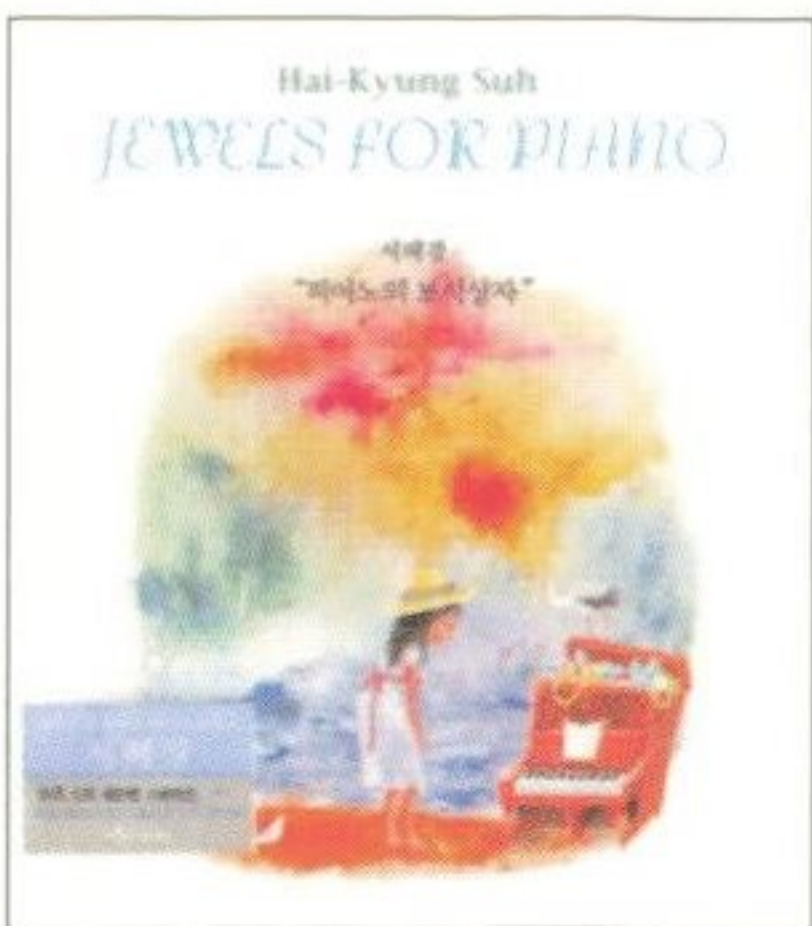
맛있는 점심은 저의 몸무게를 한껏 부풀렸고 상쾌한 공기는 저의 머리 속을 맑게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인연을 맺은 지가 어느새 4년이 되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시민 보고대회 때 제가 소속해 있던 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이 연합으로 아시안게임 주제가인 두리아를 함께 부르면서 부산문화회관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마여행으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구요.

이번에 참가한 팀 중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한껏 자랑하기도 하였고 가족과 아이들과 친구로 짝을 지어서 다정한 모습들을 한껏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같이 짝을 지어서 참석 하다보니 회원들간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끝으로 저희를 초대해주신 파란여행과 재미난 입담으로 몰랐던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해준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일탈을 꿈꾸던 나의 일상에 멋진 추억을 선물해준 부산문화회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혜경 - Jewels for Piano]



보석처럼 영롱한 피아노 소품집

서혜경의 보석 상자에는 여러 세대를 넘어 사랑 받아온 보석과도 같은 피아노 작품들이 가득하다. 이 중에는 처음부터 피아노 독주를 위해 만들어진 곡들도 있지만 오페라 극장이나 콘서트 홀에서 갈채 받던 작품들을 피아노 연주용으로 편곡한 것들도 있다.

놀라운 힘과 역동적인 연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혜경은 피아니스트로서 국제 음악계에 이름을 알린 첫 한국인 중의 한 명이다. 그녀는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극동 지역 투어에서 '머리카락이 설 정도의 놀라운 기교와 함께 도도한 낭만의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샤를 뒤뚜아가 지휘한 피츠버그 심포니와의 협연에서는 '당당한 기품에 화려한 기교, 열정과 아울러 섬세함으로 가득한 연주'라는 등의 찬사를 받으며 그의 거장적인 연주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2005 쇼팽 콩쿠르 본선과 결선 실황-라파우 블레하츠, 임동민&임동혁]



소름이 돋을 만큼 생생한 역사의 현장, 2005 쇼팽 콩쿠르 본선, 결선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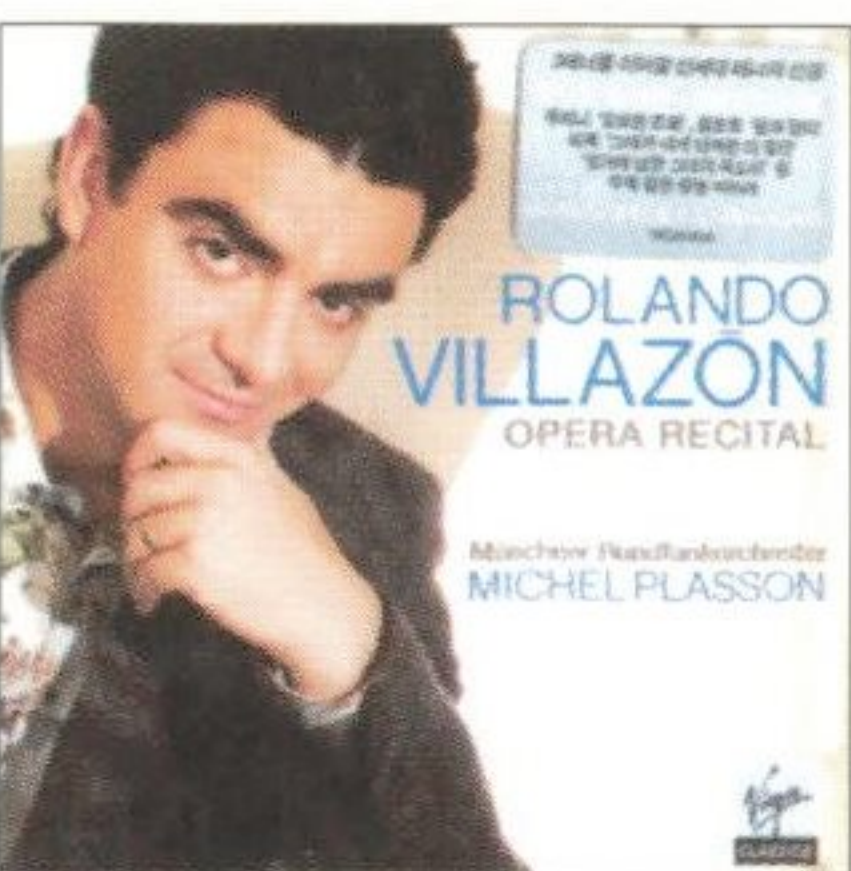
200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라파우 블레하츠와 공동 3위를 차지한 임동민, 임동혁 형제의 2차 본선 중 소나타 연주와 결선의 협주곡 연주 실황을 담은 음반이 발매되었다.

이번 콩쿠르의 우승자인 블레하츠의 연주는 아름다운 약음이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긴다. 작곡가가 살았던 시대를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여 듣는 이를 작품의 내면으로 끌어들이고 쇼팽의 혼을 현재에 부활시킨다. 공동 3위를 차지한 임동민, 임동혁 형제 중 형인 동민의 결선

에서의 연주는 어느 때와 같이 반듯하게, 그리고 깊이 건반을 두드린다. 동생 동혁의 결선에서의 연주도 완전히 반할 수 밖에 없는 솜씨이다.

소리 하나 하나 마다 지니고 있는 음의 표정을 결코 과장되지 않으면서 절제된 감정 속에서 기품 있는 감성을 표출해 내는 블레하츠, 강인하게 건반을 치며 구성감이 큰 음악을 구석구석까지 다부지게 완성시켜가는 타입으로 남성적인 피아니즘을 보여주는 동민, 유연한 음악전달이 뛰어나며 섬세한 표현력과 시원스럽고 화려한 음색을 지닌 동혁. 각기 다른 스타일로 쇼팽을 표현해낸 이 세 명의 피아니스트는 이 중 어느 누가 우승한다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아티스트다.

[롤란도 빌라존 - 오페라 리사이틀]



3테너를 이어갈 신세대 테너의 선봉 롤란도 빌라존

테너 롤란도 빌라존은 눈에는 감정이 사무치고, 목소리는 녹아 내리는 청동과 같다. 이는 곧 테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이 전형적인 목소리가 소화해야 하는 역할에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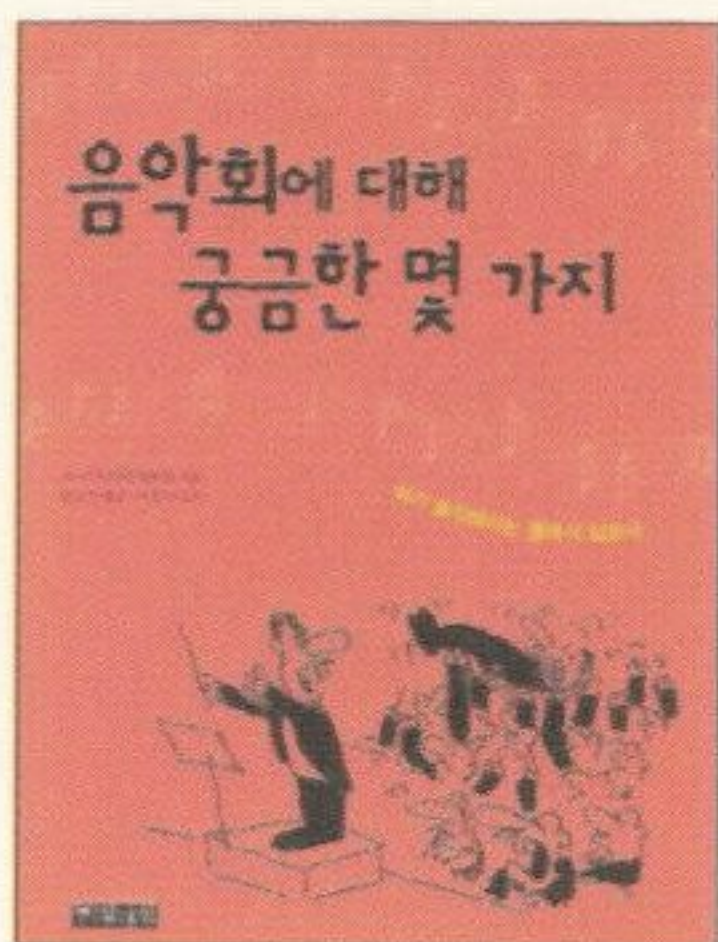
롤란도 빌라존은 결코 말랑말랑하지 않다. 불길과 강렬함, 열정이 함께 깃들여 있다. 돈 카를로, 돈 호세, 베르테르와 같이 다른 가수들이 위험하다고 고민하는 역할들을 이런 젊은 나이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기질과 성량 때문이다. 빌라존은 갈채를 받는 타고난 배우로, 무대 위의 배역에 자신의 족적을 남기며, 음반과 같은 일차원적인 매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등장인물을 창조해낸다. 과거와 현재의 많은 테너 중에서도 빌라존은 특별하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진정한 로맨틱 테너가 어떤 것인지 잊어 왔다. 그러나 이 음반으로 그를 다시 알게 되었다.

- 수록곡/푸치니 <오묘한 조화>, 플로토 <꿈과 같이>, 비제 <그대가 내게 던져준 이 꽃은>, <꽃가에 남은 그대의 목소리> 등 주옥 같은 유명 아리아 수록

■ 비바체클래식 제공

[음악회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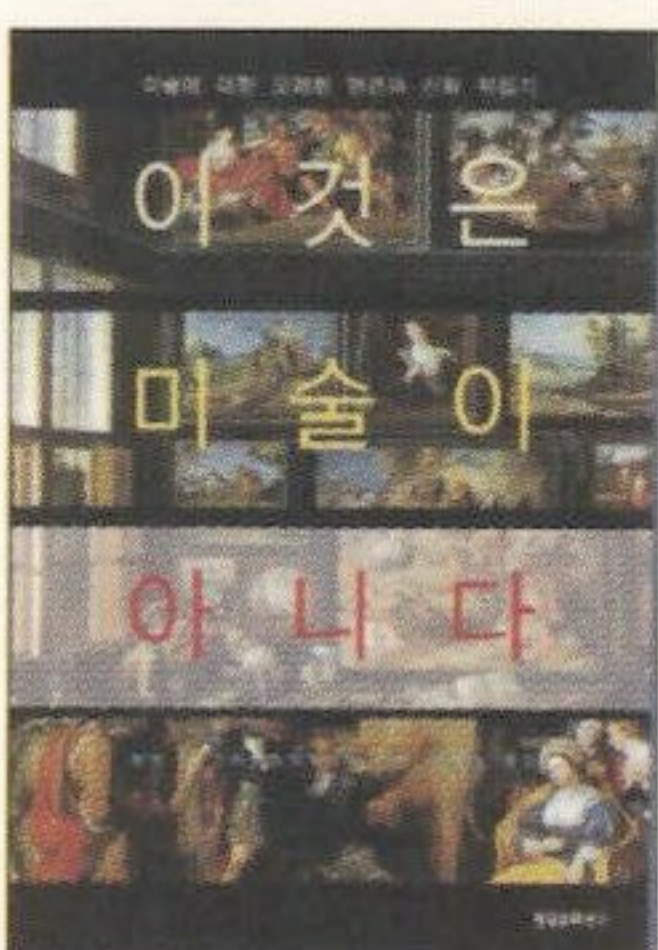
크리스티아네 테빙겔 지음 | 열대림 | 303p | 12,500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회에 대해서 지루하다, 어렵다 등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듣고 자랄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음악회를 낯설고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음악회만 가면 졸릴까? 내가 이상한 걸까?’ ‘공연 팸플릿은 꼭 읽어야 되나? 왜 중간에 박수를 치면 안 되지?’ ‘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무슨 말을 해야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 보았겠지만, 누구도 물어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 책을 한번 펼쳐보자. 1장 〈음악회, 알고 가면 두렵지 않다〉에서는 음악회에서 평소 궁금해 했던 점들과 음악회의 특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다루었다. 2장 〈이것만 알면 당신도 음악가〉 편에서는 합창, 오페라, 연주, 연습과 지휘, 그리고 작곡에 대해, 3장 〈알고 보면 재미있는 음악의 비밀들〉 편은 음악의 은밀한 법칙을 비롯한 음악 이론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 4장 〈클래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선곡집의 장단점과 함께 저자가 직접 고른 추천 음반 정보와 음악 용어에 대한 해설도 부록으로 실었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메리 앤 스타니제프스키 지음 | 현실문화연구 | 352p | 12,800원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장-앙투안 와토의 〈키테라섬의 순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까지. 사람들 대부분이 훌륭한 미술(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해 온 것들이다. 그러나 미국의 미술사가 메리 앤 스타니제프스키는 우리가 지금까지 미술에 대해 알고 있었던 오래된 편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는 미술로 창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 이미지는 단지 로마 교황의 권위와 성스런 의식을 위한 시각적인 은유였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서 이 프레스코화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미술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또한 마찬가지다. 이 5인치짜리 인물상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리하여 이 상을 미술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모두 현대에 와서야 일이다. 이 비너스상은 제작될 당시 단지 일상용품이었을 것이다. 이 조각상을 예술작품이라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인들의 속단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2006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

김남석 외 지음 | 작가 | 228p | 9,500원



그동안 한 해 동안의 좋은 시와 소설을 선정해왔던 도서출판 ‘작가’에서 영화를 선정 소개한다.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영화인, 영화이론가, 영화평론가, 각 분야의 문화 예술 전문가, 출판·편집인으로 구성된 105명의 추천 위원들을 위촉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한 2006년 영화에는 〈왕의 남자〉를 비롯한 한국영화 16편, 〈밀리언 달러 베이비〉 등 외국영화 15편, 〈용서받지 못한 자〉 등의 독립영화 3편이 포함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앤솔러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문화예술운동’의 실천적 자원을 의도하고 있다. 도서출판 ‘작가’의 시도가 동시대 문화의 중요한 흐름과 조우함으로써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노력이 세월과 함께 연륜을 쌓아가 세계영화사에 〈한국영화〉의 뚜렷한 흐름을 남기고 세계영화계를 이끌어가기 기대해본다. 2006년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영화는 〈왕의 남자〉였다.

■ 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의료원과 협약체결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및 가족 입원, 종합검진, MRI 10% 감면—



부산문화회관(관장 조병규)과 부산광역시 의료원(원장 류총일)이 3월 20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3월 2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년간 정기회원들은 물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광역시 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정기회원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입원과 종합검진, MRI

촬영시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문의:부산의료원 원무과(607-2068)

부산문화회관, 오륜정보산업학교와 관학협약 체결



부산문화회관이 보호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3월 23일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최찬)와 관학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찾아가는 예술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립예술단 공연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인 1기를 배웁시다’ 단소특강 개최



‘예술에의 초대’에서 누구나 쉽게 악기를 배워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지상강좌 ‘1인1기를 배웁시다’에서 단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5일 단소 특강을 가졌다.

‘1인 1기를 배웁시다’ 단소 불어보기 필자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수석 채수만씨의 지도로 실시된 이번 단소 특강에서는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단소에 관심을 가진 신청자 20명이 참가, 단소는 물론 우리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항만공사 정기회원 단체 가입



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

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가 직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 직원들이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선별해 단체로 공연 관람을 하고 업무에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체 가입할 경우 가입비가 10% 할인이 되어 예술단 공연을 더욱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 여행

-2차 4월 7일 '김해 가야문화 체험 및 딸기 따기' 진행-



첨성대

지난 3월 10일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프로그램으로 첫 출발한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 여행'이 참가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신규가입자와 기존회원 염서응모자를 추첨, (주)과란여행 협찬으로 실시하는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 여행'은 관광과 문화체험을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기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첫 프로그램 '경주수학여행 다시가기'는 당첨된 회원과 가족 등 36명이 참가, '신라사람들' 송현주 강사의 상

세한 해설을 들으며 경주 신라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4월 7일에는 당첨된 회원과 가족 20쌍이 김해 가야문화와 딸기 따기 체험을 떠날 예정이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4월 당첨자

▶ 4월 7일(금) 가야문화체험 및 딸기따기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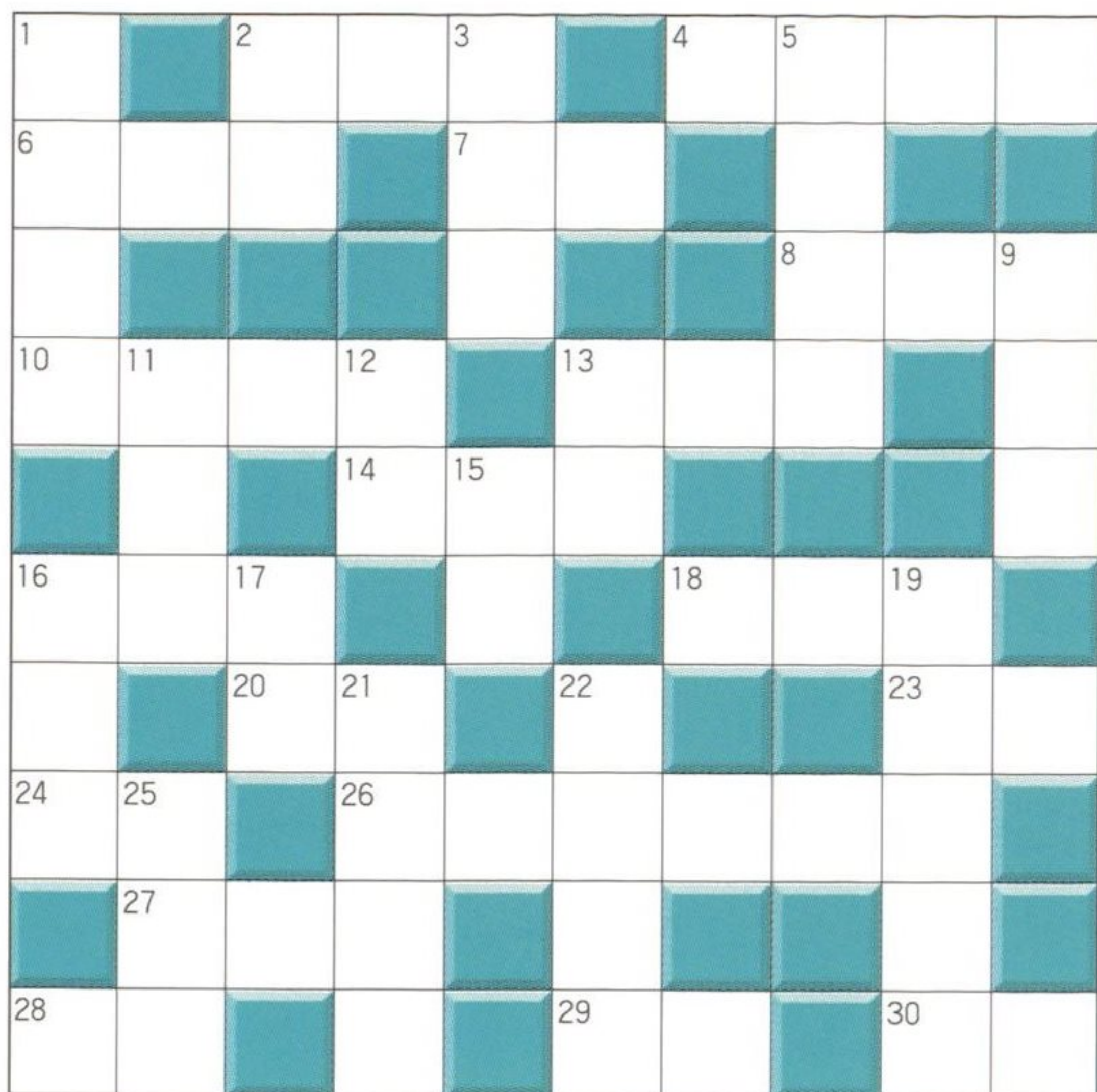
김은화(남구 대연3동)
정영혜(사하구 감천1동)
남영수(중구 중앙동 4가)
김진영(수영구 수영동)
염지선(남구 대연4동)
조현선(해운대구 우1동)
김미희(해운대구 좌3동)
안상도(수영구 광안4동)
이복연(사상구 엄궁동)
오경미(영도구 청학2동)

■ 기존가입 당첨자(염서) 명단(10명)

진미란(부산진구부암1동)
김태기(해운대구 우동)
장양애(서구 서대신동3가)
전정선(북구 만덕1동)
신동숙(남구 대연5동)
김미소(북구 만덕1동)
박신향(해운대구 반여2동)
김호인(해운대구 반여1동)
이정욱(동래구 온천3동)
노채숙(수영구 광안2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문제

2. 고대 이집트 왕의 호칭.
4. 입기 편하며 활동적이면서도 여성미가 넘치는 스타일로 사랑받은 프랑스 의류디자이너로, 그녀의 이름을 딴 향수도 유명하다.
6. 그 해 가을들어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 노오란 꽃잎이 피려고 간반엔 ○○○가 저리 내리고...
7. 1971년 미국에서 판매된 이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
8. 비계덩어리, 여자의 일생 등을 남긴 프랑스의 소설가.
10. 연극적인 대사가 많아 극의 이해가 쉬운 오페라 부파의 대중적인 작품 '비밀결혼'의 작곡가.
13. 로마신화에 나오는 문(門)의 수호신. 두 얼굴을 지닌 모습에 빗대어 이중적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14. 영화 박하사탕, 역도산, 사랑에 빠지다 등에 출연한 남자배우.
16. 1916년 박종빈이 법신불(法身佛)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믿음의 대상과 수양의 표본으로 삼아 개창한 종교. 'o'를 상징으

- 로 나타내며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주장한다.
18. 11살의 나이로 세계 최고 권위의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 입상하여 명성을 얻은 천재 첼리스트.
20. 구한말과 일제 강점하에서 최첨판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 가족사이자 민족사를 다룬 소설가 박경리의 대하소설.
23. 호금(胡琴)의 일종인 중국 근대의 현악기로, 중국어로는 얼후.
24. 중이 되는 사람에게 숙명 대신 새로 지어주는 이름.
26. 스케이트로 얼음판 위에서 예술적인 율동, 안정된 자세 따위로 승부를 내는 경기.
27. 바르고 아담하면서도 힘차며 귀족적인 기품이 높았던 중국 동진시대의 서예가.
28. 태양을 초점으로 긴 꼬리를 타원이나 포물선 또는 쌍곡선의 궤도를 그리며 운동하는 천체. 꼬리별, 살별.
29. 개성의 옛 이름.
30. 그날 그날 겪은 일이나 감상 등을 적은 개인의 기록.

세로문제

1. 4월 26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초청공연을 갖는 세계 정상의 실내악단.
2. 프랑스의 수도.
3. 북극과 남극지방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빛의 현상.
5. 가을을 상징하는 국화과의 일년초. 멕시코가 원산으로 6월~10월에 하얀, 분홍, 진분홍 등 여러 빛깔의 꽃이 핀다.
9. 조선 성종때 정극인이 지은 가사. 고향의 봄경치를 읊은 내용으로, 가사문학작품의 효시라 일컬어진다.
11. 암벽에 새긴 불상.
12. 판소리에서 연기자가 사이사이에 엮어넣은 이야기.
13. 홈런, 삼진아웃, 데드볼...
15. 중국 고전극의 한가지. 호궁, 월금, 징, 저 등의 반주를 곁들인 음악극.
16. 미술에서 화면에 원근을 나타내어 그림의 현실감이나 입체감을 강하게 하는 기법.
17.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이자 경제, 문화의 중심지.
19. '백의의 천사'로 불린 영국의 간호사.
21.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
22. 20세기 초 미국 흑인 사이에서 불려진 종교가요.
25.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행성.

지난호 정답

왕	의	남	자	모	조	지	훈
오	국	하	모	니	카	민	
천	지	와				음	정
축	막	사	이	사	이	상	음
국		군	계	감			
	조	자	정	풍	콩	가	
	수			모	차	르	트
까	미	유	끌	로	델	네	오
막			드	이	상	버	
눈	치	불	쇼	이	스	크	랩

■ 큰집 식사권

이선호(부산진구 전포3동)
전영철(해운대구 반여1동)
성흥영(부산진구 초읍동)
임혜숙(연제구 거제1동)
이진화(금정구 서2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유호상(사상구 감전동)
김지선(사하구 신평동)
박홍규(동구 초량2동)
이연희(사하구 장림2동)
신은경(울산시 동구)

■ 산마루골터(구 돈방불패)

이혜경(수영구 광안2동)
모상봉(부산진구 연지동)
소은희(동래구 온천3동)
류화자(수영구 남천2동)
정한욱(동래구 안락1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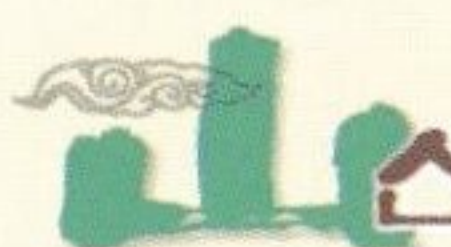
오경희(연제구 거제 2동)
백경민(사상구 주례2동)
이민영(영도구 동삼1동)
김소로(수영구 수영동)
이계정(연제구 연산5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4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응모하십시오.



▶ 5월 12일(금) 낙동강 하구언 생태체험

부산의 젖줄인 낙동강 하구언의 생태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테마여행.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09:30 다대포 도착-낙동강 삼각주 관광
10:30 낙동강 하구 이동
11:00 진우도-갯벌 생태 관찰
12:00 중식-생태 설명 및 환경 정화
15:00 진우도 출발



▶ 6월 9일(금) 천연염색 및 우포늪 생태체험

국내 최대의 자연늪지인 우포늪 생태 및 천연염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여행.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창녕 우포늪 생태학습원 도착-천연염색 체험
12:00 중식
13:00 우포늪 생태 관찰 및 설명
15:00 창녕 출발



▶ 7월 7일(금) 손두부 및 허브체험

배내골의 맑고 푸른 자연 속에서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향긋한 허브 화분을 만들어보는 자연체험.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석남사 관람
11:00 체험장 도착 및 손두부 만들기
12:30 중식
13:30 허브화분 만들기
14:30 배내골 출발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10명을 추첨, 1인 2명에게 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발 표 : 4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5월 여행 당첨자 발표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051-607-6070), (주)파란여행(051-631-7740)

고품격리조트 허니문의 名家

파란여행 HONEYMOON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께 드리는 혜택

- 1쌍 30만원 할인
- 여권(단수), 여행용가방, 여행자보험 서비스
- 롯데면세점, 파라다이스면세점 할인쿠폰
- 환전우대서비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이 쿠폰은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4월 22일(토) - 페이지원 재즈밴드 공연

김성환 추모 재즈콘서트(문화회관), 부산 재즈콘서트(가톨릭센터), 한·미·일 재즈페스티벌, 부산재즈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오프닝연주에 출연한 페이지원 재즈밴드의 무대.

· 연주/최성준(Guitar), 이병주(Saxophone), 나진주(Piano), 허진호(Bass), 곽영일(Drum), 김민정(Vocal)

프로그램

On Green Dolphin Street - Bronislau Kaper(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스탠더드곡)

Stolen Moments - Oliver nelson(12마디형식의 마이너블루스)

Nature Boy- Eden Ahbez(영화 물랑루즈에서 주인공이 불러 우리들에게 아주 친근한 곡)

Wee - Denzil Best(아주 빠른 템포의 리듬으로 신나는 스윙곡)

Mamacita - Joe Henderson(색소포니스트 Joe Henderson이 작곡한 라틴블루스곡)

Put It Where You Want it - Joe Sample(신나는 펑키곡으로 아주 강렬한 사운드가 매력인곡)

Autumn Leaves - Joseph Kosma(1950년 Bing Crosby가 제일 먼저 녹음한 이래, Frank Sinatra, Tony Bennett, Nat King Cole 등 많은 스탠더드 계열의 가수들이 불러주었다)

● 4월 29일(토) - 서지영무용단 공연

부채춤(출연/이선경, 이다경, 김여진, 최문례, 문혜정, 오선경, 심부근)

승무(출연/서지영·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

장고춤(출연/윤정미, 이선경, 이다경, 김여진, 최문례)

선비춤(특별출연/박성호·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나비춤(특별출연/조영선·범어사 바라밀무용단 예술감독)

살풀이춤(출연/서지영·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전수자)

진도북춤(출연/윤정미, 구성심, 이필오, 박혜경, 최문례, 오선경)

※ 해설/양학련(신라대학교 무용학부 교수)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10%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6월 30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051-740-4858



상인개는
별난물건 박물관
부산광역시 과학연구박물관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는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이 쿠폰은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	---	---	---	---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	---	---	---	---	---

호텔농심
호텔 & 허심청



서툰사람들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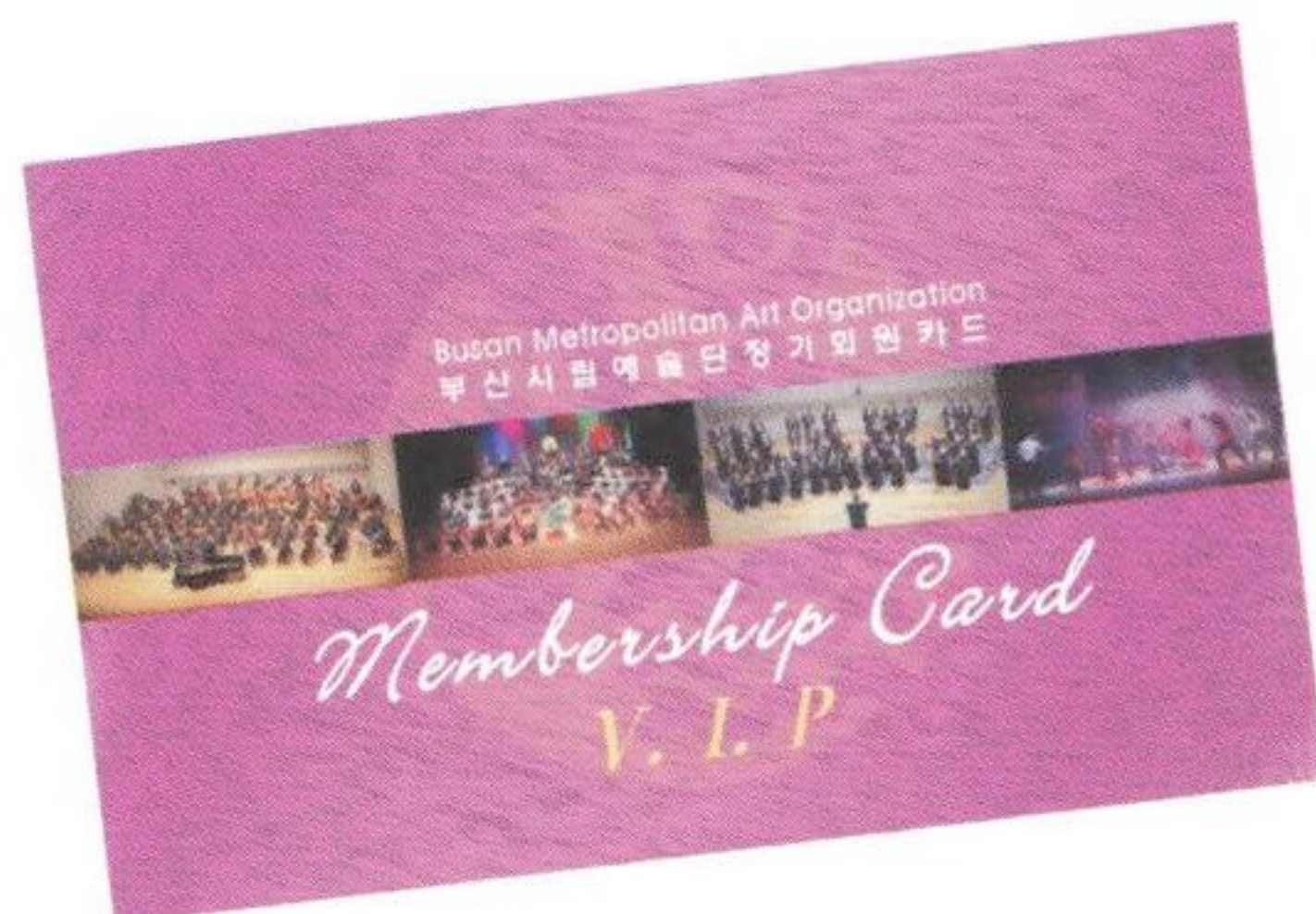
- ▶ 날짜 : 2006. 4. 18(화)~5. 21(수)
- ▶ 시간 : 평일 7:30/토요일 4:30, 7:30
일요일 3:00, 6:00/월휴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www.kamagol.co.kr

-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전화예매시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 이미 예매하신 분은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예매 후,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본인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정기회원이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이 무지치(I MUSICI) 내한 공연

“시가라 하면 쿠바의 코히바 시가가 최고이며,
적포도주라 하면 샤토 라피테 로셀드를 최고로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비발디 사계의 연주라 하면 뭐니뭐니해도
이 무지치가 연주하는 사계가 최고라고 할 수 있다”

- The Palm Beach Post -

□프로그램

보케리니/미뉴엣

모차르트/론도

차이코프스키/왈츠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몬티/차르다스

비발디/사계 등 수록

※ 곡목과 공연순서는 연주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2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중고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S석, A석 20% 할인)

■주 최/ 부산문화회관

■문 의/부산문화회관(607-6047, 607-6070, www.bsculture.busan.kr)